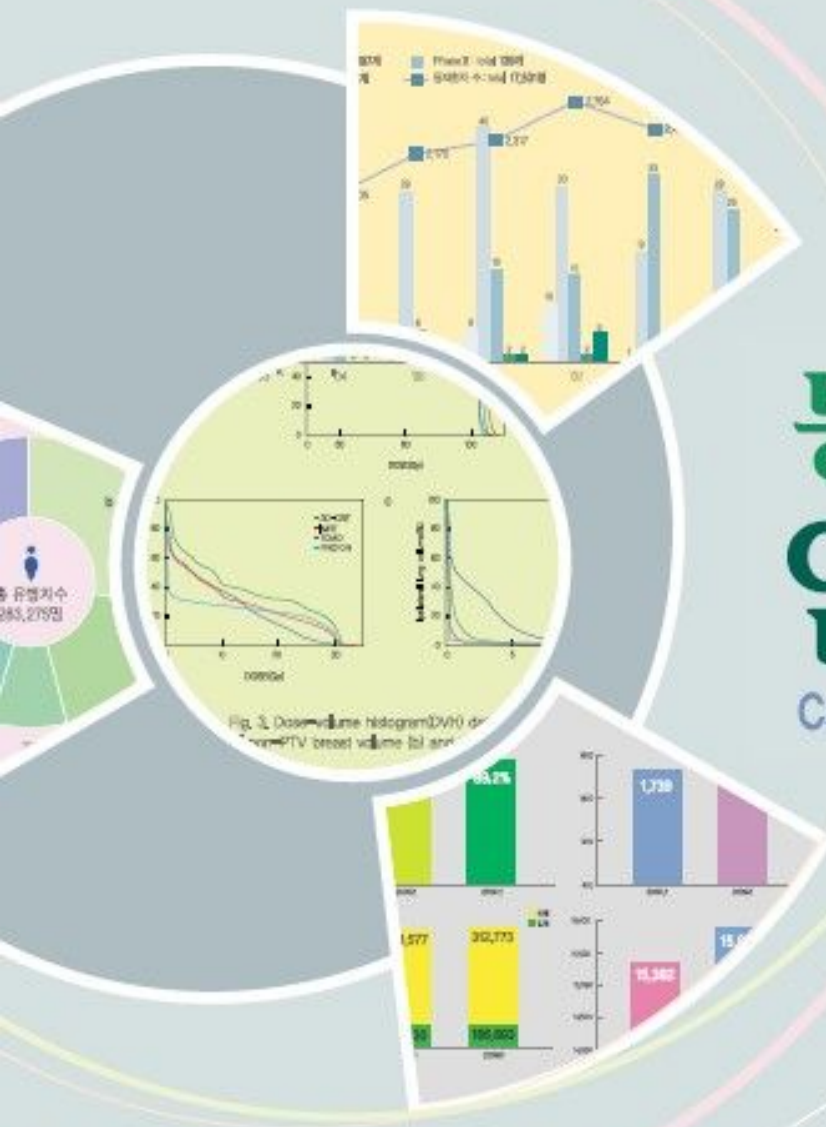


# 통계로 본 암 현황

Cancer Facts & Figures 2010



## 발 간 사

암은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로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중대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노령화 및 생활양식의 변화 등으로 암의 발생 및 암으로 인한 사망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WHO)는 암 발생의 1/3은 예방이 가능하고, 1/3은 조기진단 및 조기치료로 완치가 가능하며, 나머지 1/3의 암환자도 적절한 치료를 하면 극복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1996년부터 '제1기 암정복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암 극복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였고 2006년부터는 '제2기 암정복10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암정복을 위한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0년도 설립된 국립암센터는 암 연구 수행 및 지원, 암환자 진료, 국가암관리사업 지원, 암전문가 교육훈련 등을 통해 국민의 암 발생률과 사망률을 낮추고, 암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암관리정책 개발, 국내 암연구 사업지원, 국내 암전문 의료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네트워크 강화 등을 통해 정부의 '제2기 암정복10개년계획'의 추진을 적극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출간되는 '통계로 본 암 현황'은 국립암센터에서 출간된 자료는 물론 암과 관련되어 우리나라에서 출간된 보고서, 논문 등 자료를 포괄적으로 수집하여 각 영역별로 재정리 한 것입니다. 또한 국립암센터 국가암관리사업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가암관리사업의 현황도 요약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통계로 본 암 현황'은 현재 우리나라 암 현황과 암관리사업의 성과를 알림과 동시에 향후 국가암관리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어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통계로 본 암현황'이 향후 우리나라, 더 나아가 아시아와 세계의 암을 정복하는데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통계로 본 암현황'이 발간되기까지 애써주신 국립암센터 전문가 및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 3월

국립암센터 원장 이진수

## 차 례

제1부. 암부담 .....	1
1.1 암발생 .....	2
1.2 암사망 .....	17
1.3 암생존 .....	25
1.4 암으로 인한 질병부담 .....	37
제2부. 암예방 .....	45
2.1 개요 .....	46
2.2 흡연 .....	50
2.3 채소 및 과일 섭취 .....	62
2.4 나트륨 섭취 .....	66
2.5 음주 .....	68
2.6 신체활동 .....	76
2.7 비만 .....	80
2.8 B형 간염 .....	83
2.9 안전한 성생활 .....	84
2.10 직업성 암 .....	86
제3부. 암조기검진 .....	89
3.1 전체 수검률 .....	90
3.2. 국가암조기검진사업 .....	108

제4부. 암진단·치료 .....	121
4.1 암진료비 .....	122
4.2 암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 .....	126
4.3 암환자 요구도 및 경험조사 .....	132
4.4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	178
제5부. 완화의료/암생존자 관리 .....	187
5.1 완화의료 .....	188
5.2 암생존자 관리 .....	207
5.3 재가암환자 지원사업 .....	225
제6부. 암기반 .....	229
6.1 암정보/교육 .....	230
6.2 암등록/지역암센터 .....	240
제7부. 암정복 10개년 계획 .....	245
7.1 제2기 암정복 10개년 계획 .....	246
* 참고문헌 .....	2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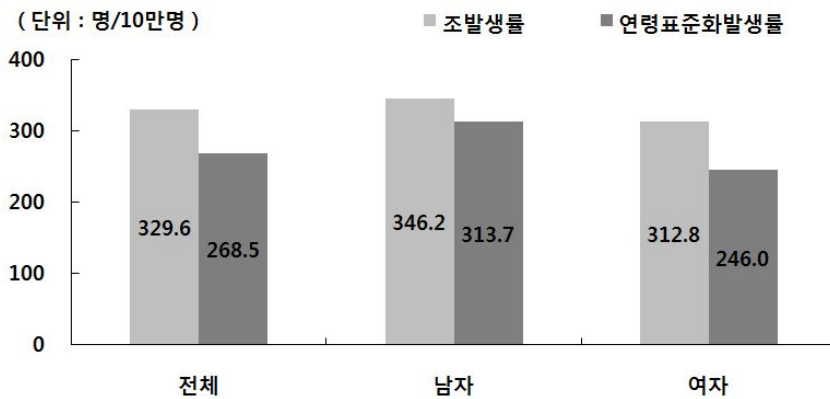
# 제 1부 . 암 부 담

## 1.1 암발생

### 암발생률

우리나라 2007년 연령표준화발생률은 인구 10만명당 남자 313.7명, 여자 246.0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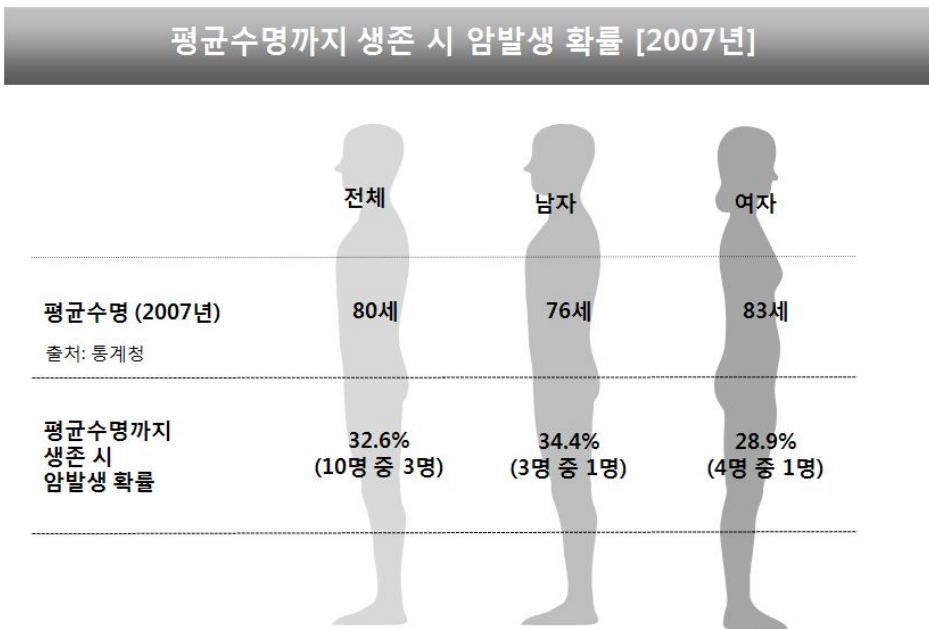
암발생률 [2007년]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암등록본부 2009  
\* 표준인구 : 우리나라 2000년 주민등록연앙인구

## 평균수명까지 생존 시 암발생 확률

우리나라 국민들이 평균수명(남자 76세, 여자 83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남자는 3명 중 1명(34.4%), 여자는 4명 중 1명(28.9%)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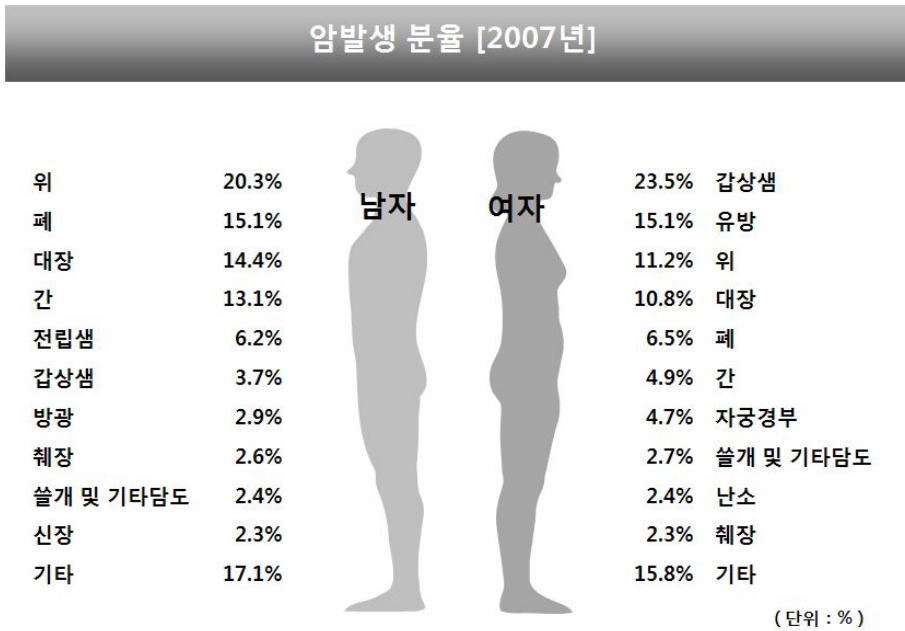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암등록본부 2009

## 암발생 분율

2007년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남자의 경우 위암으로 전체 암의 20.3%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폐암(15.1%), 대장암(14.4%), 간암(13.1%), 전립샘암(6.2%) 순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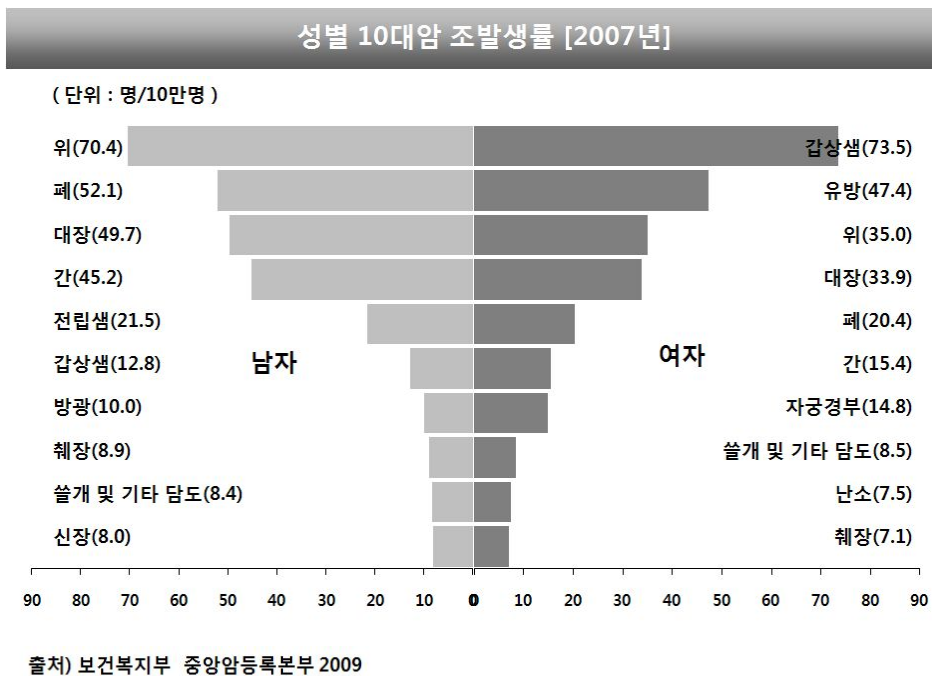
여자의 경우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갑상샘암으로 전체의 23.5%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유방암(15.1%), 위암(11.2%), 대장암(10.8%), 폐암(6.5%) 순이었음.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암등록본부 2009

## 성별 10대암 조발생률<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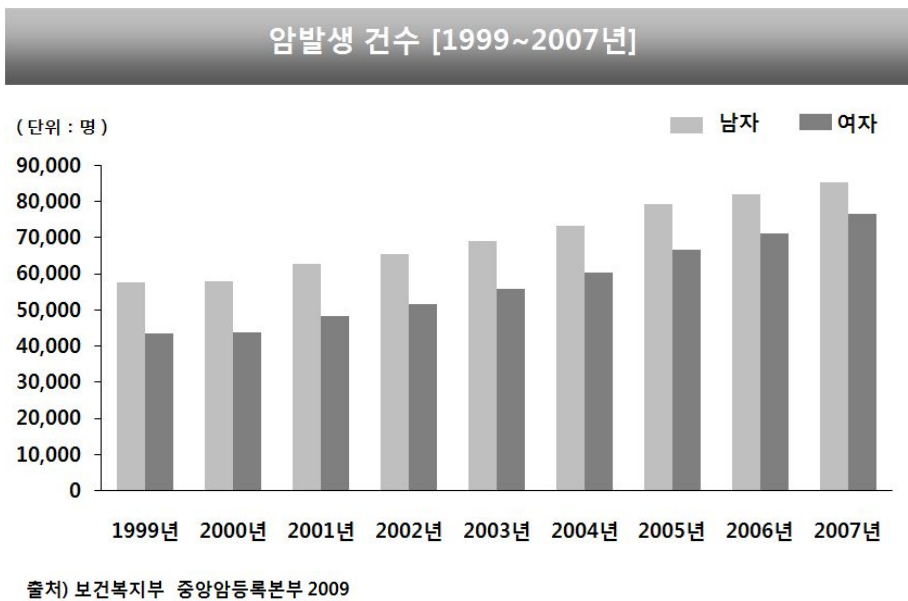
2007년 성별 10대암의 조발생률을 살펴보면, 남자는 위암(70.4명)이 가장 높았고, 폐암(52.1명), 대장암(49.7명), 간암(45.2명) 순이었으며, 여자는 갑상샘암(73.5명), 유방암(47.4명), 위암(35.0명), 대장암(33.9명) 순이었음.



1) 조발생률: 해당 관찰기간동안 특정 인구집단에서 새롭게 발생한 암환자수로, 일반적으로 인구 10만명당 발생하는 암환자수. 조발생률=새롭게 발생한 암환자수/주민등록연앙인구수×100,000

## 암발생 건수

우리나라 2007년 암발생 건수는 161,920명으로, 1999년 101,032명 대비 60.3% 증가함. 남자는 1999년 57,594명, 2007년 85,257명이었고, 여자는 1999년 43,438명, 2007년 76,663명으로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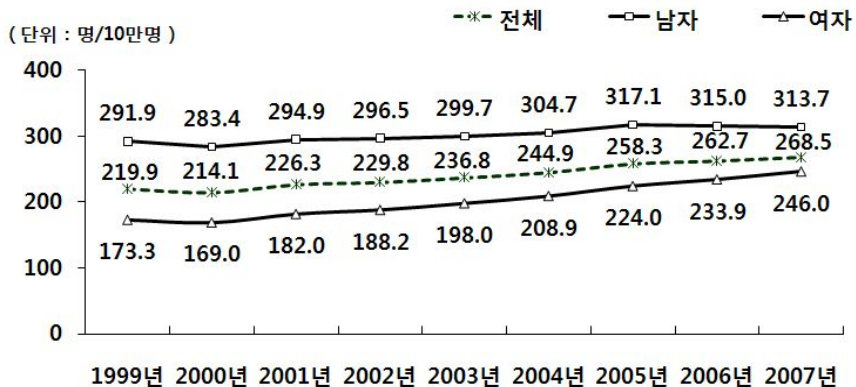


## 연령표준화발생률<sup>2)</sup> 추이

모든 암의 연령표준화 발생률 추이는 1999년 10만명당 219.9명에서 2007년 268.5명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2.9%(연간 %변화율<sup>3)</sup>)의 증가율을 보임.

남자는 1999년 10만명당 291.9명에서 2007년 313.7명으로 연평균증가율이 1.3%이며, 여자는 1999년 10만명당 173.3명에서 2007년 246.0명으로 연평균증가율 4.9%를 보임.

연령표준화발생률 추이 [1999~2007년]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암등록본부 2009

\* 표준인구 : 우리나라 2000년 주민등록연령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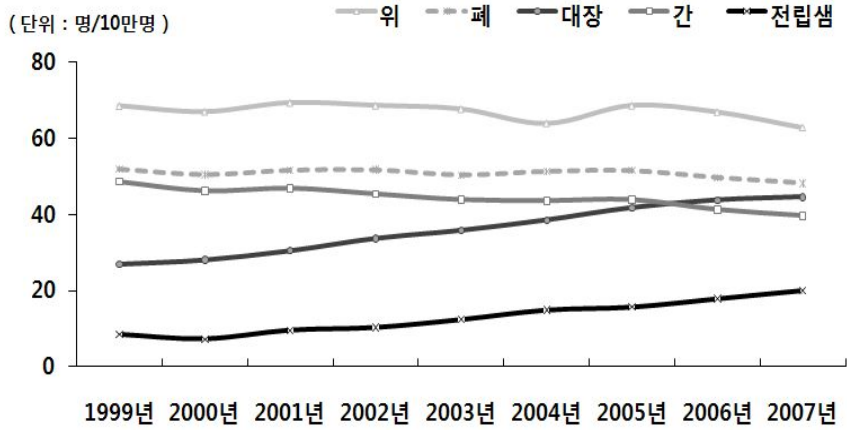
- 2) 연령표준화발생률: 각 연령군에 해당하는 표준인구의 비율에 가중치로 주어 산출한 가중평균 발생률. 연령구조가 다른 지역간 혹은 시기간 암발생률 비교 시에 사용함.
- 3) 연간 %변화율(Annual Percent Change; APC): 연간 %변화율은 암발생률 추이를 요약하는 하나의 지표로 로그를 취한 연도별 연령표준화발생률에 대한 선형 추세선의 기울기를 구한 뒤 지수함수를 취한 값이며, 암발생률의 연평균 %변화량으로 해석됨. 만약 연간 %변화율이 1%라면, 2000년에 10만명당 50명이 발생한다면 2001년 발생률은 10만명당  $50 \times 1.01 = 50.5$ , 2002년 발생률은 10만명당  $50.5 \times 1.01 = 51.005$  임을 의미함.

## 주요암 연령표준화발생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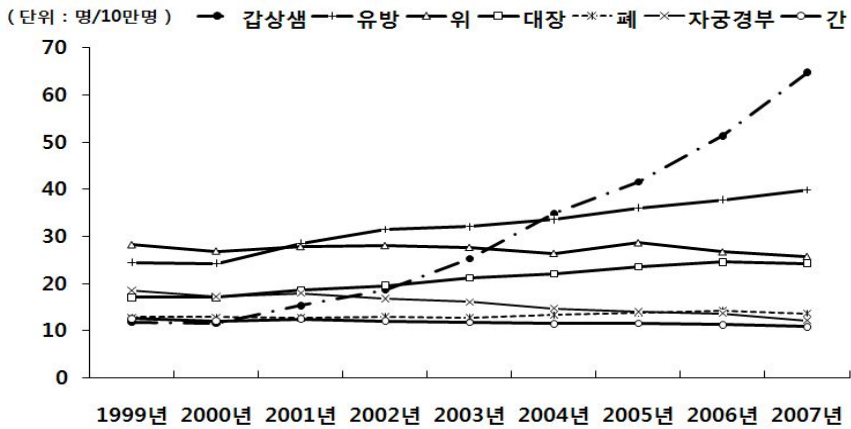
1999~2007년까지 주요암 연령표준화발생률을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위암, 간암, 폐암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전립샘암, 대장암은 연간 각각 13.2%, 7.0%의 증가율을 보임.

여자의 경우 1위암인 갑상샘암이 급증하여 연평균 26.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유방암 6.6%, 대장암 5.3%, 폐암 1.2%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자궁경부암(-4.9%)과 간암(-1.6%)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남자 주요암 연령표준화발생률 추이 [1999~2007년]



여자 주요암 연령표준화발생률 추이 [1999~200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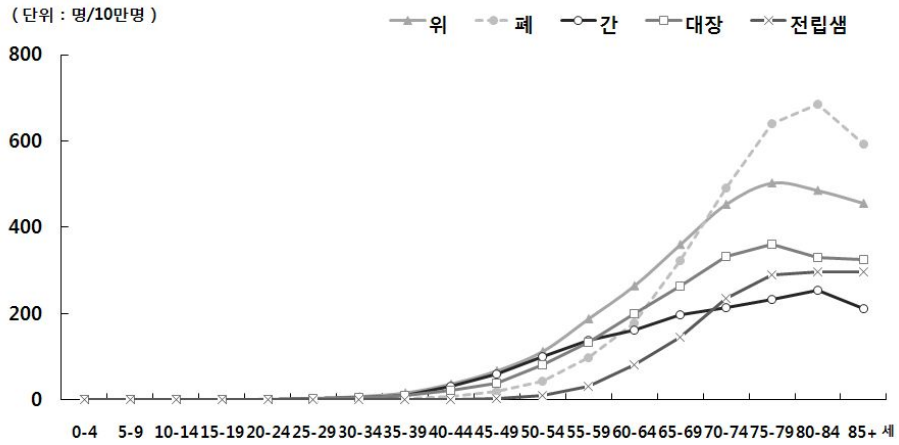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암등록본부 2009  
 \* 표준인구 : 우리나라 2000년 주민등록연앙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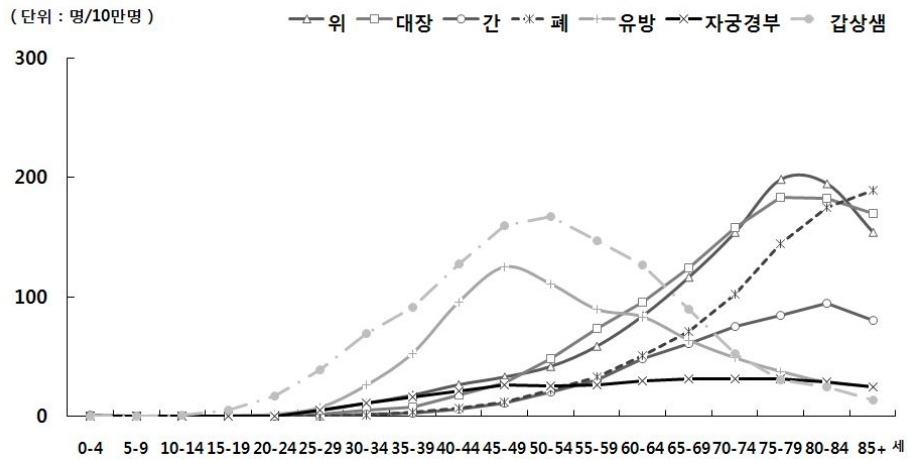
## 주요암 연령군별 발생률

2007년 주요암의 발생률을 연령에 따라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40대에서는 위암과 간암이, 50~60대에서는 위암이, 65세 이후에는 폐암이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여자의 경우 64세까지는 갑상샘암이, 65세 이후에는 대장암과 위암이 가장 많이 발생함.

### 남자 주요암 연령군별 발생률 [2007년]



### 여자 주요암 연령군별 발생률 [2007년]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암등록본부 2009

## 연령군별 암발생 순위

암발생 성비는 1.11로 남자에서 더 많이 발생하였으며, 0~14세는 1.23, 15~34세는 0.44, 35~64세는 0.92, 65세 이상은 1.56으로 연령군별 차이가 컸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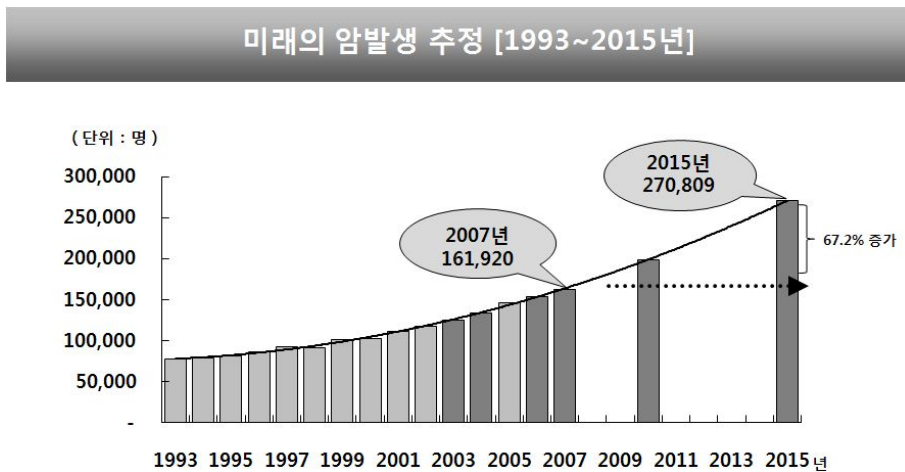
연령군별 암발생은 0~14세 경우, 남녀 모두 백혈병이, 15~34세는 남녀 모두 갑상샘암이, 35~64세는 남자는 위암, 여자는 갑상샘암이, 65세 이상은 남자는 폐암, 여자는 대장암이 1위를 차지함.



출처)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암등록본부 2009

## 미래의 암발생 추정

2015년까지 암발생을 추정한 결과, 2007년에 161,920명이었던 암발생이 2015년에는 270,809명으로 67.2%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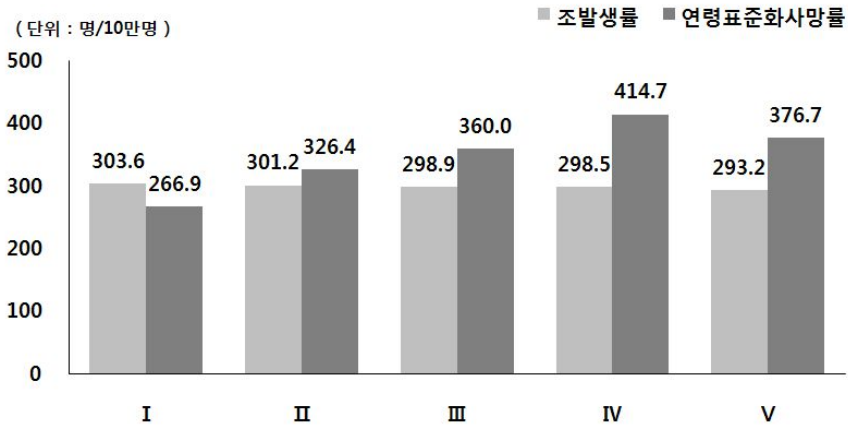
출처) 국립암센터 암등록통계과 2009

## 소득계층별 암발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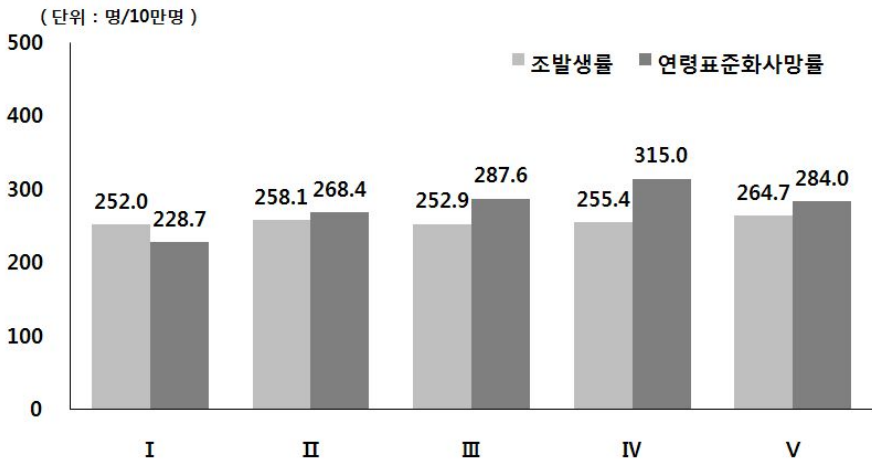
소득수준에 따른 연령표준화암발생률(1999년)을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소득수준이 낮을 때 암발생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 가장 낮은 소득그룹의 암발생률은 376.7명인 반면, 가장 높은 소득그룹의 발생률은 266.9명이었음.

또한, 여자의 경우도 비슷한 경향을 보여 가장 낮은 소득그룹이 284.0명인 반면, 가장 높은 소득그룹의 발생률은 228.7명이었음.

### 남자 소득계층별 암발생률 [1999년]



### 여자 소득계층별 암발생률 [1999년]



출처) 소득계층에 따른 암환자의 암종별 의료이용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부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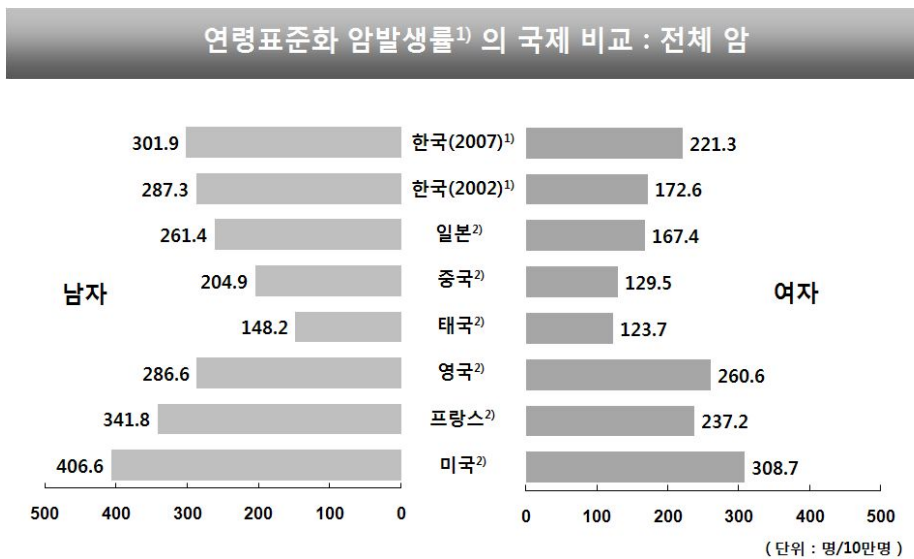
주) I-소득1계층으로 최고 소득계층, 건강보험료 상위 20%에 속함 (42,300~317,860원)

II-소득2계층 20% (29,700~42,300원), III-소득3계층 20% (21,600~29,700원)

IV-소득4계층 20% (15,100~21,600원), V-소득5계층 20% (15,100원 미만)

## 연령표준화 암발생률의 국제 비교

연령표준화 암발생률을 국제 비교해 보면, 남녀 모두에서 암발생률이 일본과 비슷하고 미국보다 낮았음.



출처 1) 보건복지부 중앙암등록본부 2009 2) GLOBOCAN 2002, IARC,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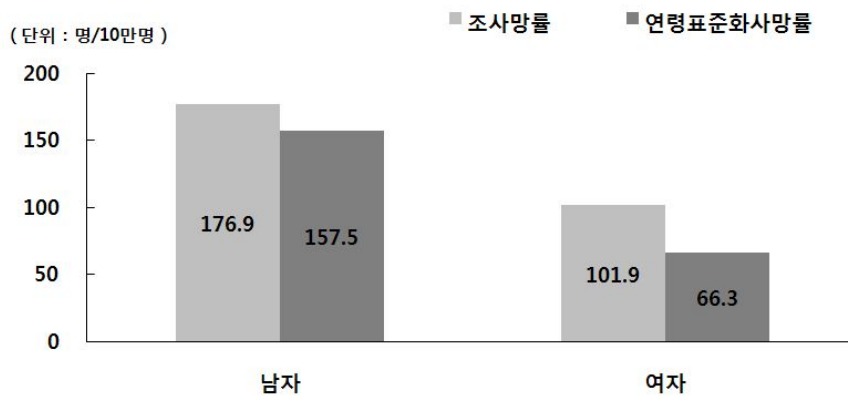
주) 국제비교를 위해 모든 암에서 피부 기타(C44)를 제외한 발생률임(표준인구 : 세계표준인구)

## 1.2 암사망

### 암사망률

2008년 우리나라 연령표준화 암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남자 157.5명, 여자 66.3명임.

#### 암사망률 [200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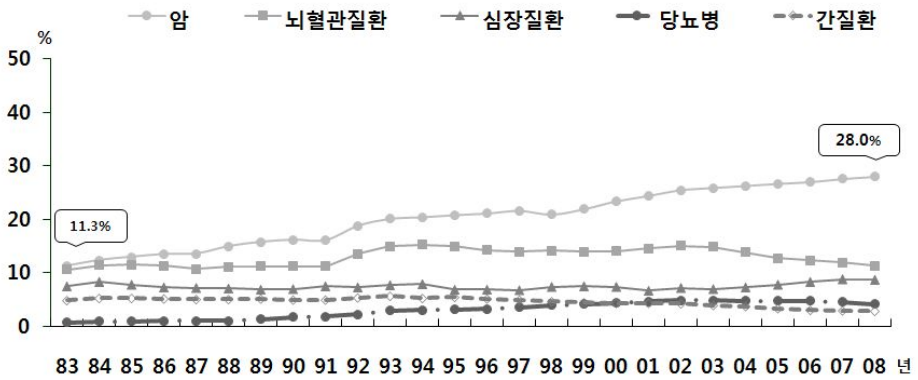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2009, KOSIS

주) 2000년 주민등록연앙인구를 표준인구로 사용하여 계산한 연령표준화 사망률임

## 질병사망 추이

2008년 우리나라 총 사망자수는 246,113명이며, 이 중 암사망자는 68,912명으로 28.0%를 차지함. 1983년 11.3%에 비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1983년 이후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음.

질병사망 추이 [1983~200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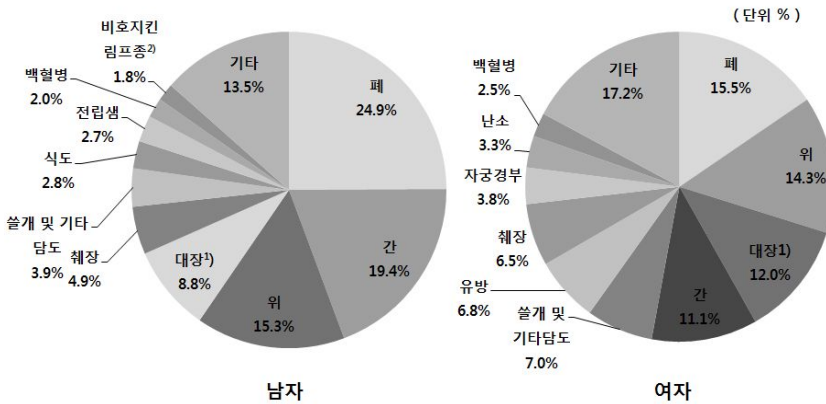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2009, KOSIS

## 암사망 분율

2008년 암사망 분율을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폐암(24.9%), 간암(19.4%), 위암(15.3%), 대장암(8.8%) 순이었으며, 여자의 경우 폐암(15.5%), 위암(14.3%), 대장암(12.0%), 간암(11.1%) 순이었음.

암사망분율 [200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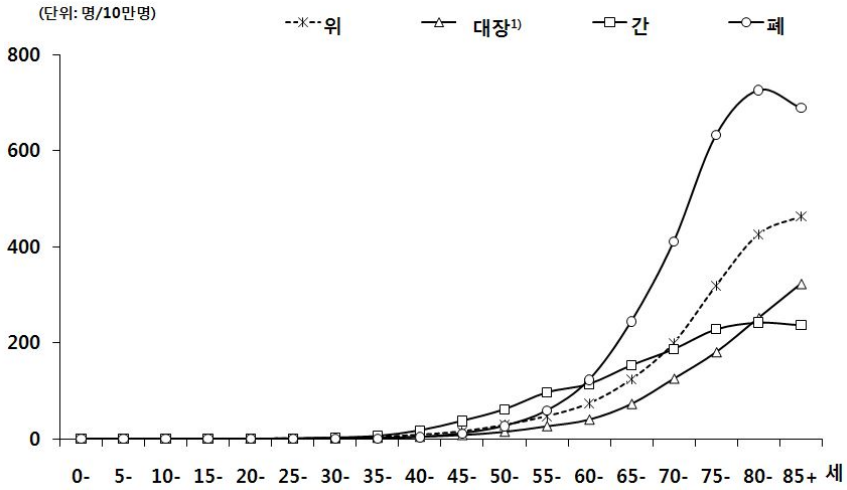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2009, KOSIS

주) 대장<sup>1)</sup> C18-C21(국제질병분류, ICD-10), 비호지킨 림프종<sup>2)</sup> C82-C85(국제질병분류, ICD-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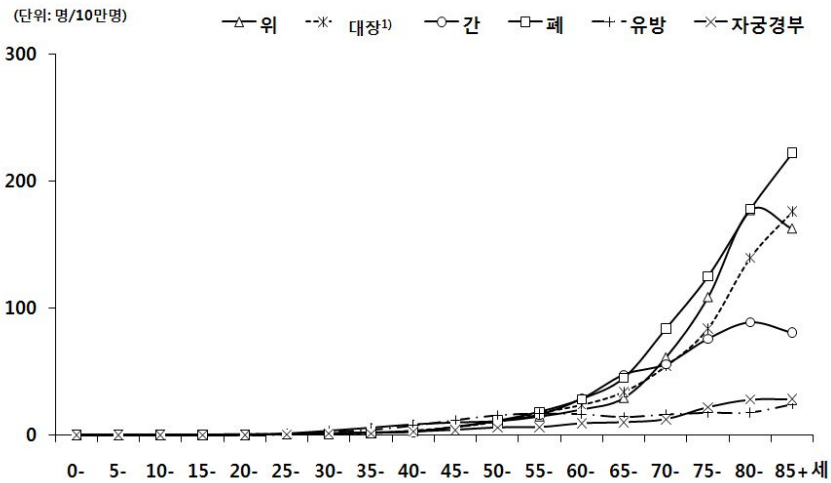
## 주요암 연령군별 사망률

2008년 주요암의 사망률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암사망률이 증가하였음.

### 남자 주요암 연령군별 사망률 [2008년]



### 여자 주요암 연령군별 사망률 [200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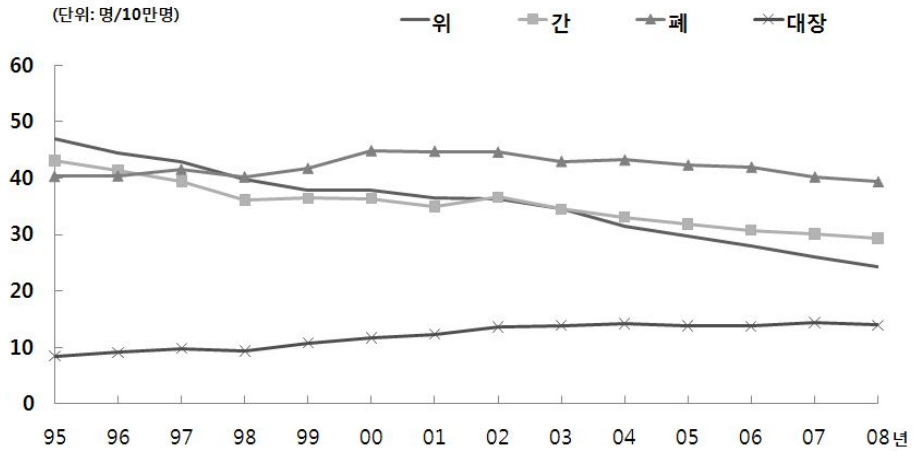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2009, KOSIS  
 주) 대장<sup>1)</sup> C18-C21(국제질병분류, IDC-10)

## 주요암 연령표준화사망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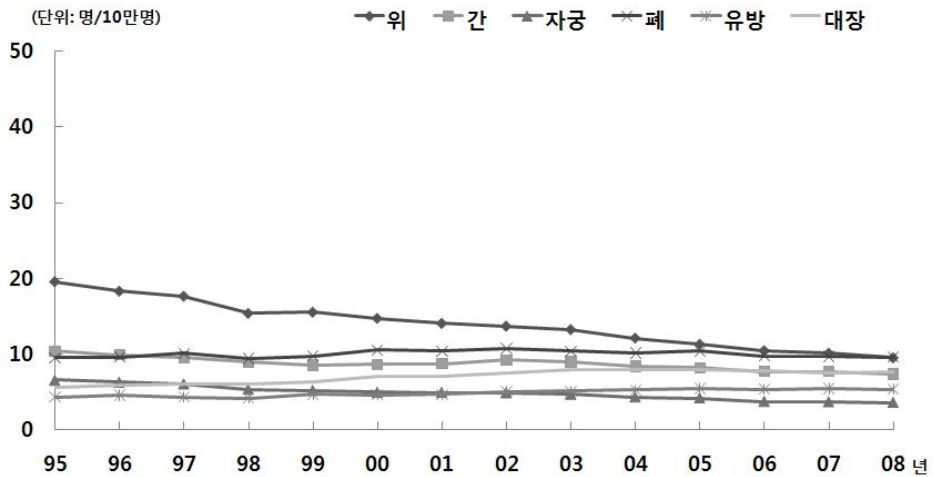
주요암의 연령표준화사망률 추이를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위암, 간암은 감소하고 대장암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폐암은 2000년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여자의 경우 위암의 연령표준화사망률 감소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간암의 사망률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대장암과 유방암의 연령표준화사망률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자궁경부암의 사망률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남자 주요암 연령표준화사망률 추이 [1995~200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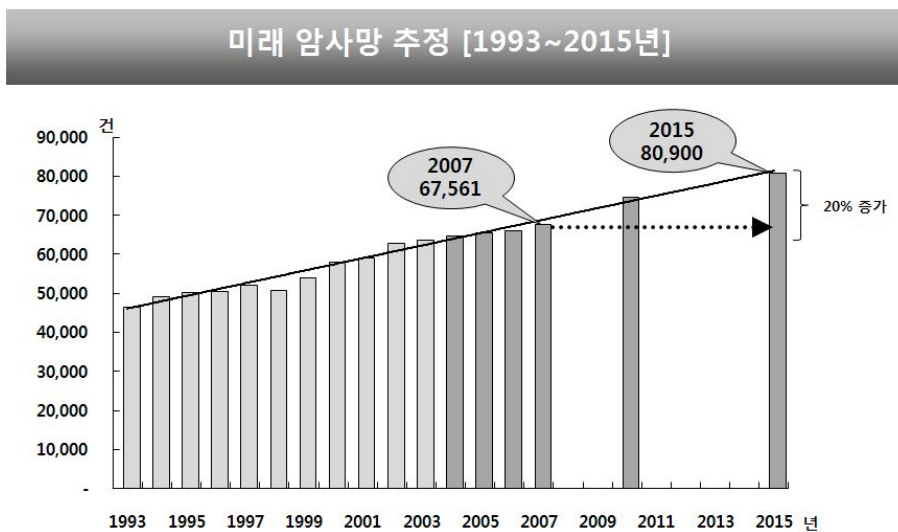
### 여자 주요암 연령표준화사망률 추이 [1995~2008년]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2009, KOSIS

## 미래의 암사망 추정

2015년까지 암사망을 추정한 결과, 2007년 67,561명이 암으로 사망하였으나 2015년에는 80,900명이 암으로 사망할 것으로 추정되어 20%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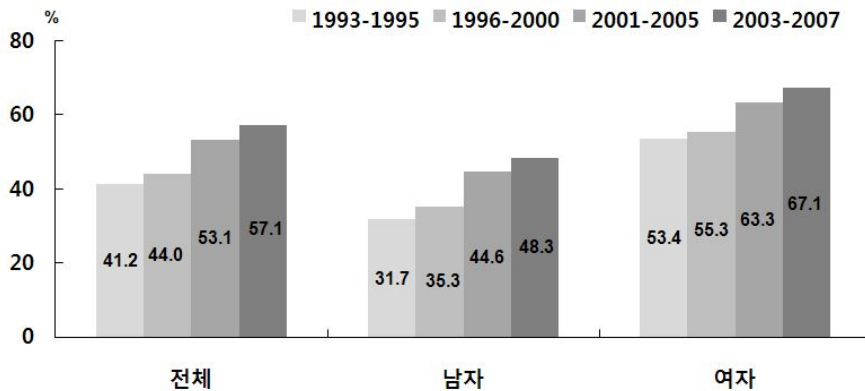
출처) 국립암센터 암등록통계과 2008

## 1.3 암생존

### 암 상대생존율<sup>4)</sup>

2003~2007년 발생한 암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은 57.1%로 1993~1995년(41.2%) 대비 15.9%, 2001~2005년(53.1%) 대비 4.0% 증가하여 지속적인 향상이 관찰되었고, 암환자의 절반이상이 5년 이상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모든 암 5년 상대생존율 [1993~200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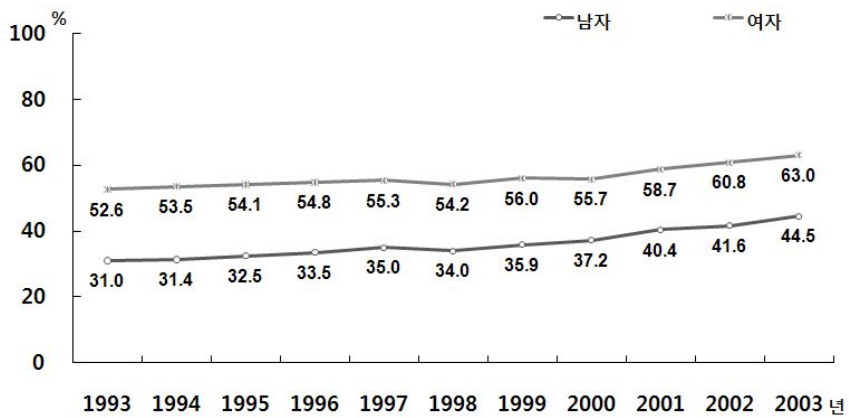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암등록본부 2009

4) 상대생존율: 관심질병을 가진 환자의 관찰생존율을 동일한 성별, 연령군을 가지는 일반인구의 기대생존율로 나누어 구한 값으로 암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했을 경우의 효과를 보정해준 생존율임.

## 모든 암 5년 상대생존율 추이

모든 암의 5년 상대생존율은 1993년 이후 꾸준히 향상되고 있음. 2003년 암 발생자의 5년 상대생존율은 남자 63.0%, 여자 44.5%로 1993년 발생자에 비해 각각 8.3%포인트, 6.9%포인트 증가하였음.

모든 암 5년 상대생존율 추이 [1993~200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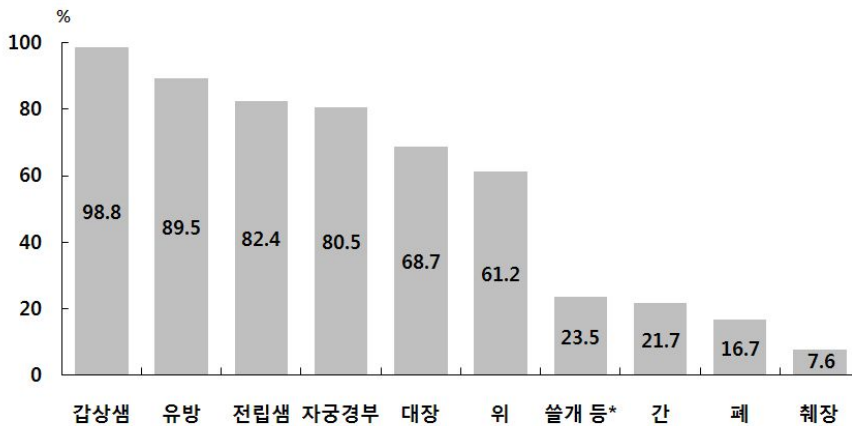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암등록본부 2009

## 주요암 5년 상대생존율

주요암 중 갑상샘암(98.8%), 유방암(89.5%), 전립샘암(82.4%), 자궁경부암(80.5%), 대장암(68.7%) 순으로 5년 상대생존율이 높았음.

주요암 5년 상대생존율 [2003~2007년]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암등록본부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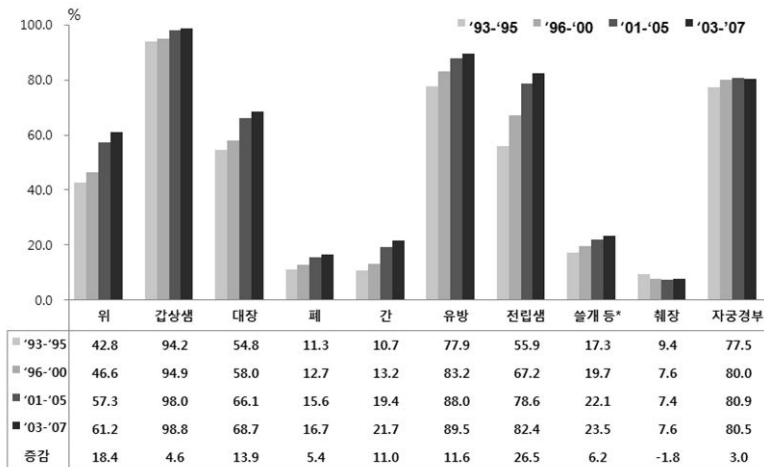
\* 췌개 및 기타담도

## 주요암 5년 상대생존율 추이 [전체]

주요암의 5년 상대생존율 추이를 살펴보면, 1993~1995년 41.2% 대비 2003~2007년 57.1%로 15.9%포인트 증가하였음.

주요암 중 생존율 향상이 가장 컸던 암은 전립샘암으로 1993~1995년 대비 2003~2007년 26.5%포인트 향상되었으며, 다음으로 위암(18.4%포인트), 대장암(13.9%포인트) 순임. 췌장암을 제외한 주요암의 상대생존율이 향상되었음.

주요암 5년 상대생존율 추이 [전체]



\* 췌개 및 기타담도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암등록본부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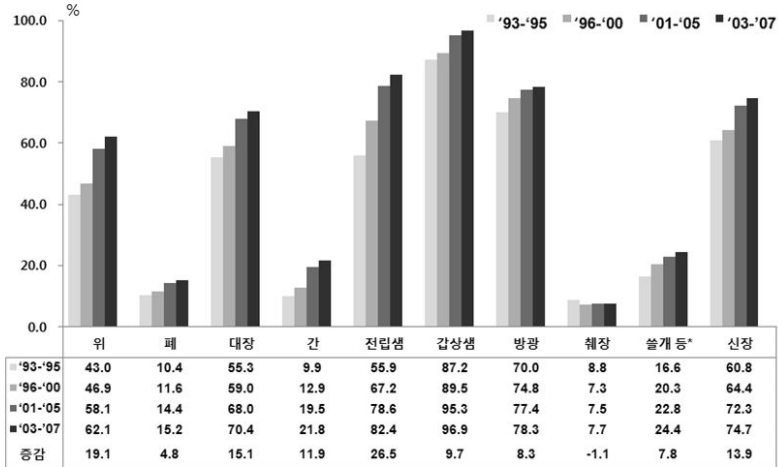
\* 췌개 및 기타담도

## 성별 주요암 5년 상대생존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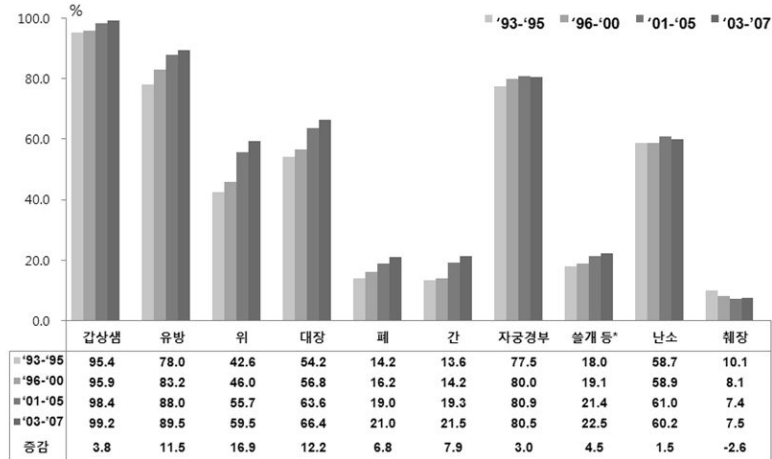
남자의 경우 갑상샘암, 전립샘암, 방광암, 신장암 순으로 5년 상대생존율이 높았으며, 여자는 갑상샘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대장암 순임.

1993~1995년, 2003~2007년 5년 상대생존율을 비교하여 보면, 남녀 모두 췌장암을 제외한 모든 암종에서 5년 상대생존율이 향상되었음.

남자 주요암 5년 상대생존율 추이



여자 주요암 5년 상대생존율 추이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암등록본부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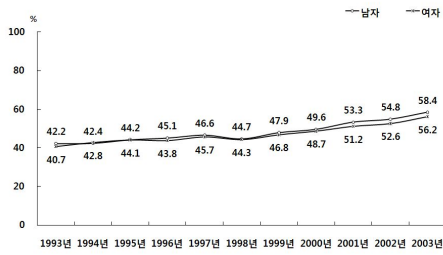
\* 쓸개 및 기타담도

## 암종별 주요암 5년 상대생존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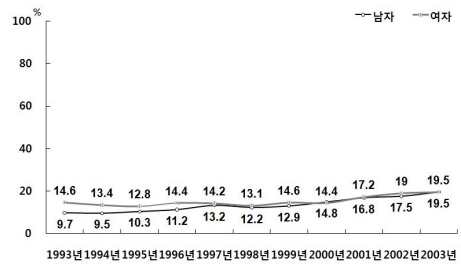
주요암(위암, 간암, 폐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의 5년 상대생존율은 1993년 이후 꾸준히 향상되었음.

# 제1부 암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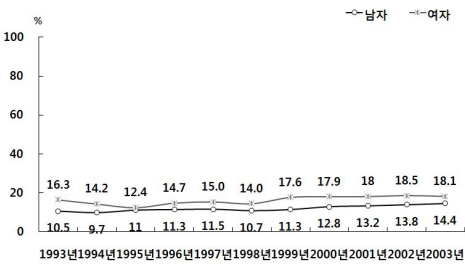
위암 5년 상대생존율 추이 [1993~200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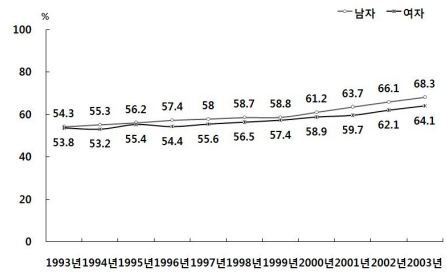
간암 5년 상대생존율 추이 [1993~200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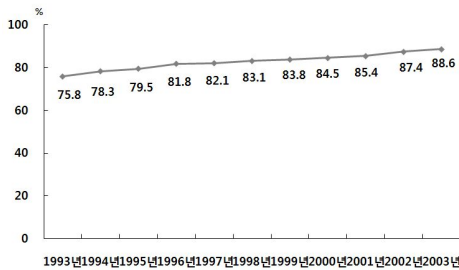
폐암 5년 상대생존율 추이 [1993~200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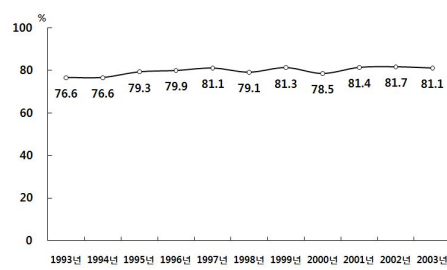
대장암 5년 상대생존율 추이 [1993~2003년]



유방암 5년 상대생존율 추이 [1993~2003년]



자궁경부암 5년 상대생존율 추이 [1993~200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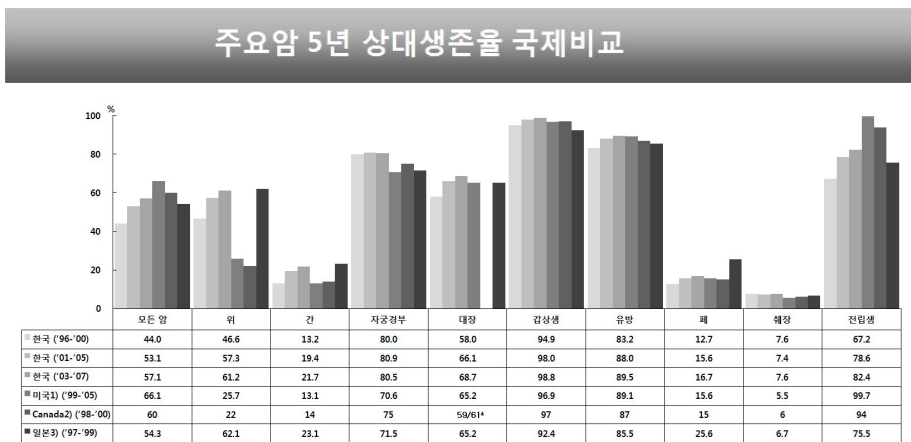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암등록본부 2009

## 주요암 5년 상대생존율 국제비교

주요암의 5년 상대생존율을 국제비교해보면,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생하는 암종, 특히 위암, 자궁경부암, 간암의 5년 생존율은 미국이나 캐나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서구형 암’이라고 일컫는 대장암, 유방암의 생존율도 미국, 캐나다와 같은 서구 국가의 수준에 도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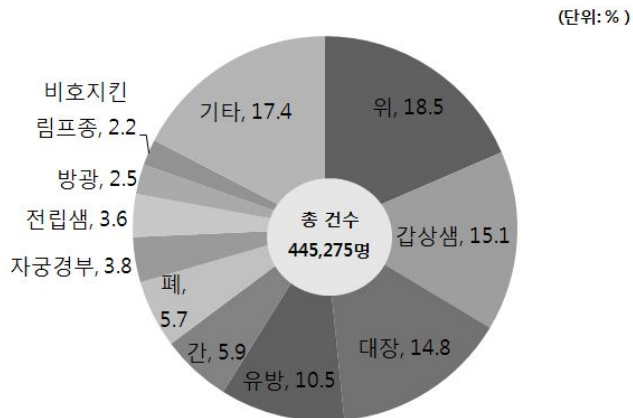


출처 1) Horner MJ, Ries LAG, Krapcho M, Neyman N, Aminou R, Howlander N, et al (eds). SEER Cancer Statistics Review, 1975-2006, 2009  
 2) Statistics Canada. Cancer Survival Statistics 1992-2000, 2009  
 3) National Cancer Center in Japan. Cancer Statistics in Japan, 2008  
 4) 결정/직장

## 주요 암종 5년 유병분율

2007년 기준 5년 암유병자는 445,275명으로 위암의 유병자수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갑상샘암, 대장암, 유방암, 간암, 폐암 순으로 나타남.

주요 암종 5년 유병분율 [200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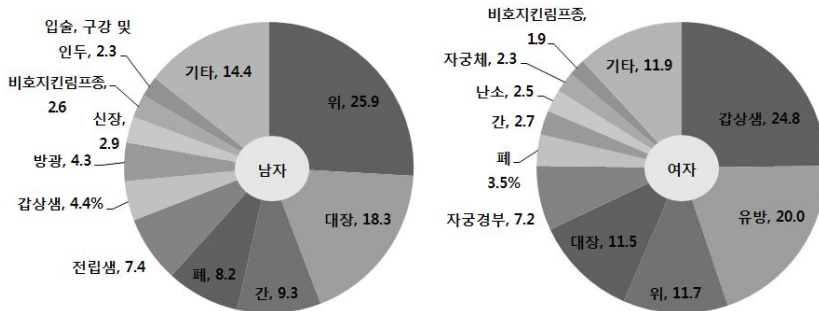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암등록본부 2009

## 성별 주요 암종 5년 유병분율

2007년 성별 주요 암종의 5년 유병분율을 살펴보면, 남자에서는 위암, 대장암, 간암, 폐암, 전립샘암 순으로 유병자수가 많았으며, 여자에서는 갑상샘암, 유방암, 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순으로 나타남.

성별 주요암종의 5년 유병분율 [200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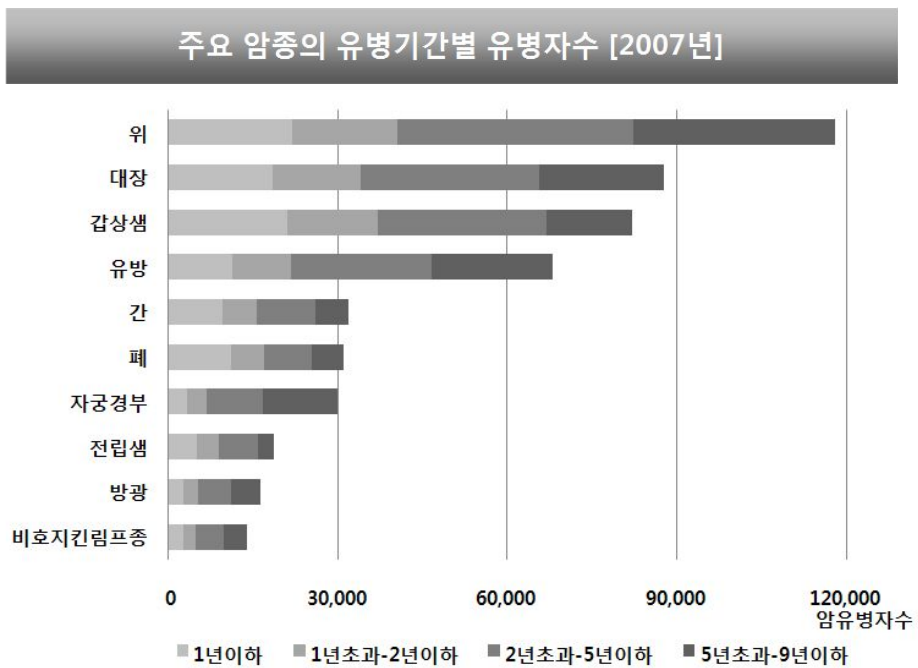
(단위: %)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암등록본부 2009

## 주요 암종의 유병기간별 유병자수

2007년 주요 암종의 유병기간별 유병자수를 살펴보면, 5년 이상 장기 생존자는 위암이 35,48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장암은 21,911명, 유방암은 21,534명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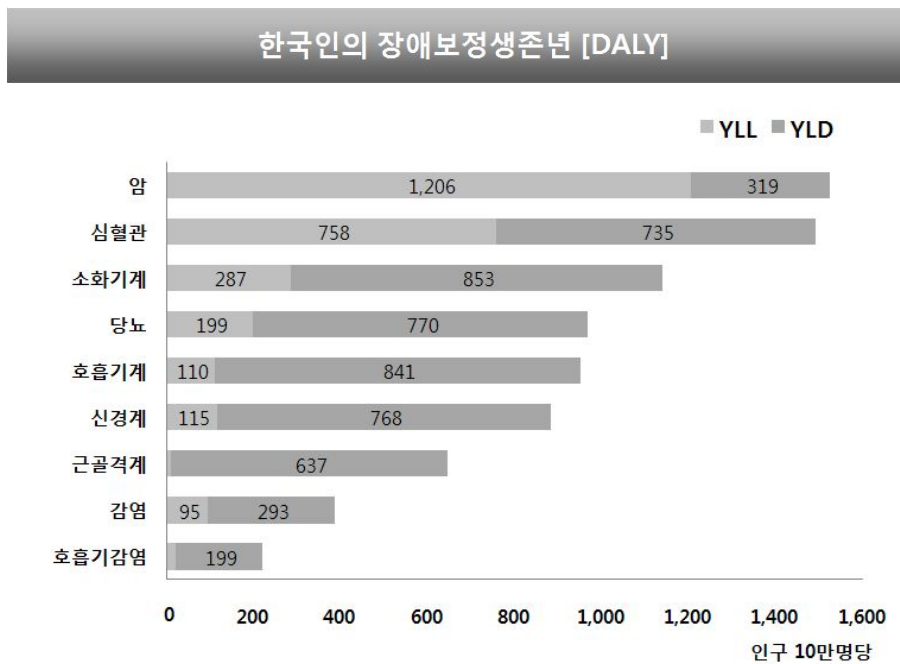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암등록본부 2009

## 1.4 암으로 인한 질병부담

### 한국인의 장애보정생존년

우리나라 주요 질병의 장애보정생존년(DALY)을 살펴보면, 암이 1,52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심혈관 질환이 1,493, 소화기계 질환이 1,140 순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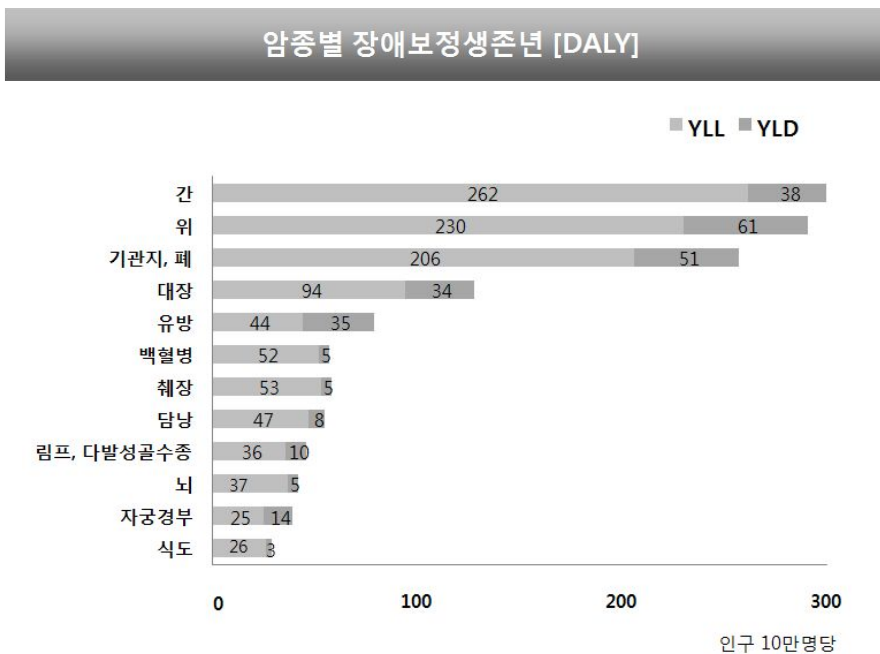


출처) 한국인의 질병부담, 보건복지부 2005

- 주) 1. DALY (Disability Adjusted Life-Year, 장애보정생존년): YLL과 YLD를 합하여 산출  
 2. YLL (Years Life Lost due to premature death, 조기사망으로 인한 생존년수의 상실)  
 3. YLD (Years of Lived with Disability, 장애에 따른 건강년수의 상실)

## 암종별 장애보정생존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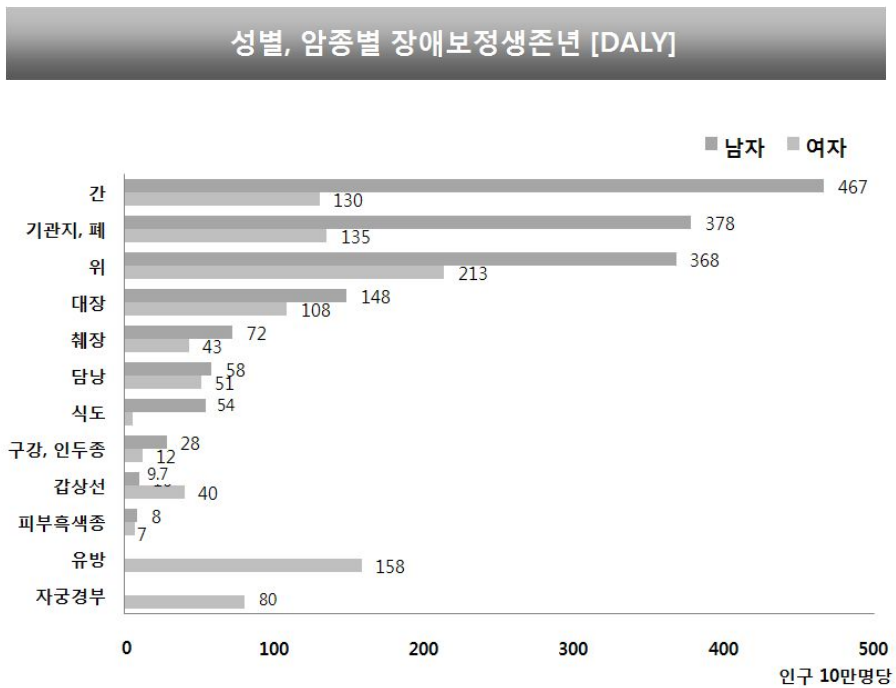
암종별 장애보정생존년을 살펴보면, 간암이 300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위암(291), 기관지암과 폐암(257), 대장암(128), 유방암(79) 순이었음.



출처) Yoon SJ et al, J Korean Med Sci 2002

## 성별, 암종별 장애보정생존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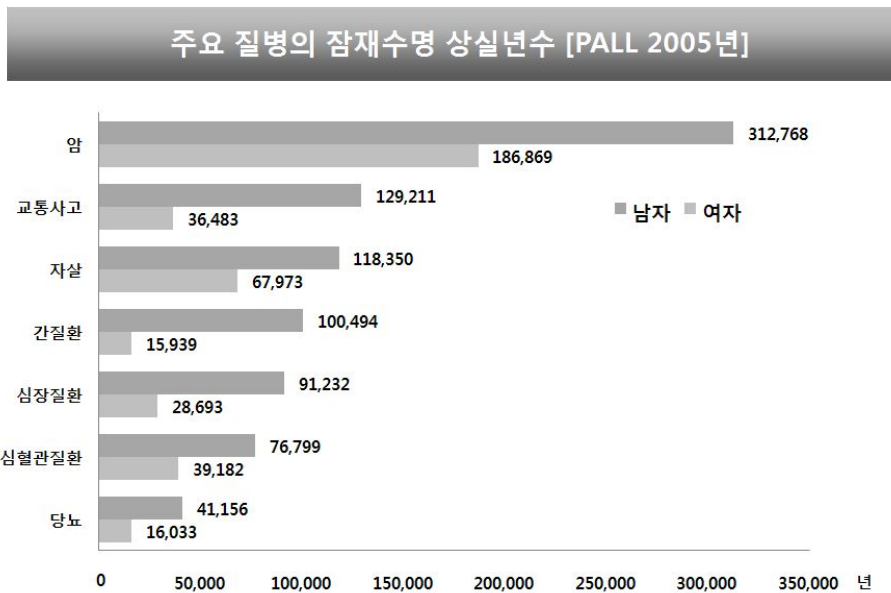
장애보정생존년(DALY)을 성별과 암종별로 살펴보면, 갑상선암과 유방암, 자궁경부암을 제외한 모든 암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장애보정생존년을 보임. 특히, 간암은 3.6배, 기관지암과 폐암은 1.7배 남자가 여자에 비해 높았음.



출처) Yoon SJ et al, J Korean Med Sci 2002

## 주요 질병의 잠재수명 상실년수 비교

주요 질병의 잠재수명 상실년수를 비교하여 보면, 남자 312,768년, 여자 186,869년으로 남녀 모두에서 암의 잠재수명 상실년수가 가장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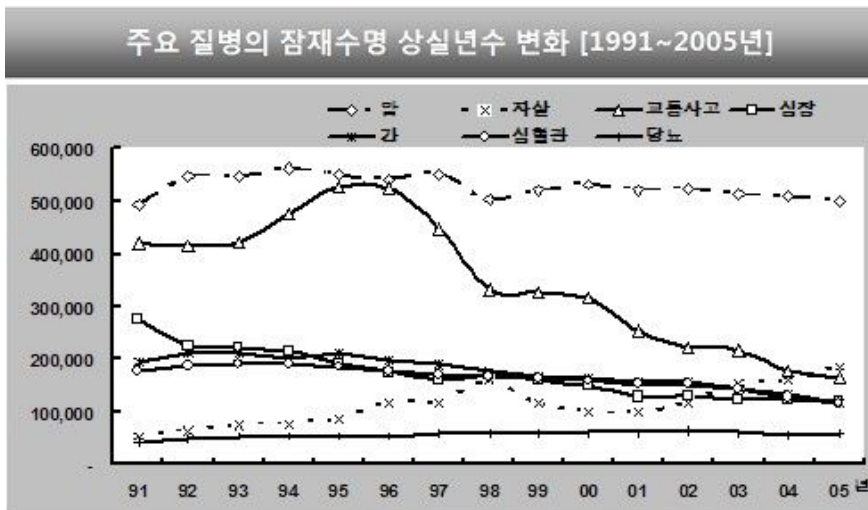


출처) 국립암센터 2007

주) PYLL(Potential Years of Life Lost-Age limitL 70. 잠재수명 상실년수): 질병으로 인해 조기사망함으로써 발생하는 부담

## 주요 질병의 잠재수명 상실년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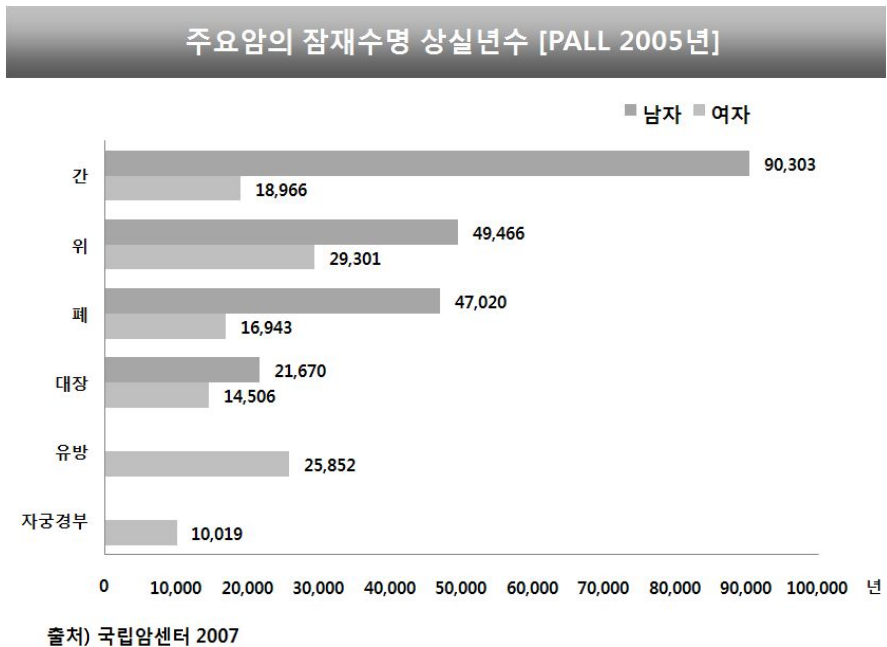
주요 질병의 잠재수명 상실년수의 연도별 변화를 살펴보면, 암은 모든 년도에서 가장 높은 상실년수를 보이고 있음.



출처) 국립암센터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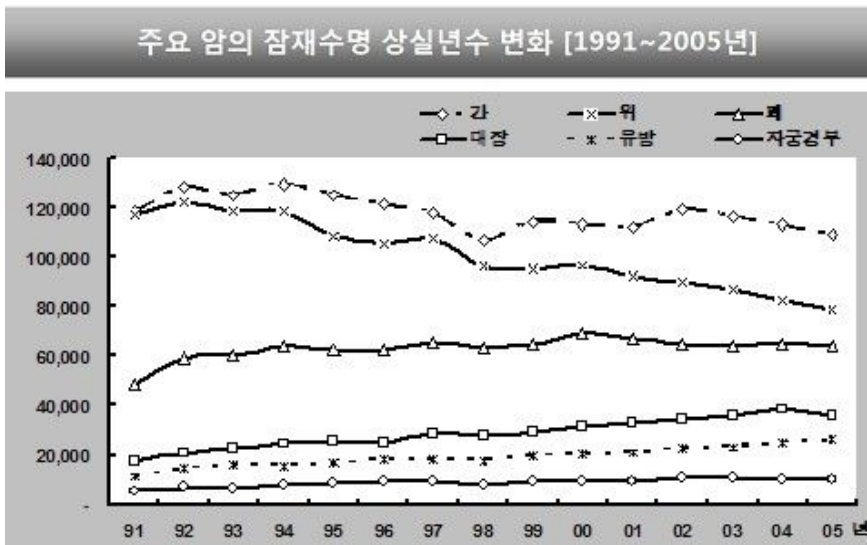
## 주요암의 잠재수명 상실년수

2005년 주요암의 잠재수명 상실년수를 성에 따라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간암이 90,303년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위암이 49,466년이었음. 여자의 경우 위암이 29,301년이었고 다음으로 유방암이 25,852년이었음.



## 주요암의 잠재수명 상실년수 변화

주요암의 잠재수명 상실년수의 연도별 변화를 살펴보면, 간암의 상실년수가 모든 연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위암, 폐암 순이었음. 간암, 위암, 대장암의 상실년수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에 폐암과 유방암은 증가 추세를 보임.



출처) 국립암센터 2007

제1부 암부담

## **제 2부 . 암 예 방**

## 2.1 개요

### 암의 원인

지금까지 암의 원인으로 밝혀진 것으로 흡연이 15~30%를 차지하였으며, 음식섭취가 30%, 만성감염이 10~25%를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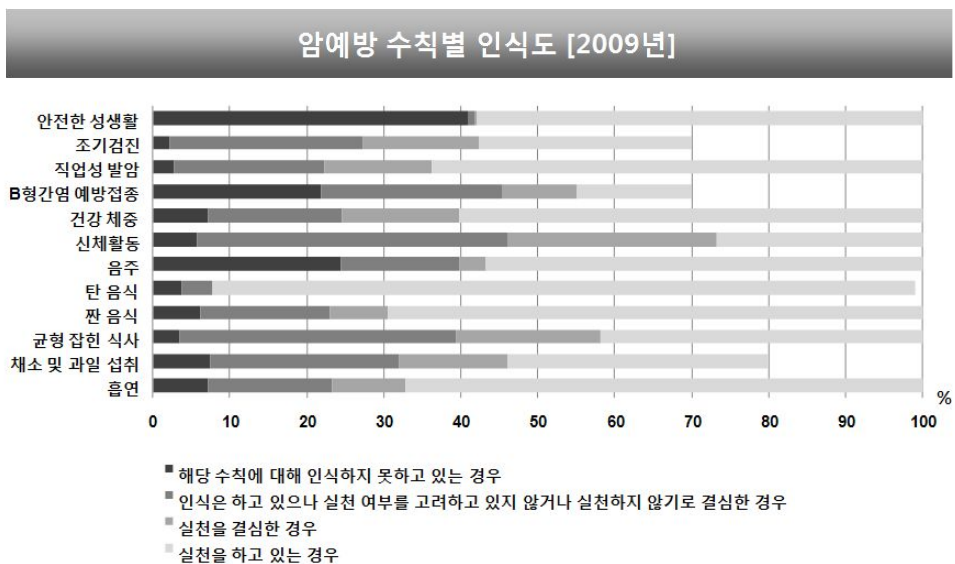
암의 원인		
원인	2000년대*	1980년대**
흡연	15 ~ 30%	30%
만성 감염	10 ~ 25%	10%
음식	30%	35%
직업	5%	4%
유전	5%	-
생식	5%	7%
음주	3%	3%
환경 오염	3%	2%
방사선	3%	3%

출처) \* World Cancer Report, IARC 2003

\*\* National Cancer Control Programme, WHO 2002

## 암예방 수칙별 인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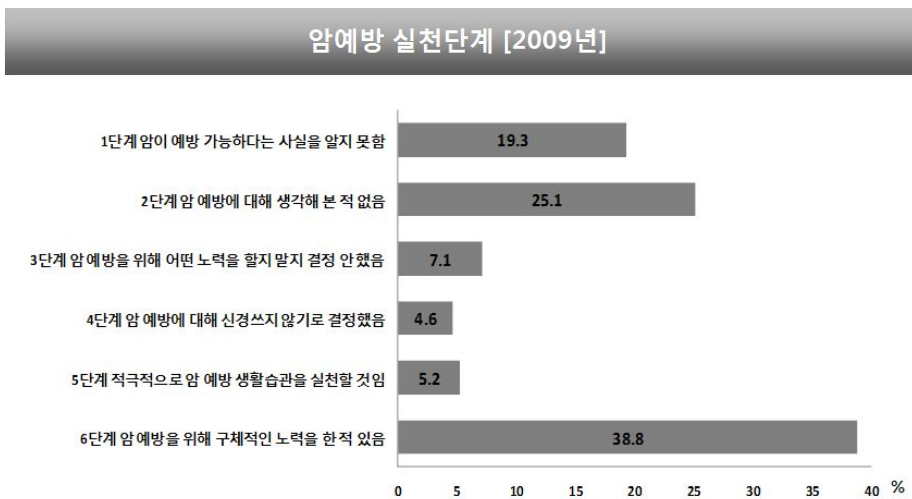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암예방 수칙별 인식도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암예방을 위해 탄음식, 짠음식, 흡연 자제의 실천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각각 91.3%, 69.6%, 67.3%로 조사됨.



출처) 암예방 인식 및 실천행태조사, 국립암센터 2009

## 암예방 실천단계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암예방 실천단계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암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38.8%이었으며, 암예방에 대해 생각해 본적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25.1%이었으며, 암이 예방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응답한 사람은 19.3%이었음.



출처) 암예방 인식 및 실천행태조사, 국립암센터 2009

## 암정복 10개년 계획의 현황과 목표

암정복 10개년 계획의 현황과 목표는 아래의 표와 같음. 2015년까지 흡연율은 남자 15.0%, 여자 2.0%를 목표로 하였으며, 음주율은 50.0%, 비만율은 25.0%까지 감소를 목표로 함.

암정복 10개년 계획의 현황과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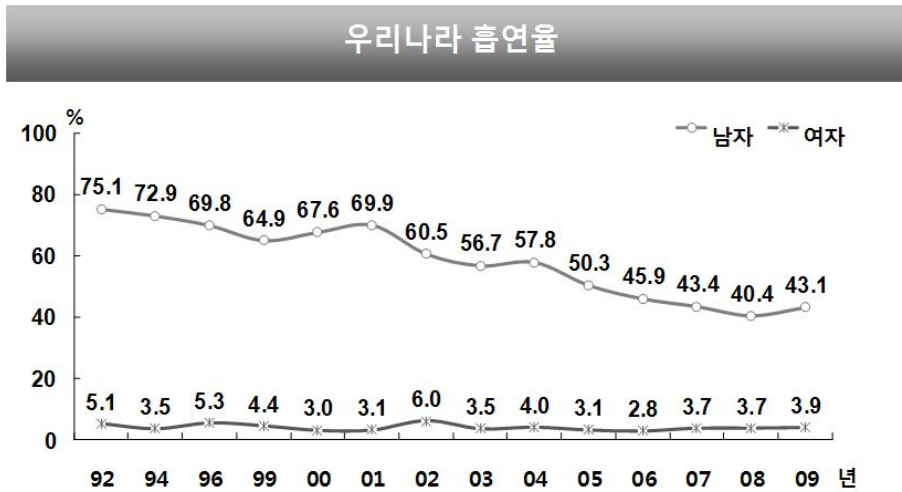
구분		2005년	2010년	2015년
흡연율 감소 (%) <sup>*</sup>	성인남자	57.8	30.0	15.0
	성인여자	4.0	4.0	2.0
과일, 채소 섭취량 (g) <sup>f</sup>		500	600	600
음주율 감소 (%) <sup>#</sup>	성인	69.8	60.0	50.0
중등도 운동실천율 (%) <sup>g</sup>	성인	7.3	12.0	15.0
비만율 감소 (%) <sup>h</sup>	BMI >25kg/m <sup>2</sup>	30.0	30.0	25.0
B형간염 표면항원 양성률 (%) <sup>†</sup>		4.2~4.7	1.0수준	1.0미만
인유두종바이러스 감염예방 <sup>‡</sup>		-	감염실태파악	예방법개발
직업성발암물질 노출근로자 파악률 (%) <sup>§</sup>		50	90	100

출처) 신암정복 10개년 계획수립, 보건복지부 국립암센터 2005

## 2.2 흡연

### 우리나라 흡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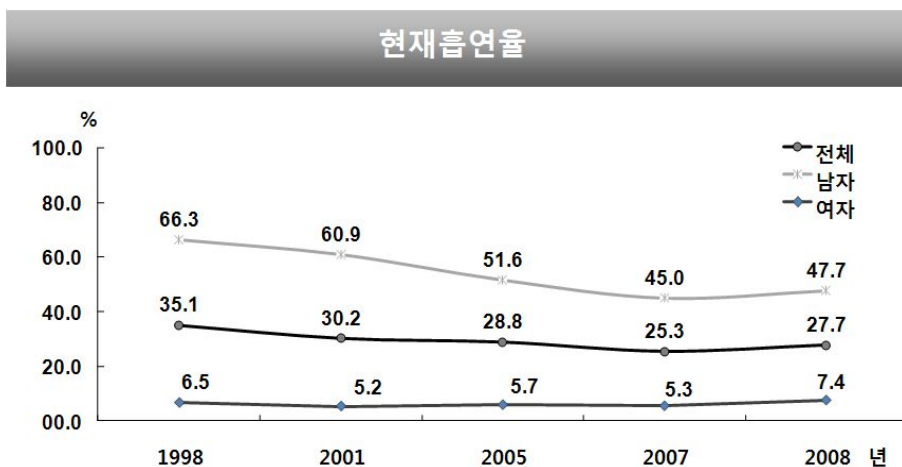
우리나라 흡연율 추이를 살펴보면, 1992년 남자 75.1%, 여자 5.1%이었던 것이 2009년 남자 43.1%, 여자 3.9%로 특히 남자에서 급격한 감소경향을 보였으나, 최근 감소세가 주춤함.



출처) 한국금연운동협의회 2009

## 현재흡연율<sup>5)</sup>

현재흡연율(만19세이상 표준화)은 남자의 경우 2008년 47.7%로, 1998년부터 꾸준히 감소 경향을 보였지만 2007년에 비해 2.7%포인트 증가함. 여자의 경우 2008년 현재흡연율은 7.4%로 2007년에 비해 2.1% 포인트 증가하였고 1998년부터 감소 혹은 유지되던 현재흡연율이 다소 증가한 경향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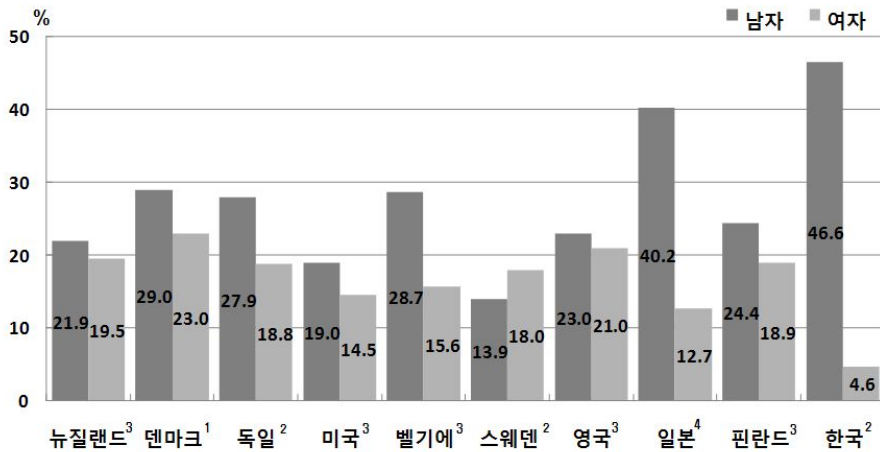
출처) 국민건강통계 (국민건강영양조사 제4기 2차년도(2008)) 2009  
 주)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

5) 현재흡연율: 평생 담배 5갑(100개비) 이상 피웠고, 현재 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비율, 만 19세 이상. '98년: 만 20세 이상 대상

## 성인 매일 흡연율의 OECD 국가간 비교

우리나라 매일 흡연자의 비율은 미국을 비롯한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상당히 높았으며, 남자 46.6%, 여자 4.6%이었음.

매일 흡연율의 OECD국가간 비교



출처) OECD Health Data, OECD 2009

주) 1. 2004년 2. 2005년 3. 2006년 4. 2007년

2. 연령기준: 15세 이상

## 사회경제적위치별 흡연실태

2008년 현재흡연자의 하루평균 흡연량<sup>6)</sup>을 살펴보면, 전체 15.9개비, 남자 16.6개비, 여자 10.8개비이며,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의 흡연량이 다른 연령에 비하여 높음.

남자의 흡연량을 결혼상태별로 살펴보면, 이혼이 19.5개비로 가장 높았으며, 미혼이 15.1개비로 가장 낮았음.

또한 교육수준이 낮을 때 흡연량이 높았고, 직업별로는 기능·장치기계 18.5개비, 농업·임어업 17.6개비, 서비스 및 판매 17.0개비, 관리·전문가 15.9개비, 사무종사자 15.2개비 순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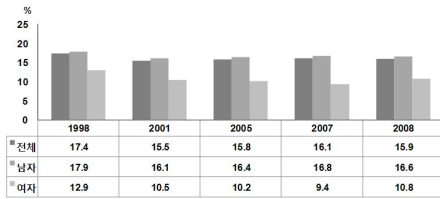
월가구균등화소득을 사분위수로 분류하였을 때, 남자의 현재 흡연율은 1사분위에서 17.7개비로 가장 높았고, 사분위수가 높아질수록 흡연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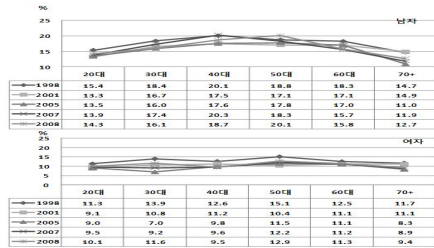
6) 현재흡연자의 하루평균 흡연량: 현재흡연자의 하루 평균 피우는 담배 개비 수. 만19세 이상. '98년: 만20세이상 대상

## 제2부 암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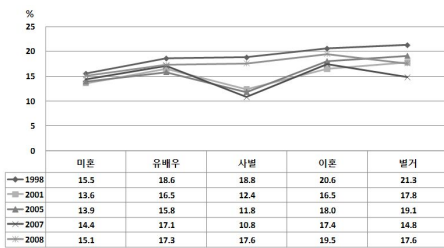
### 현재흡연자의 흡연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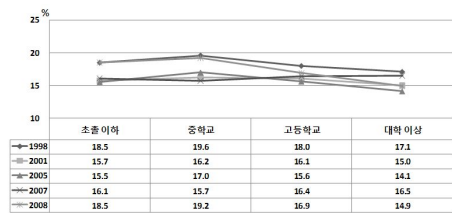
### 현재흡연자의 연령별 흡연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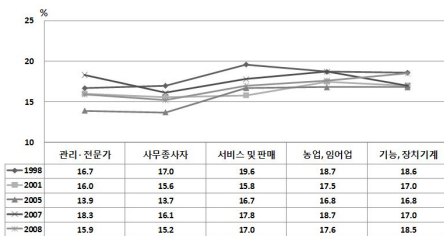
### 결혼상태별 흡연량 [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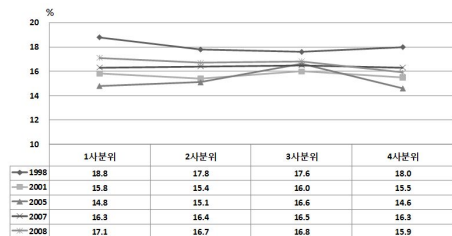
### 교육수준별 흡연량 [남자]



### 직업별 흡연량 [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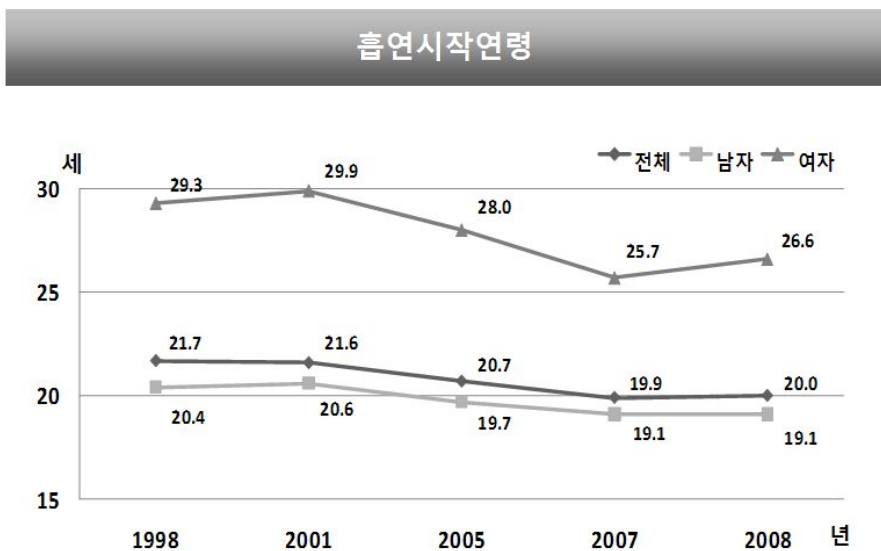
### 소득수준별 흡연량 [남자]



출처) 국민건강통계 (국민건강영양조사 제4기 2차년도(2008)) 2009  
주)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

## 흡연시작 연령<sup>7)</sup>

흡연시작연령(만19세이상, 표준화)은 남자는 19.1세로 10년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여자는 26.6세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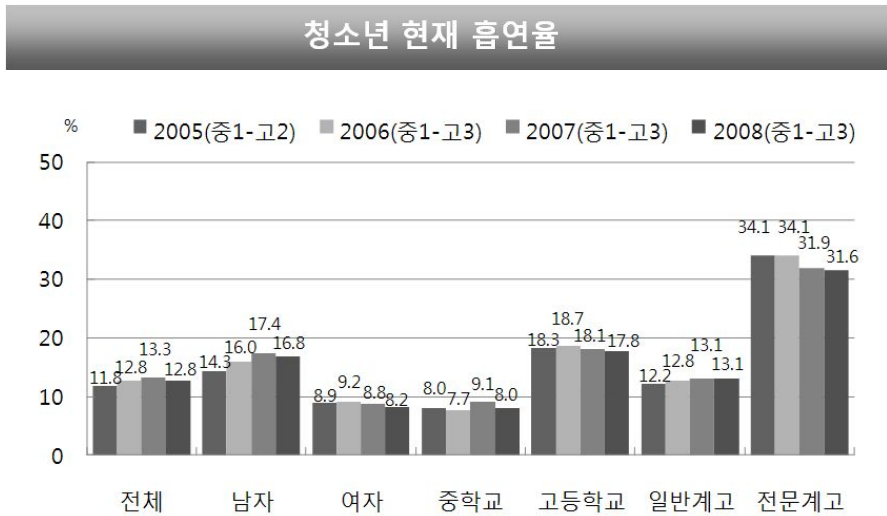


출처) 2008 국민건강통계 (국민건강영양조사 제4기 2차년도(2008)) 2009  
 주)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

7) 흡연시작연령: 처음으로 담배 한대를 다 피운 평균 만 나이. 만19세이상.  
 '98년: 만 20세이상

## 청소년 현재 흡연율<sup>8)</sup>

2008년 청소년의 현재 흡연율을 성별과 학교급에 따라 살펴보면, 남학생 16.8%, 여학생 8.2%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음. 학교급별 비교시 중학교에 비해 고등학교의 현재 흡연율이 높았으며 일반계고와 비교하여 전문계고의 현재 흡연율이 현저히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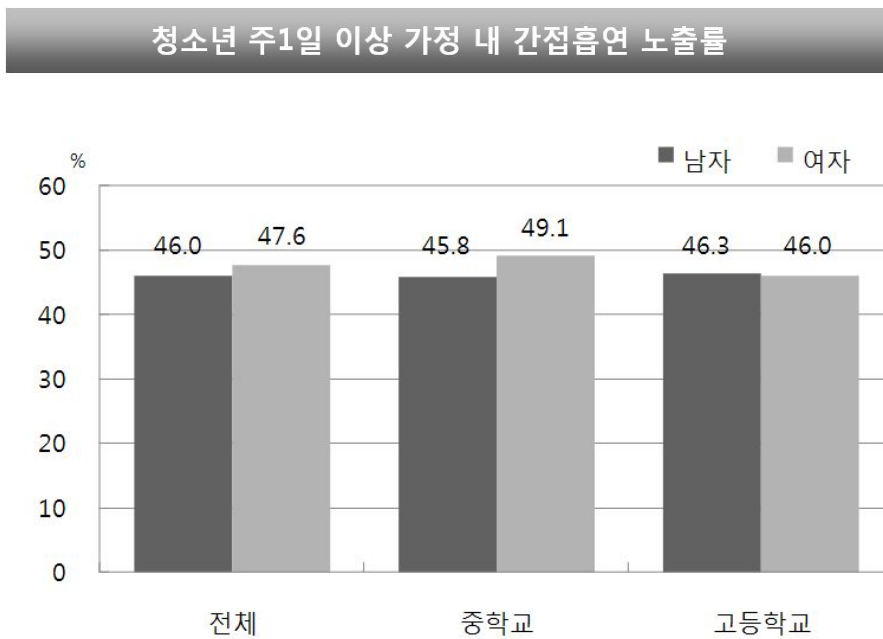


출처)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2005-2008

8) 현재 흡연율: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흡연한 사람의 비율

## 청소년 주1일 이상 가정 내 간접흡연 노출률<sup>9)</sup>

2008년 46.8%의 청소년이 가정 내 간접흡연을 경험하였으며, 이 중 중학생의 경우 남자가 45.8%, 여자가 49.1%로 여학생의 간접흡연 노출률이 더 높았음.



출처)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2008

9) 주1일 이상 가정 내 간접흡연 노출률: 최근 7일 동안, 학생의 집안에서 다른 사람(가족이나 손님 등)이 담배를 피울 때 그 근처에 같이 있는 적이 있는 사람의 분율

## 성인 현재흡연자의 금연시도율<sup>10)</sup>, 금연계획률<sup>11)</sup>

현재흡연자의 금연시도율(만19세이상, 표준화)은 60% 전후로, 남자는 20~40대에서 금연시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여자의 경우, 20대와 50대에서 높은 금연시도율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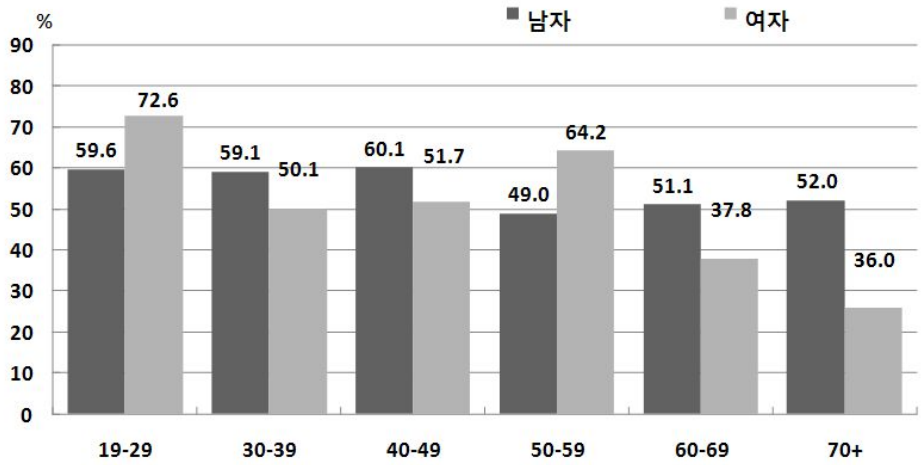
1개월내 금연계획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20% 전후로 나타났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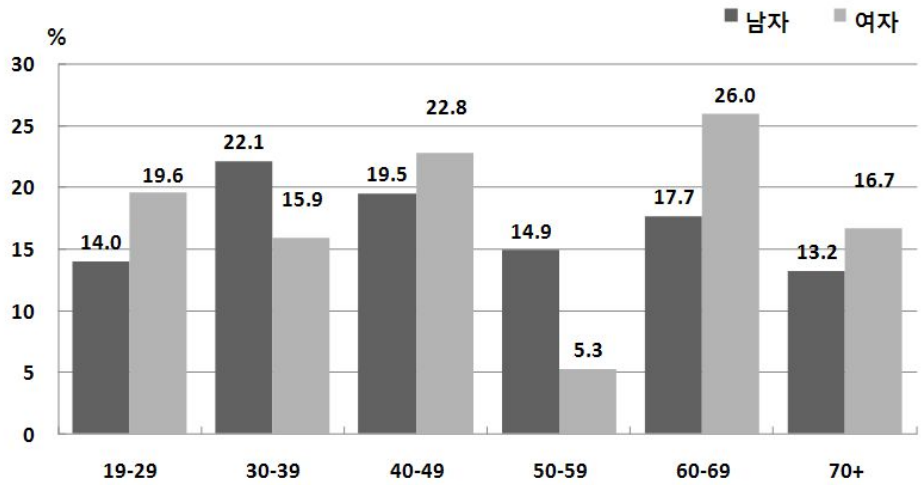
10) 현재흡연자의 금연시도율: 현재흡연자의 최근 1년 동안 담배를 끊고자 하루(24시간) 이상 금연한 사람의 분율. 만19세이상

11) 현재흡연자의1개월내금연계획률: 현재흡연자 중 금연할 계획이 있는 사람의 분율

현재흡연자의 금연시도율 [200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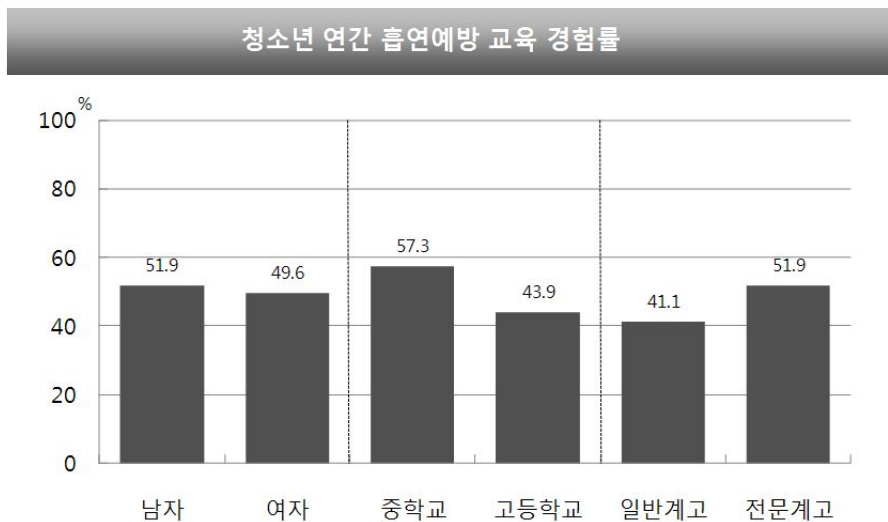
현재흡연자의 향후 1개월내 금연계획률 [2008년]



출처) 국민건강통계 (국민건강영양조사 제4기 2차년도(2008)) 2009

## 청소년 연간 흡연예방 교육 경험률<sup>12)</sup>

2008년 청소년의 흡연예방 교육 경험률은 남학생 51.9%, 여학생 49.6%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음. 학교급별 비교에서 중학교에 비해 고등학교의 흡연예방 교육 경험률이 낮았으며, 전문계고와 비교하여 일반계고의 교육 경험률이 낮았음.



출처)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2008

12) 연간 흡연예방 교육 경험률: 최근 12개월 동안 학교에서(수업시간 포함) 흡연 예방 및 금연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의 분율

## 우리나라 담배가격의 구조

우리나라 담배가격은 조세 및 부담금, 순수 유통마진, 제조원가(제조마진 포함)로 구성되어 있음. 조세 및 부담금에는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부가가치세가 있으며, 이 중 부가가치세만 종가세(advalorem tax)이고 나머지는 종량세(specific tax)임.

담배세를 통해 조성된 2006년도 건강증진기금 총액은 약 1조 5천억원으로 이 중 64%가 국민건강보험지원 금액으로 사용되었음<sup>13)</sup>.

우리나라 담배가격의 구조			
구분	가격(원)	관계 법령	
조세 및 부담금	담배소비세	641	
	지방교육세	321	지방세법제229조
	국민건강증진부담금	354	지방세법제260조 3
	폐기물부담금	7	국민건강증진법제23조 ①
	부가가치세 - 제조사 - 판매자	227 205 22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제10조 ①
	소계	1,550	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
순수 유통마진	243		
제조원가(제조마진포함)	707		
최종소매가격	2,500		

출처) 강은정. 담배가격의 효율성과 형평성 분석. 보건복지포럼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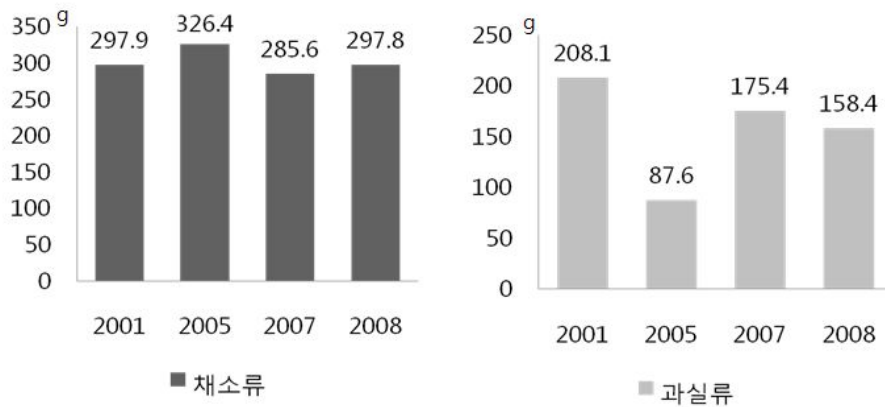
13) 보건복지부(2007). 2006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결산서

## 2.3 채소 및 과일 섭취

### 과실류 및 채소류 섭취량

2008년 1인 1일 채소 및 과실류의 평균 섭취량을 살펴보면, 채소류는 297.8g, 과실류는 158.4g으로 채소류의 섭취량이 더 높았음.

채소류 및 과실류 섭취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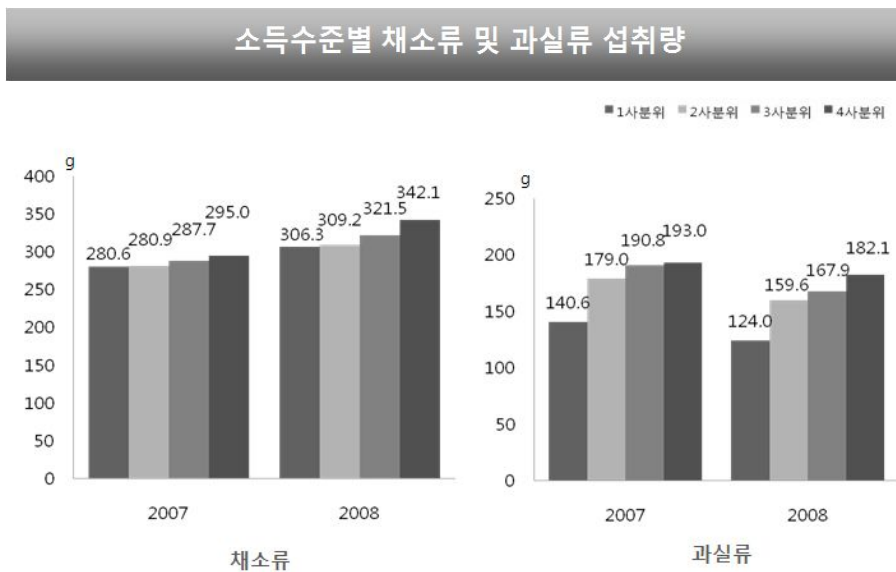


출처) 국민건강통계 (국민건강영양조사 제4기 2차년도(2008)) 2009

주) '01년 조사는 11~12월, '05년 조사는 4~5월, '07년 조사는 7월 ~ '08년 1월까지 실시되어 수행계절이 다르기 때문에 과실류의 섭취량(겨울의 경우 귤의 섭취 증가)이 차이가 날 수 있음

## 소득수준별 과실류 및 채소류 섭취량

소득수준별 과실류 및 채소류 섭취량을 살펴보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채소류 및 과실류의 섭취량이 증가함을 볼 수 있음.



출처) 국민건강통계 (국민건강영양조사 제4기 2차년도(2008)) 2009

## 청소년 1일 1회 이상 과일 섭취율<sup>1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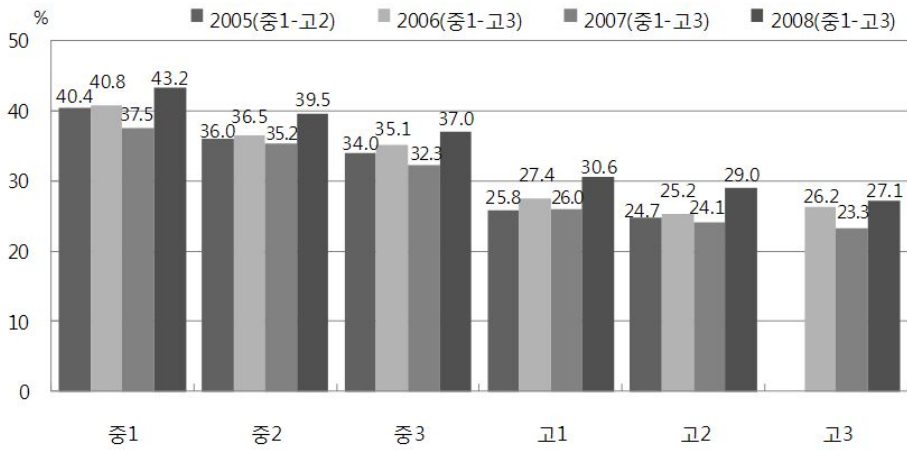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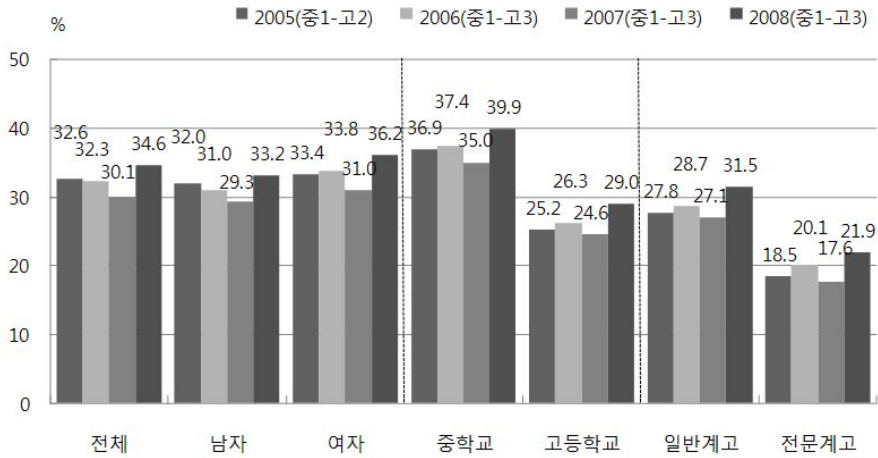
2008년 청소년의 과일 섭취율은 전체 34.6%였고 남학생 33.2%, 여학생 36.2%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음. 학교급별 차이에서는 중학교와 비교하여 고등학교의 과일 섭취율이 낮았고, 일반계고와 비교하여 전문계고의 섭취율이 낮았음.

2008년 청소년의 과일 섭취율은 2005년과 비교하여 높았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과일 섭취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14) 1일 1회 이상 과일 섭취율: 최근 7일 동안 1일 1회 이상 과일을 먹은 사람의 분율

### 청소년 1일 1회 이상 과일 섭취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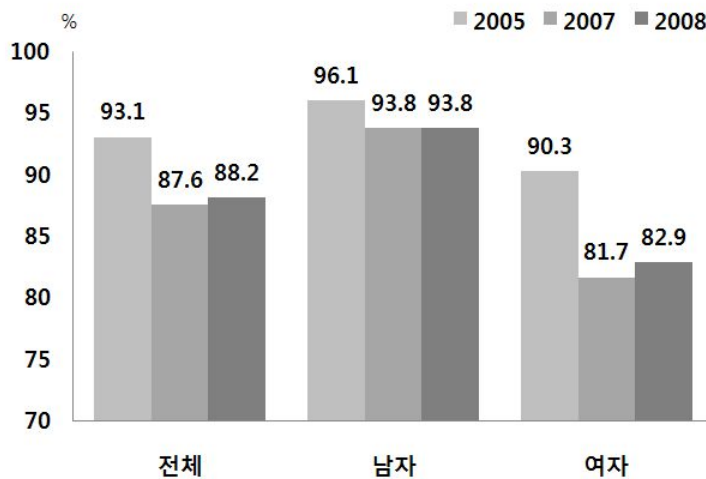
출처)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2005-2008

## 2.4 나트륨 섭취

### 나트륨 섭취량

2005~2008년 1일 나트륨 섭취 목표량인 2,000mg 이상 섭취자분율을 살펴보면, 전 연령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트륨을 과잉섭취하고 있으며 특히 남성이 높은 섭취량을 보임.

### 나트륨 섭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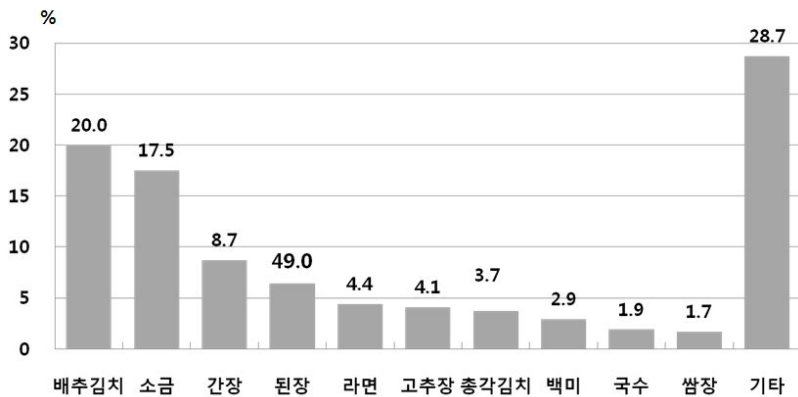


출처) 국민건강통계 (국민건강영양조사 제4기 2차년도(2008)) 2009  
주) 나트륨 섭취 목표량: 2,000mg (한국인영양섭취기준, 한국영양학회 2005년)

## 나트륨 섭취량의 주요 급원 식품

나트륨 섭취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식품은 배추김치로 전체 섭취량의 20.0%를 공급하는 수준이었으며, 소금, 간장, 된장이 그 다음 순위임. 4위까지의 식품으로 전체 나트륨 섭취량의 50% 이상을 섭취하고 있었으며, 주요 급원 10위 안에 소금, 간장, 된장, 고추장, 쌈장 등이 포함되는 등 조미료류로 섭취하는 양이 절대적으로 많았음.

나트륨 섭취량의 주요 급원식품 [200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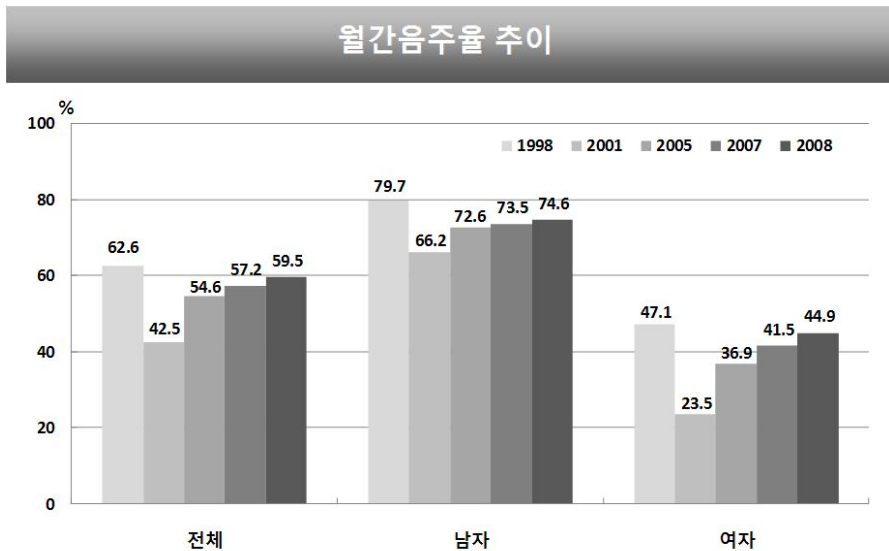


출처) 국민건강통계 (국민건강영양조사 제4기 2차년도(2008)) 2009

## 2.5 음주

### 월간음주율<sup>15)</sup> 추이

월간음주율(만19세이상, 표준화)은 남자의 경우 2008년 74.6%로 2007년 73.5%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여자는 2008년 44.9%로 2007년 41.5%에 비해 소폭 증가함.



출처) 국민건강통계 (국민건강영양조사 제4기 2차년도(2008))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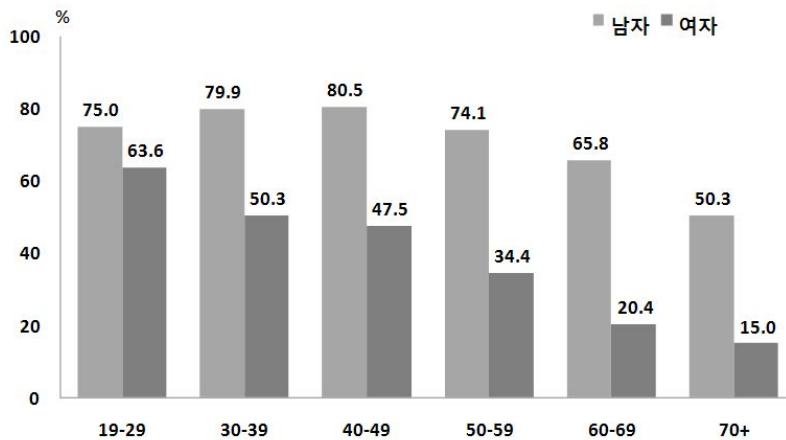
주)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 함

15) 월간음주율: 최근 1년 동안 한달에 1회 이상 음주한 사람의 분율. 만19세이상 ('01년: 최근 1년 동안 한달에 2회 이상 음주한 분율, 만19세이상)

## 연령별 월간음주율 비교

월간음주율(만19세이상, 표준화)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남자는 30대와 40대, 여자는 20대에서 높았으며, 이후 연령이 높을수록 감소함.

### 연령별 월간음주율 [200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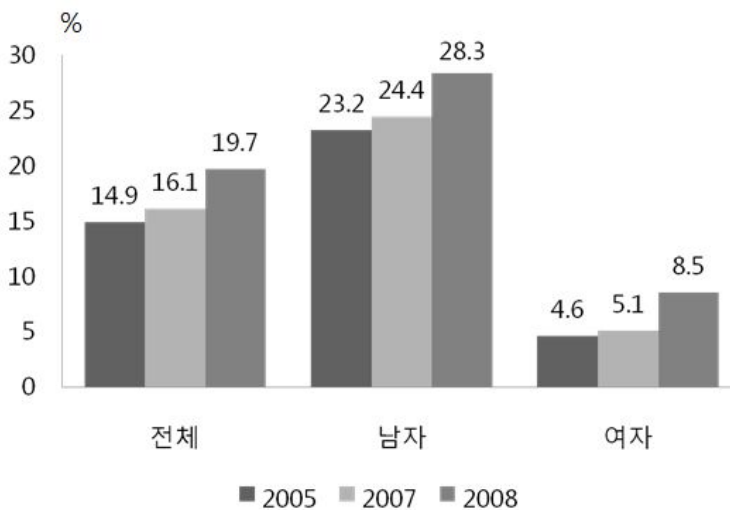


출처) 국민건강통계 (국민건강영양조사 제4기 2차년도(2008)) 2009

## 연간음주자의 고위험음주율<sup>16)</sup> 추이

2005~2008년 연간음주자의 고위험음주율 추이(만 19세이상, 표준화)를 살펴보면, 2005년 14.9%에서 2007년 16.1%, 2008년 19.7%로 남녀 모두 증가하는 추세임.

### 성인 연간음주자의 고위험음주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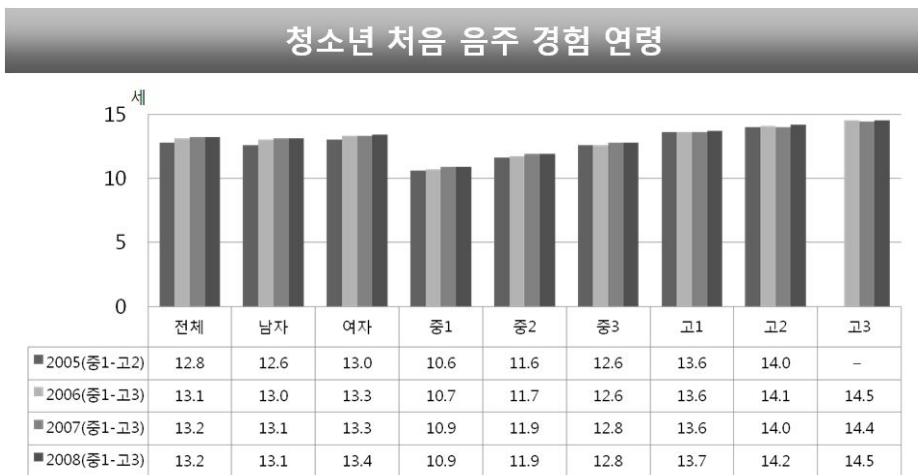


출처) 국민건강통계 (국민건강영양조사 제4기 2차년도(2008)) 2009

16) 고위험음주율: 연간음주자 중 1회 평균 음주량이 7잔 이상(여자 5잔)이며 주 2회 이상 음주하는 분율, 만19세이상

## 청소년 처음 음주 경험 연령<sup>17)</sup>

2005년 우리나라 청소년의 음주시작 연령은 12.8세였으나, 2008년 13.2세로 다소 높아지는 추세를 보임.



출처)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2005-2008

17) 처음 음주 경험 연령: 처음으로 술을 1잔 이상 마신 연령의 평균

## 청소년 현재 음주율<sup>1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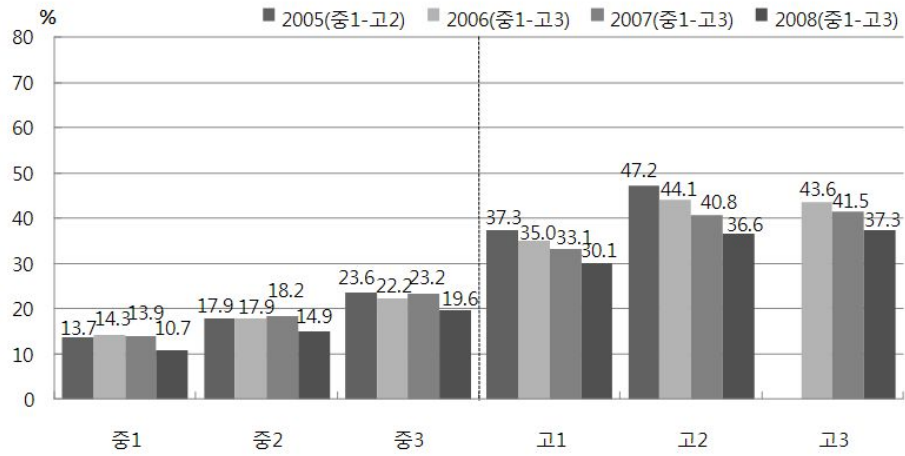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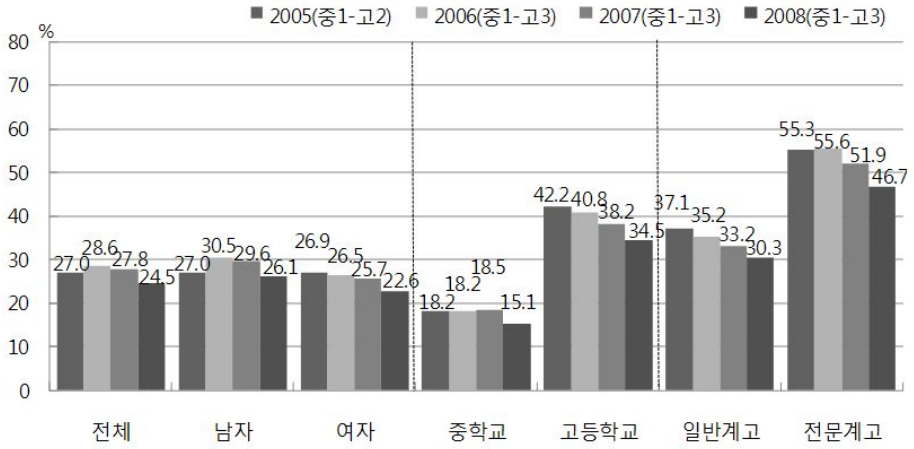
2008년 우리나라 청소년의 현재 음주율은 전체 24.5%였으며 남학생 26.1%, 여학생 22.6%로 남학생의 음주율이 다소 높았음. 학년별 차이에서는 중학교 15.1%와 비교하여 고등학교의 음주율 34.5%이 현저하게 높았으며, 일반계고의 음주율 30.3%와 비교하여 전문계고의 음주율 46.7%이 높았음.

학년별 현재 음주율은 중학교 1학년 10.7%에서 고등학교 3학년 37.3%로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음주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18) 현재 음주율: 최근 30일 동안 술을 1잔 이상 마신 적이 있는 사람의 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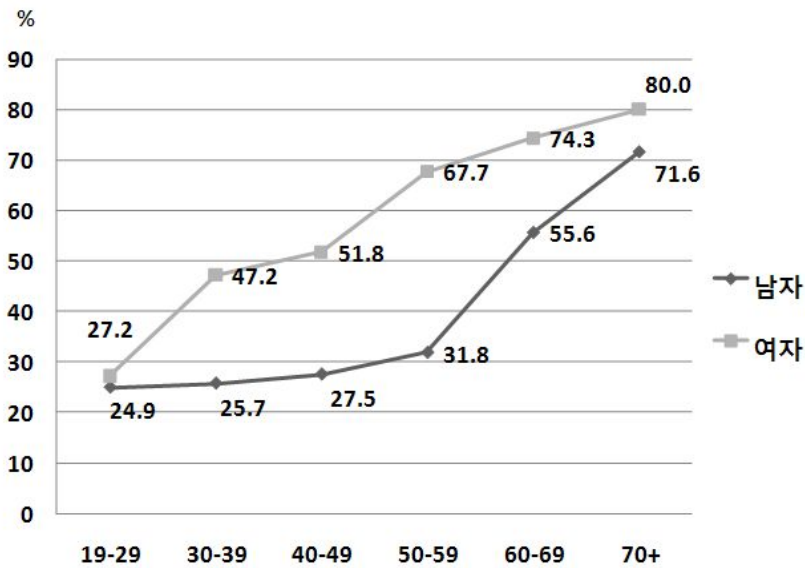
## 청소년 현재 음주율



## 연령별 음주자의 절주실천비율

연령별 음주자의 절주실천비율(만19세이상, 표준화)을 살펴보면, 남자보다 여자의 실천율이 높았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절주실천비율이 높았음.

연령별 음주자의 절주실천비율 [200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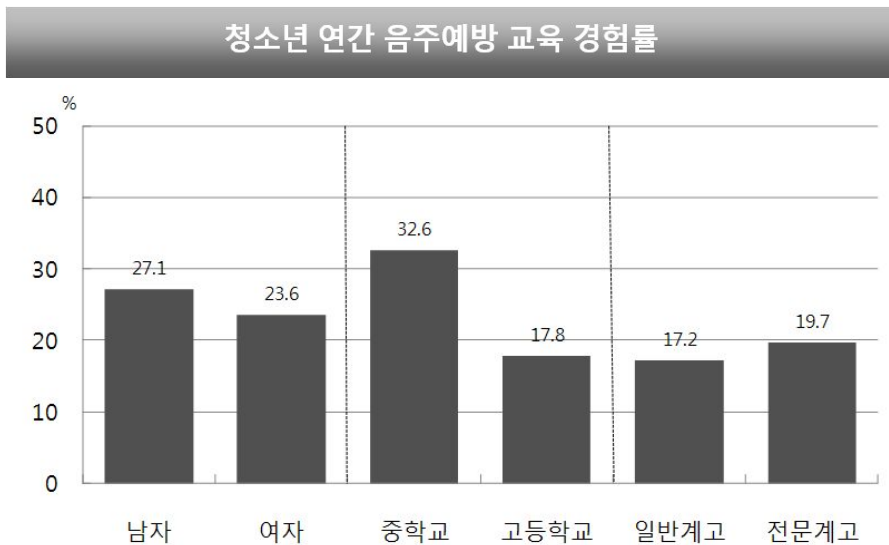


출처) 국민건강통계 (국민건강영양조사 제4기 2차년도(2008)) 2009

주) 절주기준(WHO 기준) : 남자 : 4잔 이내/일회 여자 : 2잔 이내/일회

## 청소년 연간 음주예방 교육 경험률<sup>19)</sup>

2008년 청소년의 연간 음주예방 교육 경험률은 남학생 27.1%, 여학생 23.6%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음. 학교급별 비교에서는 중학교에 비해 고등학교의 교육 경험률이 낮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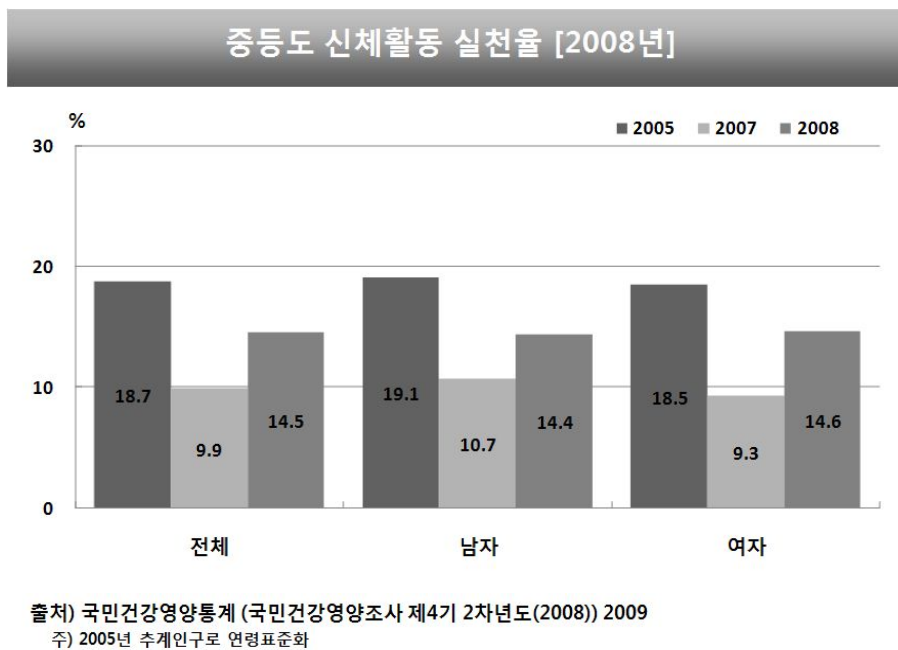
출처)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2008

19) 연간 음주예방 교육 경험률: 최근 12개월 동안 학교에서(수업시간 포함) 음주 예방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의 분율

## 2.6 신체활동

###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율<sup>20)</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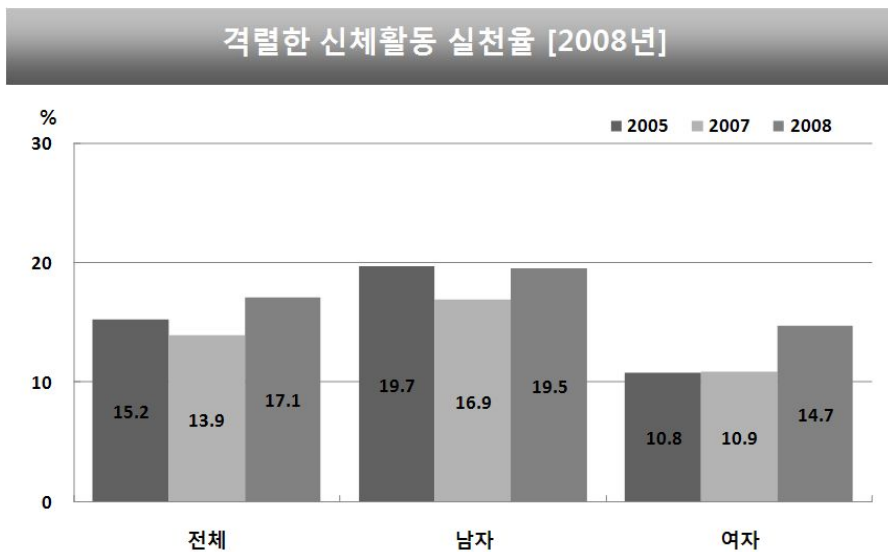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율(만19세이상, 표준화)은 2008년 14.5%로 2007년 9.9%보다 높고, 2005년 18.7%보다 낮은 수준임.



20) 중등도신체활동실천율: 최근 1주일 동안 평소보다 몸이 조금 힘들거나 숨이 약간 가쁜 중등도 신체활동을 1회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실천한 분율, 만19세이상

## 격렬한 신체활동 실천율<sup>21)</sup>

격렬한 신체활동 실천율(만19세 이상, 표준화)은 2008년 17.1%로 2007년에 비해 남자는 2.6% 포인트, 여자는 3.8% 포인트 증가함.



출처) 국민건강영양통계 (국민건강영양조사 제4기 2차년도(2008)) 2009  
 주)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

21) 격렬한신체활동실천율: 최근 1주일 동안 평소보다 몸이 매우 힘들거나 숨이 많이 가쁜 격렬한 신체활동을 1회 20분 이상, 주 3일 이상 실천한 분율, 만19세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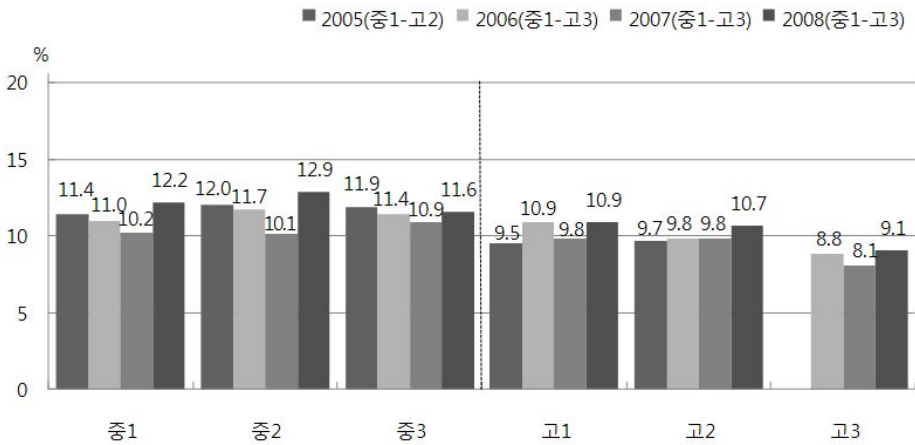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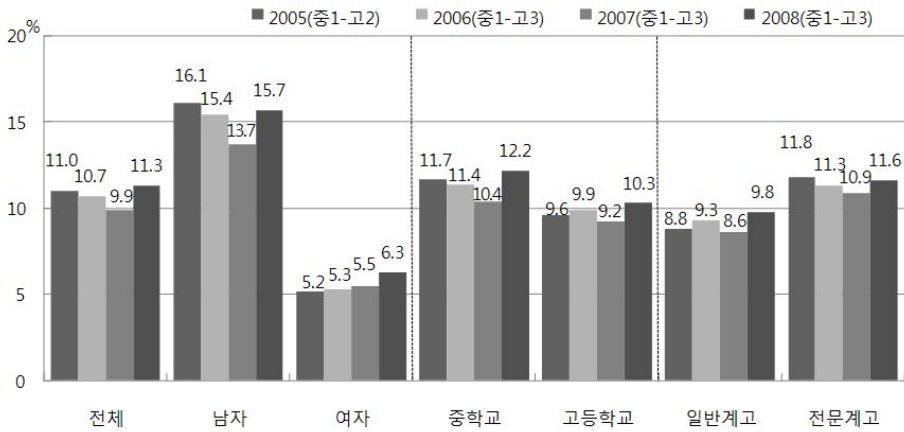
## 청소년 주5일 이상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율<sup>22)</sup>

2008년 청소년의 주5일 이상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율은 전체 11.3%였고, 남학생 15.7%, 여학생 6.3%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음. 학교급별 차이를 살펴보면, 일반계고의 실천율이 9.8%로 가장 낮았고, 고등학교 3학년의 실천율이 9.1%로 가장 낮았음.

---

22) 주5일 이상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율: 최근 7일 동안 중등도 신체활동(탁구, 가벼운 물건 나르기, 천천히 하는 수영, 시합으로 하지 않는 배구, 배드민턴 등)을 30분 이상 한 날이 5일 이상인 사람의 비율

### 청소년 주5일 이상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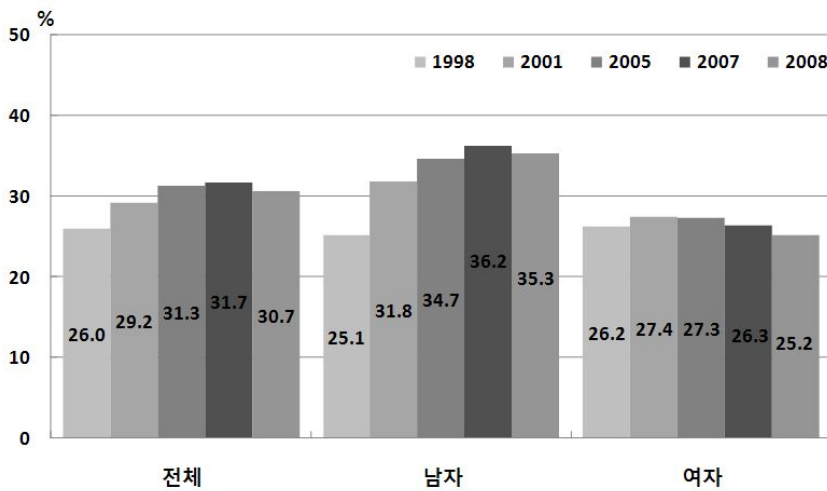
출처)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2005-2008

## 2.7 비만

### 비만 유병률 추이<sup>23)</sup>

비만 유병률(만19세 이상, 표준화)은 1998년 26.0%에서 2007년 31.7%로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2008년에는 30.7%로 2005년, 2007년과 유사함.

비만유병률 추이 [체질량지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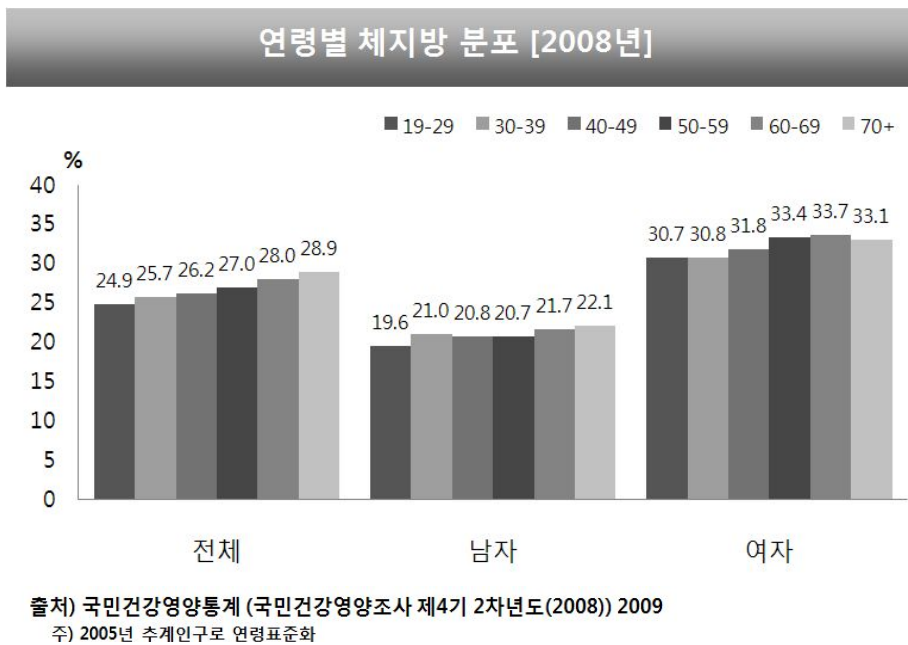


출처) 국민건강영양통계 (국민건강영양조사 제4기 2차년도(2008)) 2009  
 주)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

23) 비만유병률: 체질량지수  $25\text{kg/m}^2$  이상인 분율, 만19세이상

## 연령별 체지방<sup>24)</sup> 분포

체지방 평균(만19세이상)은 남자 20.7%, 여자 32.0%로 11%포인트 차이가 있었고, 연령이 높을수록 증가하여 남자는 70대, 여자는 60대에서 가장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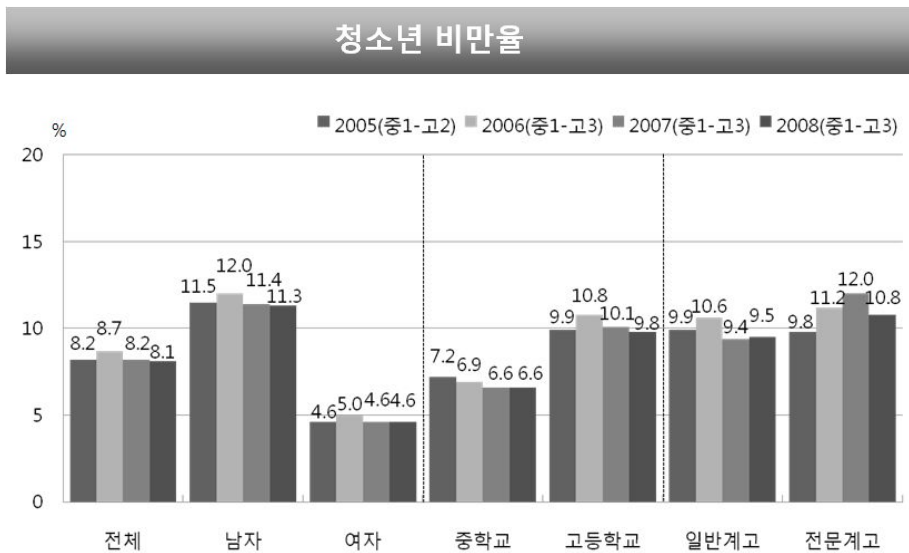


24) 체지방률: 체중에 대한 체지방량(머리, 왼팔, 오른팔, 몸통, 왼다리, 오른다리 체지방량의 평균)의 비율. 만19세이상

## 청소년 비만율<sup>25)</sup>

청소년의 비만율은 2008년 8.1%이며, 남학생의 비만율은 11.3%, 여학생은 4.6%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음.

학교급별 비만율의 차이를 살펴보면, 전문계고의 비만율이 10.8%로 가장 높았음.



출처)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2005-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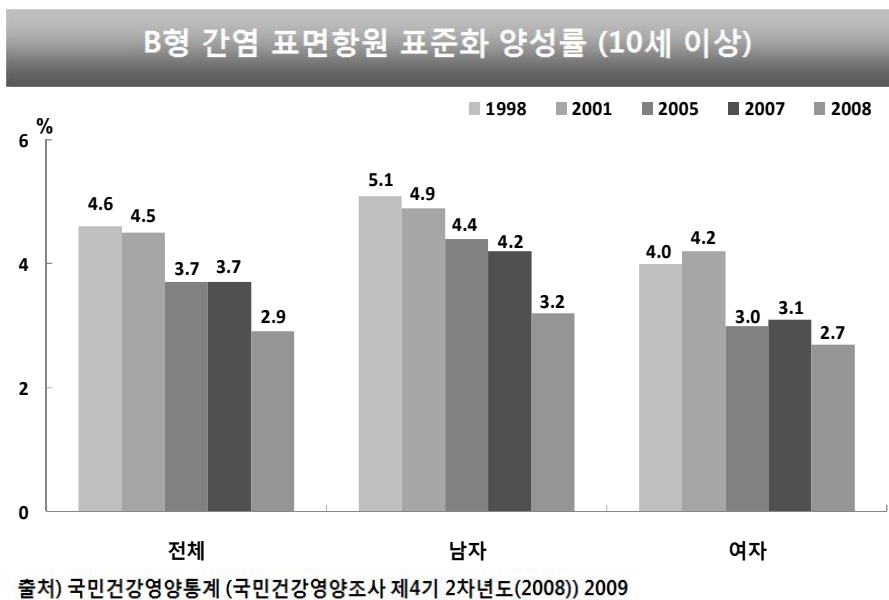
25) 비만율: 체질량지수 95백분위수 이상 또는 체질량지수 25 이상인 사람의 분율

※ 체질량지수(BMI)=체중(kg)/[신장(m)]<sup>2</sup>

## 2.8 B형 간염

### B형 간염 표면항원 양성률<sup>26)</sup> 추이

B형간염표면항원 양성률(만10세이상, 표준화)은 1998년 4.6%에서 2008년 2.9%로 소폭씩 감소하는 경향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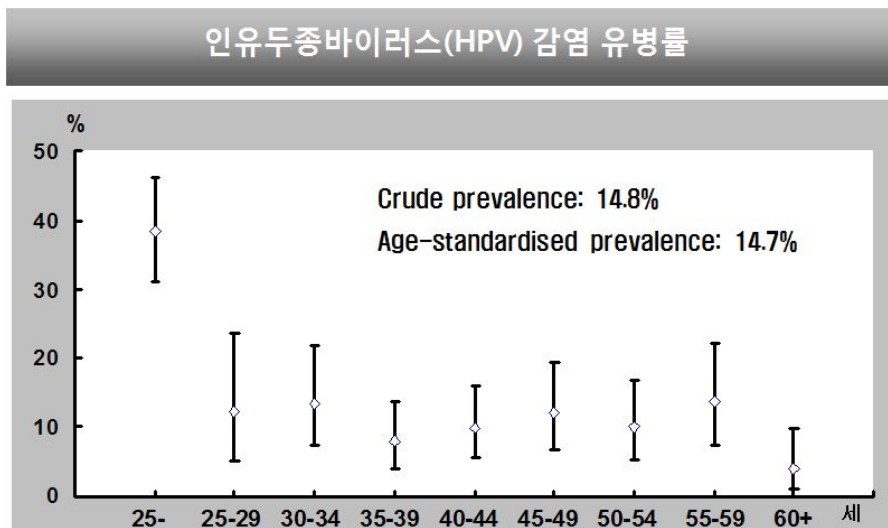
26) B형간염 표면항원 양성률: B형간염 표면항원 양성인 분율. 만10세이상

## 2.9 안전한 성생활

### 인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 유병률

인유두종바이러스(HPV, Human Papilloma Virus)는 자궁경부암의 필수 원인으로 그 밖의 외음부암, 질암, 음경암, 항문암, 기타 인후두암의 발생과 관련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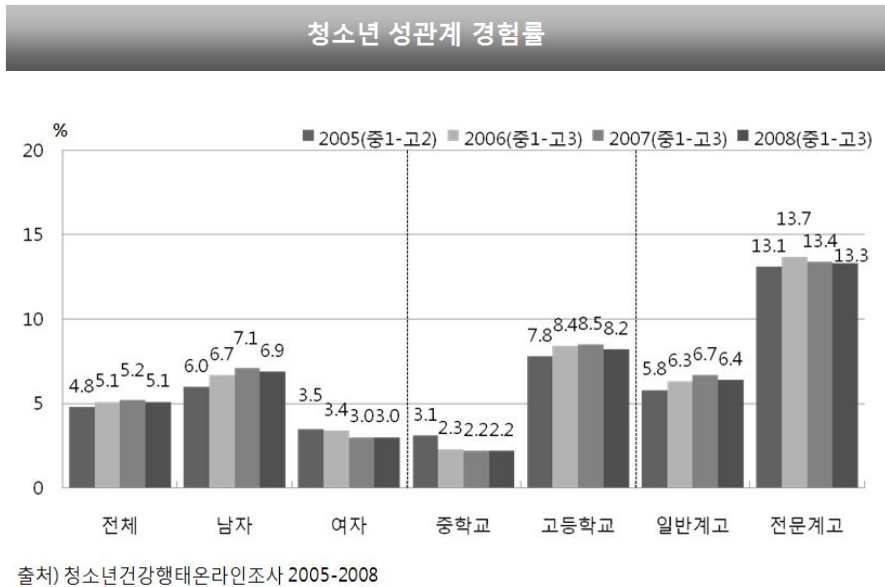
인유두종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은 매우 흔한 바이러스성 감염으로, 연령 표준화 유병률은 14.7%임. 또한, 25세 미만에서 인유두종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유병률이 가장 높았음.



출처) Shin et al. Int J Cancer 2003, Shin et al. JID 2004

## 청소년 성관계 경험률<sup>27)</sup>

2008년 청소년의 성관계 경험률은 5.1%로 2005년도 4.8%와 비교하여 다소 높아짐. 남학생 6.9%, 여학생 3.0%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음. 학교급별 차이를 살펴보면, 전문계고의 경험률이 13.3%로 가장 높았음.



27) 성관계 경험률: 평생동안 성관계(이성 또는 동성)를 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

## 2.10 직업성 암

### 주요 직업성 발암물질

근로자의 직업 환경으로 인해 노출 시 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 17종의 종류와 이와 관련된 암종 및 노출 산업의 종류를 다음의 표에서 제시하고 있음.

## 주요 직업성 발암물질

발암물질	노출	암종
아크릴로 니트릴 (Acrylonitrile)	플라스틱 산업, 아크릴 및 합성섬유제조, 합성고무 생산	폐, 대장
비소 (Arsenic)	금속광석제련 및 정련, 목재, 모피, 가죽의 보존, 제약산업	폐, 임파계, 간장, 그 외에 구강, 식도, 후두, 방광 등
석면 (Asbestos)	석면 채광, 제분, 금형, 시멘트, 방화직물 생산(담요, 커튼, 옷 등), 브레이크 라이닝, 인공눈(눈), 절연제, 단열제, 페인 트와 타일제조	폐, 흉막(중피종), 후두, 위, 대장, 복강중피종, 직장
비스클로로 메틸 에테르 (BCME, bischloromethyl ether)	음이온 교환수지 생산, formaldehyde와 hydrochloric acid 와 반응하여 자연적으로 생성	폐
벤젠 (Benzene)	용제로 사용, styrene 생산시 화학적 중간산물, 기술린, 페 인트, 접착제 등에 존재	백혈병
벤지딘 (Benzidine)	염료, 직물, 제지, 화학공업, 석유, 고무, 플라스틱 산업, 가 죽제조, 머리염색	방광
카드뮴 (Cadmium)	전기도금산업, 합금, 축전지, 색소, 카드뮴 제련	폐, 전립선
염화 탄화수소 (Chlorinated hydrocarbons)	염화비닐, 사염화탄소, 염화비닐리덴, 삼염화에틸렌, 퍼클 로로에틸렌 등이 이에 속함: 용제, 탈지제, 세탁제, 화학약 품, 마취제, 화학적 중간산물로 폭넓게 노출되고 있음.	동물의 발암물질(간, 뇌, 폐 등)
크롬 (Chromium)	크롬의 채광 및 제련, 스테인레스 강 제조, 페인트, 사진제 판 및 석판인쇄산업, 플라스틱, 유리, 도자기, 전기도금, 페 인트 및 일크의 착색 촉매제	폐, 코, 부비강, 기타 추정부위(위, 후두)
취발성 톨타르피치(coal tar pitch volatiles; CTPV)	타르와 피치의 생산과 사용, 지붕, 용광로, 도로유지	폐, 후두, 피부, 음낭, 입술, 방광
코크스 오븐 배기물 (coke oven emission)	코크스 오븐, 용광로	폐, 방광, 혈관육종, 뇌, 신장
전리방사선 (Ionizing radiation)	우라늄 광산, 원자력 설치, X-선	폐, 임파종, 백혈병, 골 육종
산화철 (Iron oxide)	적철광채광, 철 및 강철생산, 도료의 색소	폐, 간, 망상내피조직
니켈 (Nickel)	니켈의 제련 및 정련, 아크릴 플라스틱 제조, 전기도금, 도 료제조, 직물 및 염료 작업, 가죽제조	폐, 코, 부비동
니트로아민 (Nitroamines)	화학산업, 직물, Hydrazine 로켓 연료 생산	폐, 뇌, 위, 간, 신장, 방광
스타이렌 부타디엔 고무 (styrene-butadiene rubber)	고무산업	백혈병, 임파종
염화비닐 (vinyl chloride)	플라스틱 및 석유화학산업	간의 맥관육종, 뇌, 폐

출처) 1. 노동부 2002, 2. Schottenfeld D et al. Oxford, New York 2006  
3. Boffeta P. Oncogene 2004, 4. IARC 1972-2007, 5. ACGIH 2007

## 직업성 암현황

산재보상보험법에 의해 요양 승인된 직업성 암의 현황으로 1993년 중피종 1건이 승인된 것을 시작으로, 2005~2007년 동안에는 35건(혈액암 10건, 호흡기암 19건, 중피종 3건, 기타 암질환 3건)이 승인됨. 또한 1993~2007년까지 총 122건이 직업성 암으로 승인됨.

직업성 암현황 [1993~2007년]

년도	혈액암	호흡기암	중피종	기타암질환	합계
2007	2	3			5
2006	2	9	3		14
2005	6	7		3	16
2004	2	6			8
2003	2	13	1		16
2002	6	7			13
2001	3	8	2		13
2000	5	7		1	13
1999	2	7	2		11
1998	2	4	1	1	8
1997	1		2		3
1996	1				1
1993			1		1
계	34	71	12	5	122

출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08

## **제 3부 . 암 조기 검진**

### 3.1 전체 수검률

#### － 2004~2009년 암검진 수검행태 조사 －

##### □ 개요

- (1) 조사대상: 전국의 30세 이상 여성, 40세 이상 남성
- (2) 조사방법
  - － 2004년: 전화 설문조사
  - － 2005~2009년: 일대일 면접조사
- (3) 응답자 (률)
  - － 2004년: 3,592명 (남자 1,524명, 여자 2,068명, 11.6%)
  - － 2005년: 2,028명 (남자 832명, 여자 1,196명, 40.0%)
  - － 2006년: 2,030명 (남자 816명, 여자 1,214명, 43.4%)
  - － 2007년: 2,021명 (남자 797명, 여자 1,224명, 47.3%)
  - － 2008년: 2,038명 (남자 828명, 여자 1,210명, 47.6%)
  - － 2009년: 2,590명(유효표본 2,000명) (남자 819명, 여자 1,181명, 37.2%)

(4) 표본추출 기초자료

- 2004년: 통계청 2000년 인구주택 총 조사 자료
- 2005~2009년: 통계청 2004~2008년 주민등록 인구통계

(5) 표본추출 방법

- 성별, 연령별, 시도별 인구수에 비례하여 표본수를 결정하고 다단계 층화 무작위 추출방법으로 동단위조사지점을 선택함.
- 표본지점수는 시·읍·면지역에 따라 달리 무작위 가구선정.
- 해당 연령대의 가구원이 1명 이상일 경우 조사시점에서 가장 생일이 가까운 가구원을 응답자로 선정하여 훈련된 전문요원에 의한 일대일 개별 면접조사를 실시함.

## 암검진 수검률

2009년 국가암관리사업의 5개 암종 평생 수검률<sup>28)</sup>의 평균은 66.9%이고 암종별 권고안 이행 수검률<sup>29)</sup>은 53.3%로, 해마다 모든 암종에서 암검진 수검률<sup>30)</sup>이 증가함 (2004년 대비 1.37배).

또한, 2009년도 암종별 검진권고안 이행 수검률을 살펴보면, 자궁경부암이 63.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위암 56.9%, 유방암 55.2%, 대장암 36.7%, 간암 고위험군 31.3% 순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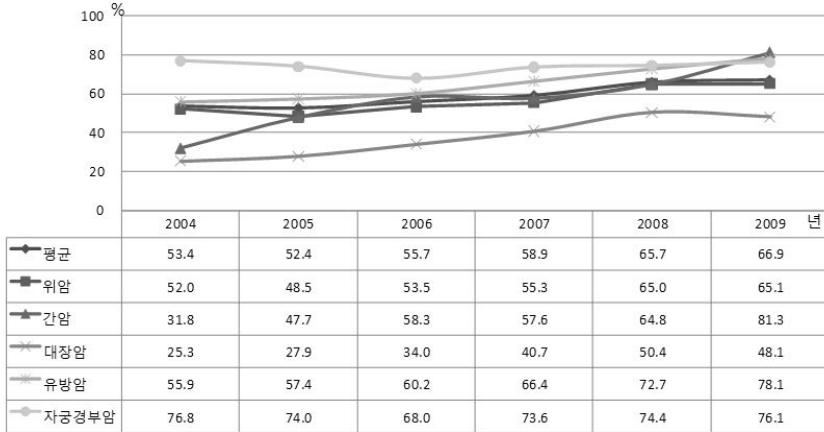
---

28) 평생 수검률: 평생 해당암종에 대해 1회 이상 암검진을 받은 사람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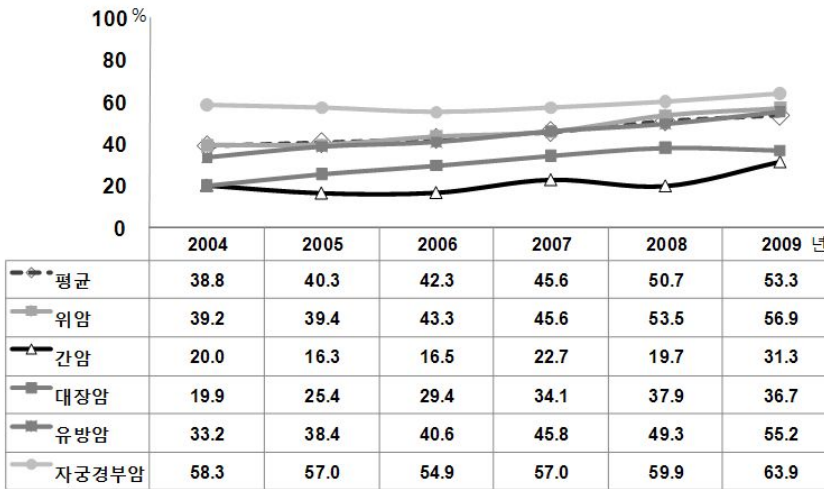
29) 검진 권고안 이행 수검률: 2001년 국립암센터와 관련학회 (대한위암학회, 대한간학회, 대한대장항문학회, 한국유방암학회)가 함께 만든 5대암 검진권고안 또는 5대암 검진프로그램 따라 암검진을 받은 사람의 비율

30) 수검률 = (검진자수 / 대상자수) × 100

### 평생수검률 [2004~2009년]



### 권고안 이행 수검률 [2004~20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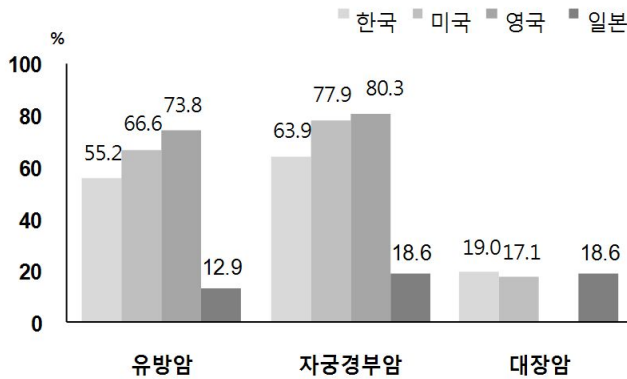


출처) 암검진 수검행태조사, 국립암센터 2004~2009

## 암검진 수검률의 국제비교

암검진 수검률을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보면, 유방암 수검률은 선진국(미국 66.6%, 영국 73.8%)에 비해 낮은 수준임. 자궁경부암 검진 수검률 또한 선진국의 높은 수검률(미국 77.9%, 영국 80.3%)에 비하면 낮은 수준임. 대장암 검진을 위한 분변잠혈반응검사의 수검률은 미국에서 17.1%, 일본에서 18.6%를 보여 우리나라의 수검률 19.0%와 비슷한 수준임.

암검진 수검률 국제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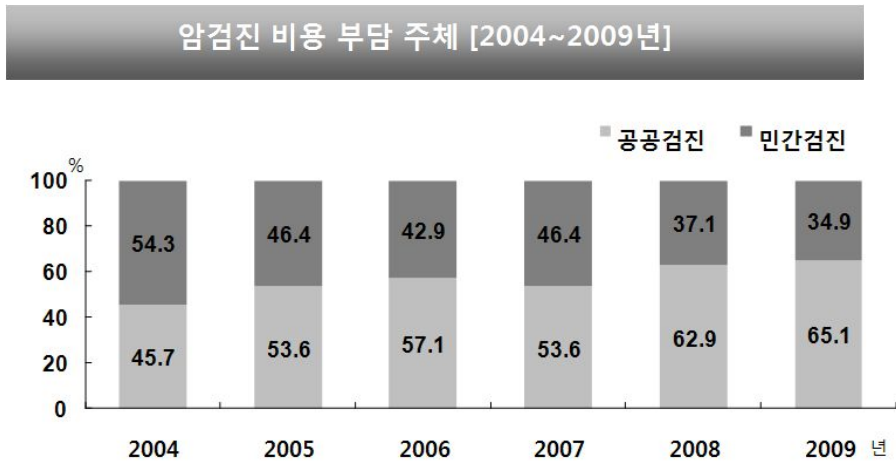
		한국	미국	영국	일본
유방암	수검률	55.2%	66.6%	73.8%	12.9%
	대상연령	40세 이상	40세 이상	50-70세	40세 이상
	주기	2년	2년	3년	2년
	검진방법	유방촬영술	유방촬영술	유방촬영술	유방촬영술 + CBE
자궁경부암	수검률	63.9%	77.9%	80.3%	18.6%
	대상연령	30세 이상	18세 이상	50-64세	20세 이상
	주기	2년	3년	5년	2년
	검진방법	팍스미어	팍스미어	팍스미어	팍스미어
대장암	수검률	19.0%	17.1%	-	18.6%
	대상연령	50세 이상	50세 이상	60-69세	40세 이상
	주기	1년	2년	2년	1년
	검진방법	분변잠혈반응검사	분변잠혈반응검사	분변잠혈반응검사	분변잠혈반응검사

출처) NHS 2008, NCI 2007, Health Statistics in Japan 2007, 국립암센터 2009

## 암검진 비용 부담 주체

2004~2009년까지 암검진 비용 부담 주체를 살펴보면, 공공검진 즉, '국가암조기검진'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암검진을 받은 비율은 증가하고 민간부담은 감소하는 추세임.

공공부담은 2004년 45.7%이었지만 2005년부터는 모두 50% 이상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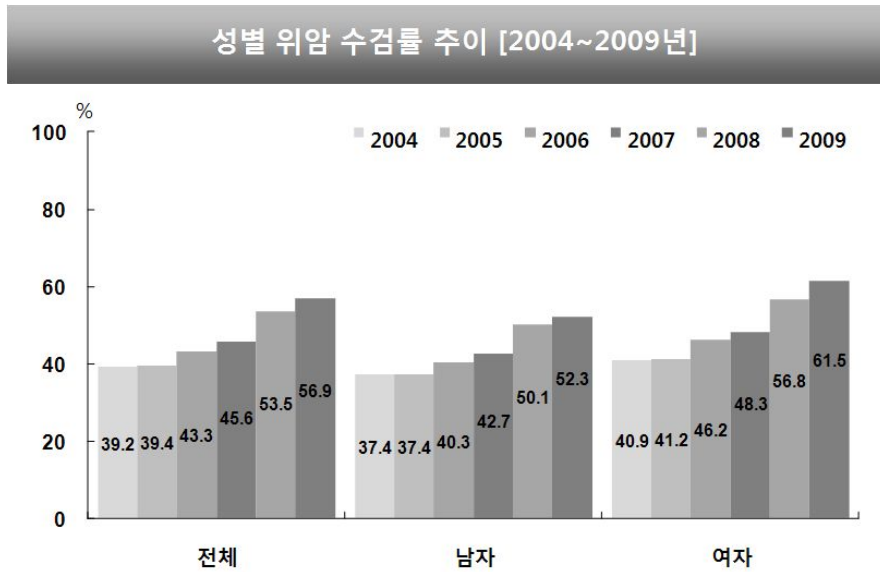


출처) 암검진 수검행태조사, 국립암센터 2004 ~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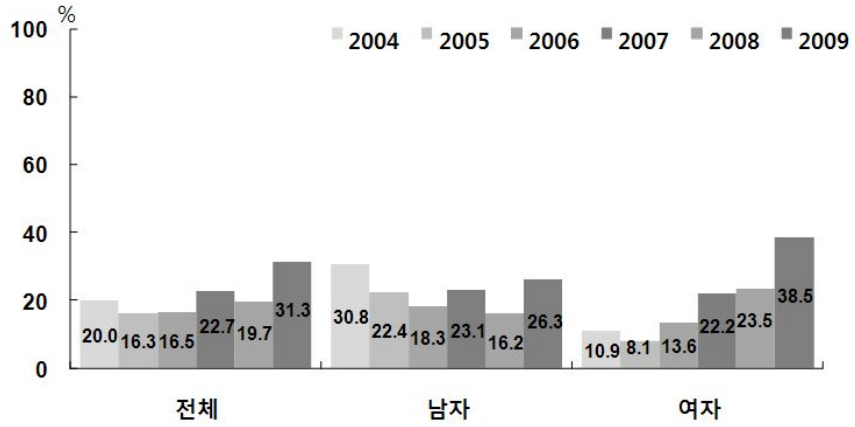
주) 공공검진: 국가암조기검진 +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정암검진, 민간검진: 자비부담검진

## 성별 암검진 수검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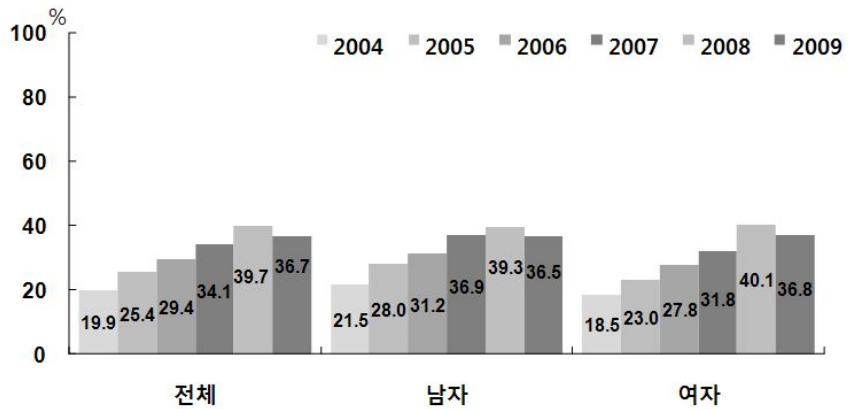
2004~2009년까지 성별 암검진 수검률의 변화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여성의 수검률이 높았으며, 간암, 대장암의 경우 2007년까지 남성의 수검률이 높았지만 2008년 이후로는 여성의 수검률이 높았음.



성별 간암 수검률 추이 [2004~2009년]



성별 대장암 수검률 추이 [2004~2009년]



출처) 암검진 수검행태조사, 국립암센터 2004~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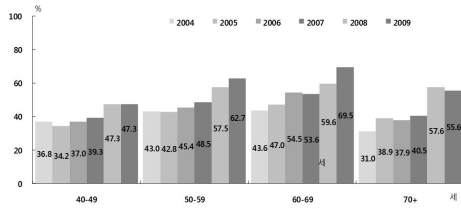
주) 대장암수검률: 1년간 주기 분변잠혈검사 + 10년 이내 대장내시경 + 5년 이내 대장이중조영검사

## 연령별 암검진 수검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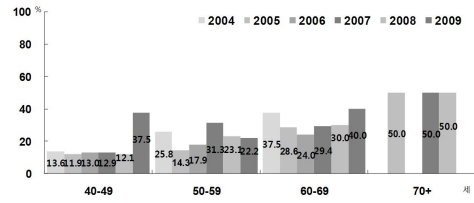
2004~2009년까지 암검진 수검률의 변화를 연령에 따라 살펴보면, 위암, 대장암에서는 60대까지 연령 증가에 따라 수검률이 증가하였음. 유방암의 경우 2008년까지 50대의 수검률이 가장 높았고 2009년은 60대의 수검률이 가장 높았음. 자궁경부암의 경우 2007년까지 40대의 수검률이 가장 높았고, 2008년부터 50대의 수검률이 가장 높았음.

### 3.1 전체 수검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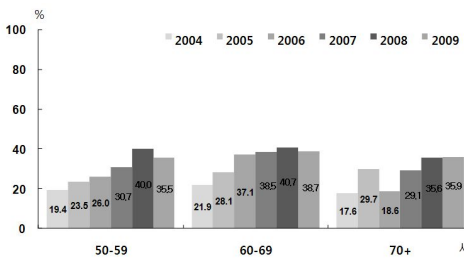
연령별 위암 수검률 추이 [2004~20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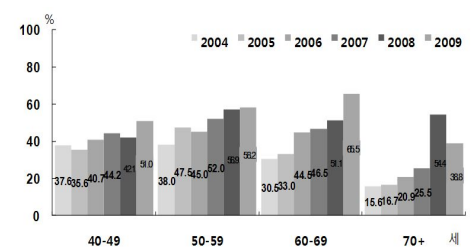
연령별 간암 수검률 추이 [2004~20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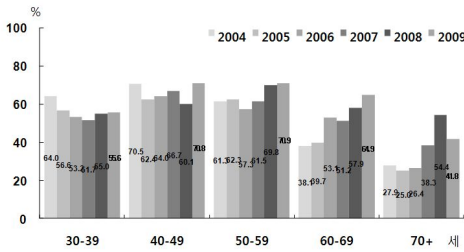
연령별 대장암 수검률 추이 [2004~2009년]



연령별 유방암 수검률 추이 [2004~2009년]



연령별 자궁경부암 수검률 추이 [2004~20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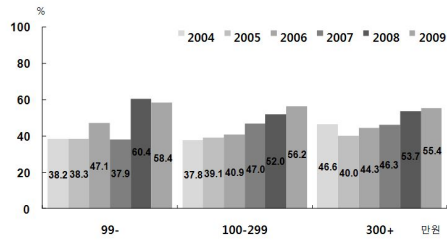
출처) 알갱진 수검률조사, 국립암센터 2004~2009  
 \* 대장암수검률: 1년간 주기 분변잠혈검사 + 10년 이내 대장내시경 + 5년 이내 대장미종조영검사

## 소득수준별 암검진 수검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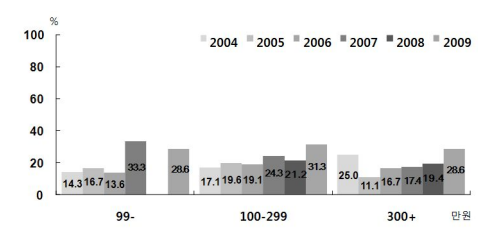
2004~2009년까지 암검진 수검률의 변화를 소득수준에 따라 살펴보면, 대장암, 자궁경부암의 경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수검률을 보임. 위암, 유방암의 경우 2008년에 저소득군의 수검률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소득수준이 높은 군보다 높은 수검률을 보이며 2009년 역시 같은 양상을 보임.

### 3.1 전체 수검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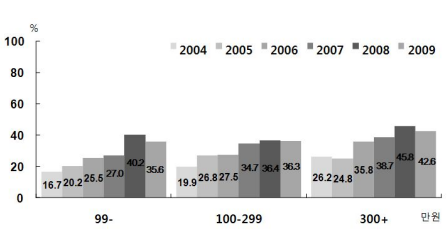
소득수준별 위암 수검률 추이 [2004~20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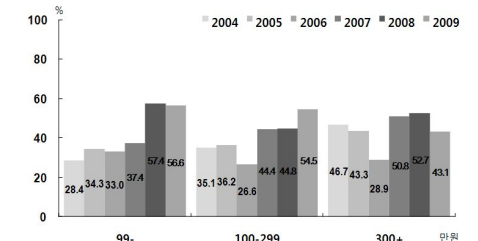
소득수준별 간암 수검률 추이 [2004~20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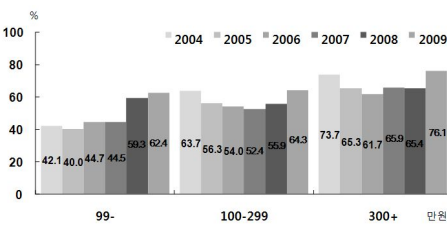
소득수준별 대장암 수검률 추이 [2004~2009년]



소득수준별 유방암 수검률 추이 [2004~2009년]



소득수준별 자궁경부암 수검률 추이 [2004~20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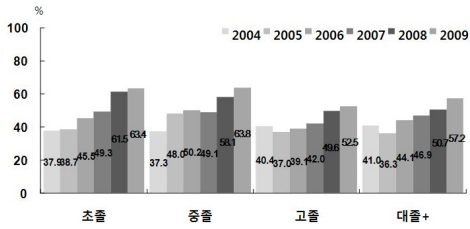
출처) 암검진 수검행태조사, 국립암센터 2004~2009  
 주) 대장암수검률: 1년간 주기 분변검출검사 + 10년 이내 대장내시경 + 5년 이내 대장야중조영검사

## 교육수준별 암검진 수검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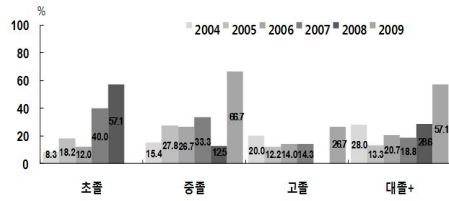
2004~2009년까지 암검진 수검률의 변화를 교육수준에 따라 살펴보면, 대장암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수검률을 보임. 위암, 유방암의 경우 초졸그룹의 수검률이 연도가 지날수록 높아짐.

### 3.1 전체 수검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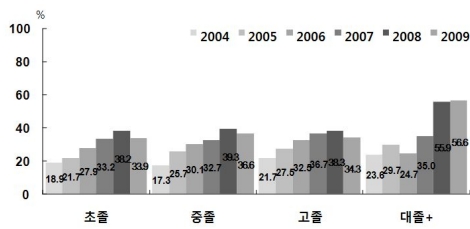
교육수준별 위암 수검률 추이 [2004~20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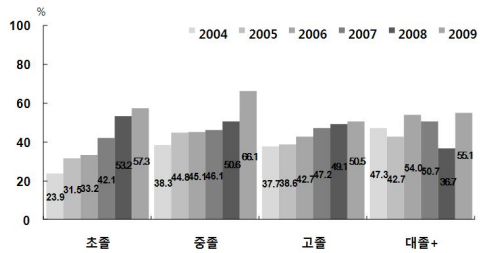
교육수준별 간암 수검률 추이 [2004~20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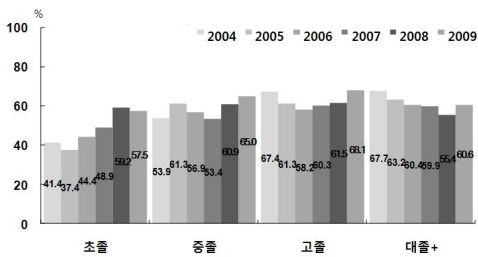
교육수준별 대장암 수검률 추이 [2004~2009년]



교육수준별 유방암 수검률 추이 [2004~2009년]



교육수준별 자궁경부암 수검률 추이 [2004~20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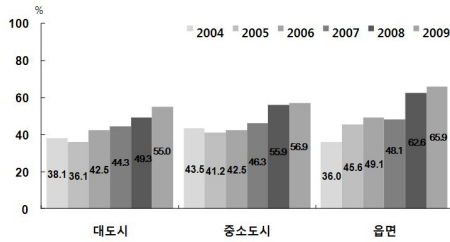
출처) 알집진 수검형태조사, 국립암센터 2004~2009  
 1) 대장암수검률: 1년간 주기 분변잠혈검사 + 10년 이내 대장내시경 + 5년 이내 대장이중조영검사

## 거주지별 암검진 수검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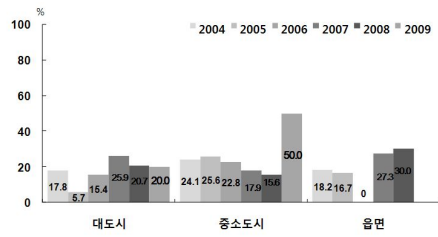
2004~2009년 암검진 수검률의 변화를 거주지에 따라 살펴보면, 위암, 유방암은 읍면거주자의 수검률이 높았고, 자궁경부암의 경우 전반적으로 중소도시 거주자의 수검률이 높았지만 2009년에 읍면거주자의 수검률이 크게 상승함.

### 3.1 전체 수검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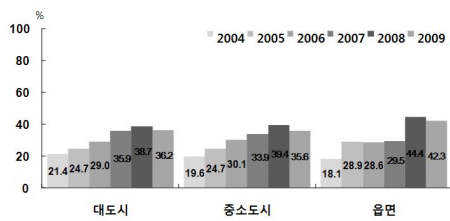
거주지별 위암 수검률 추이 [2004~20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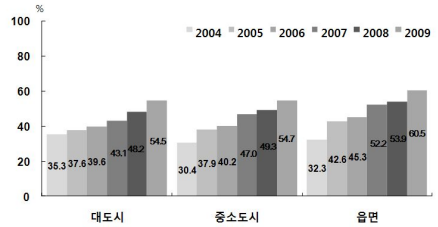
거주지별 간암 수검률 추이 [2004~20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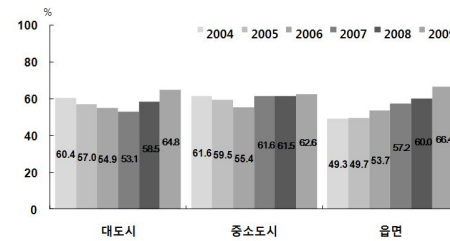
거주지별 대장암 수검률 추이 [2004~2009년]



거주지별 유방암 수검률 추이 [2004~2009년]



거주지별 자궁경부암 수검률 추이 [2004~20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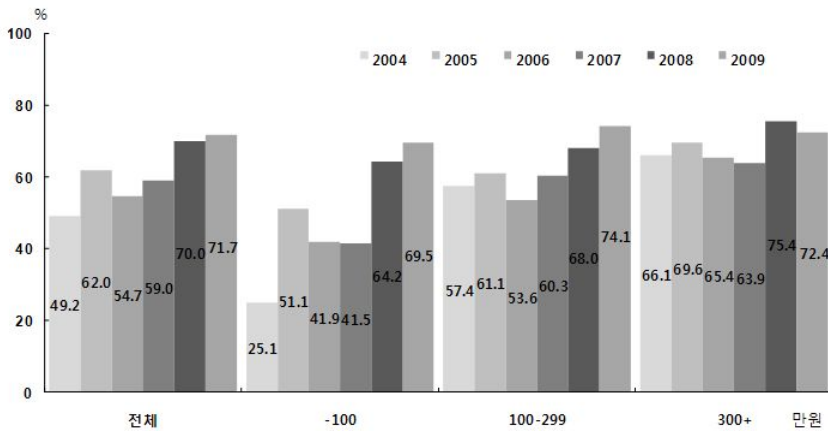


출처) 암검진 수검행태조사, 국립암센터 2004~2009  
 가) 대장암수검률: 1년간 정기 분변암검사 + 10년 이내 대장내시경 + 5년 이내 대장외중조영검사

## 소득수준별 검진권고안 이행 수검 계획

2004~2009년까지 소득수준별 검진권고안 이행 수검 계획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검진권고안 이행 수검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소득수준별 검진권고안 이행 수검 계획 [2004~20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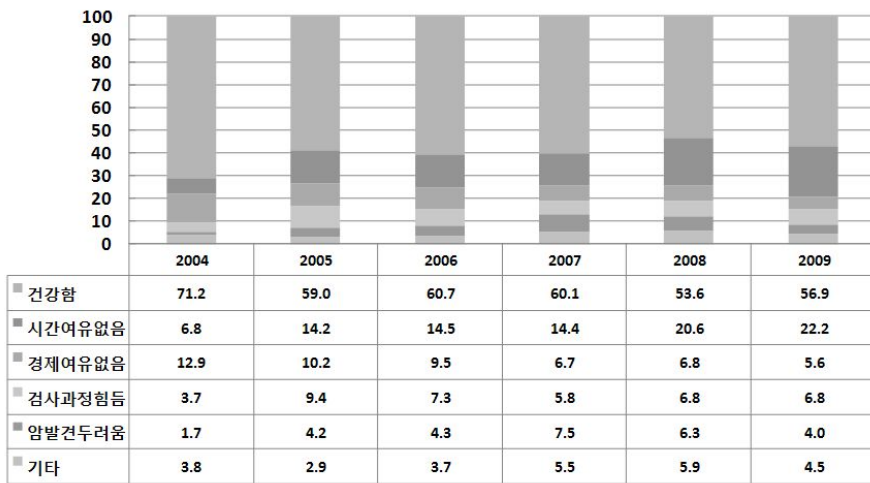


출처) 암검진 수검행태조사, 국립암센터 2004~2009

## 암검진 미수검 이유

2004~2009년까지 미수검 이유를 조사한 결과, '건강하기 때문에',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암검진을 받지 않았다는 응답은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검진을 받지 않았다는 응답은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암검진 미수검 이유 [2004~2009년]



출처) 암검진 수검행태조사, 국립암센터 2004~2009

## 3.2 국가암조기검진사업 - 2002~2008년 사업실적 -

국가암조기검진 프로그램			
암 종	검진대상	검진주기	검진방법
 위 암	40세 이상 성인	2년	위내시경검사 또는 위장조영검사
 간 암	40세 이상 성인, 교위험군 <sup>1</sup>	6개월	간초음파검사 +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대장암	50세 이상 성인	1년	분변잠혈반응검사: 이상소견 시 대장내시경검사 또는 대장 이종조영검사
 유방암	40세 이상 여성	2년	유방촬영 (의사에 의한 임상진찰 권장)
 자궁경부암	30세 이상 여성	2년	자궁경부세포검사

출처) 국립암센터 2001

주) 1. 간경변증이나 B형 간염 바이러스 항원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으로 확인된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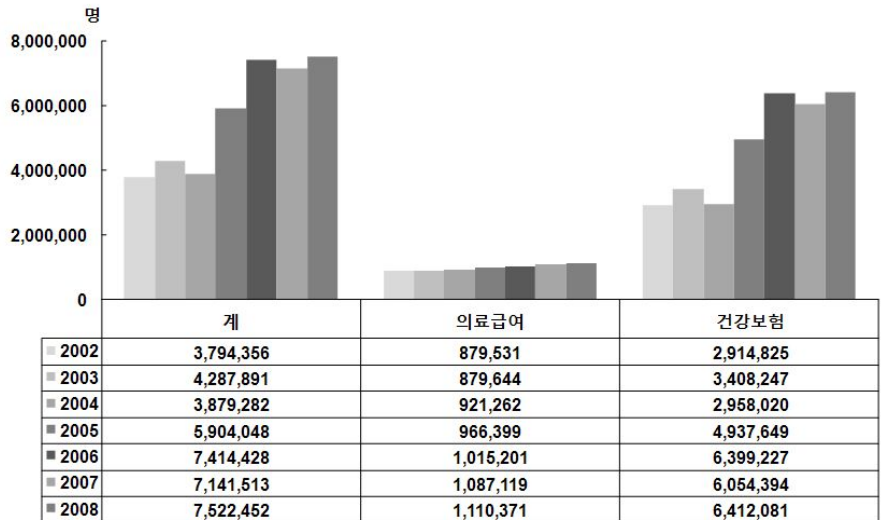
## 국가암조기검진사업 대상자(건) 수

2002~2008년까지 국가암조기검진사업을 살펴보면, 국가암조기검진 대상자 중 의료급여대상자는 2002년 879,531명에서 2008년 1,110,371명으로 서서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건강보험대상자는 2002년 2,914,825명에서 2008년 6,412,081명으로 2배 넘는 증가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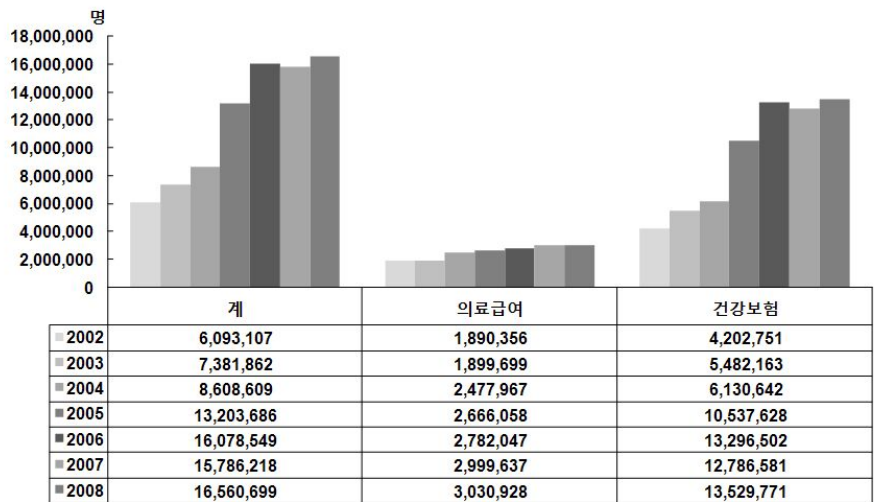
국가암조기검진 대상건수 역시 의료급여건수는 2002년 1,890,356건에서 2008년 3,030,928건으로 서서히 증가, 건강보험건수는 2002년 4,202,751건에서 2008년 13,529,771건으로 급격히 증가함.

이는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검진으로 시작한 국가암조기검진사업이 2003년 간암검진, 2004년 대장암검진으로 확대되고, 검진대상자 역시 2002년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20%에서 2003년 하위 30%, 2005년 하위 50%로 확대되었기 때문임.

국가암조기검진 대상자(실인원) [2002~2008년]



국가암조기검진 대상자수 [2002~200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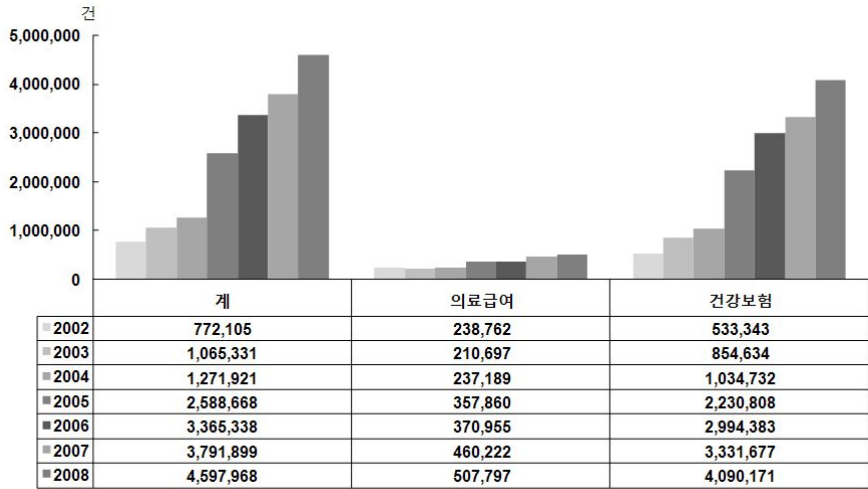
출처) 국립암센터 2009

## 국가암조기검진사업 검진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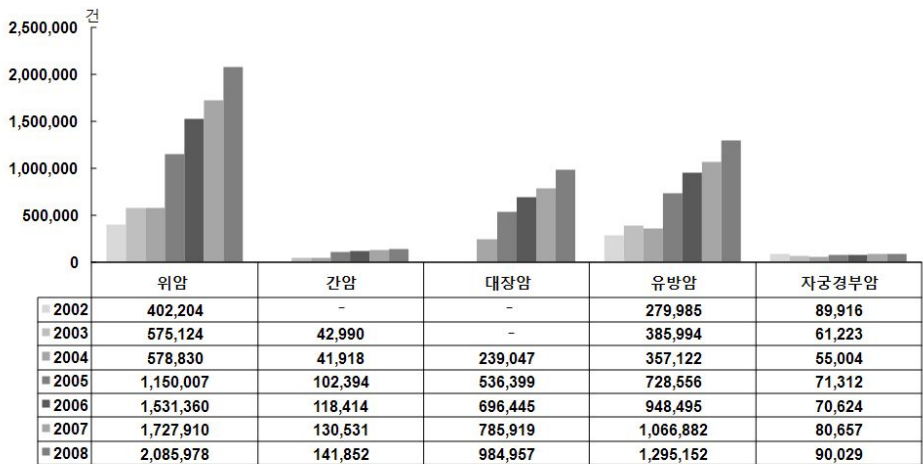
국가암조기검진 총 검진건수를 살펴보면 의료급여건수는 2002년 238,762건에서 2008년 507,797건으로 증가, 건강보험건수는 2002년 533,343건에서 2008년 4,090,171건으로 증가하였음.

암종별 총 검진건수는 위암의 검진건수가 2008년 2,085,97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유방암 1,295,152건 순이었음.

국가암조기검진 총 검진건수 [2002~2008년]



암종별 국가암조기검진 총 검진건수 [2002~200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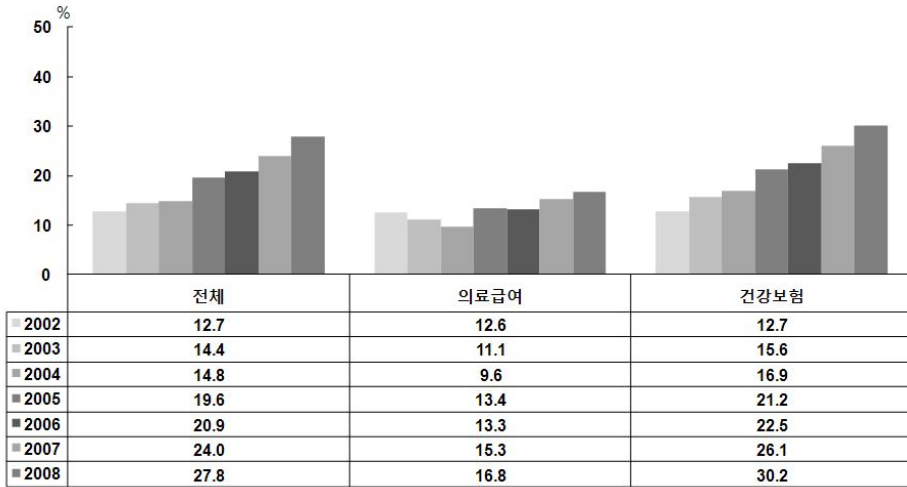
출처) 국립암센터 2009

## 국가암조기검진 참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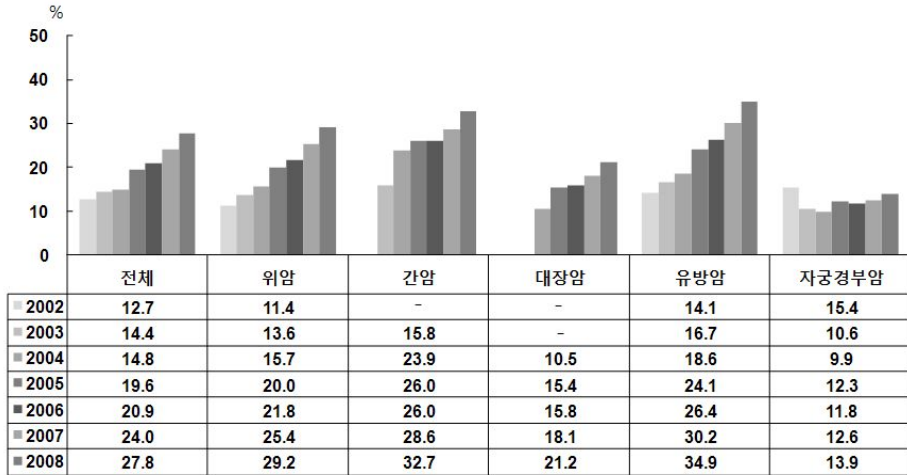
국가암조기검진의 참여율은 2008년 27.8%이었으며, 의료급여수급자의 참여율은 16.8%, 건강보험가입자의 참여율은 30.2%로 매년 증가 추세임.

2008년 암종별 참여율은 유방암이 34.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간암(32.7%), 위암(29.2%) 순이었음.

국가암조기검진 참여율 [2002~2008년]



암종별 국가암조기검진 참여율 [2002~200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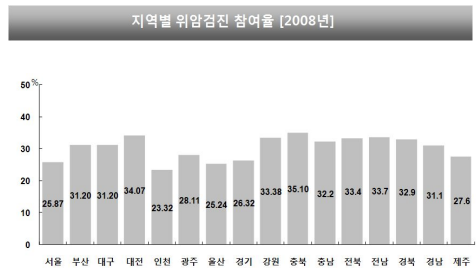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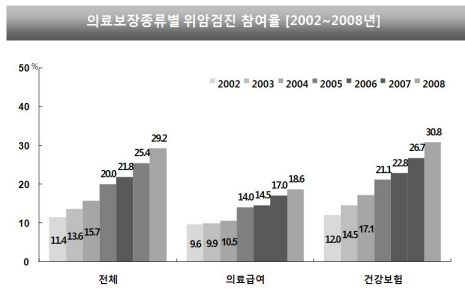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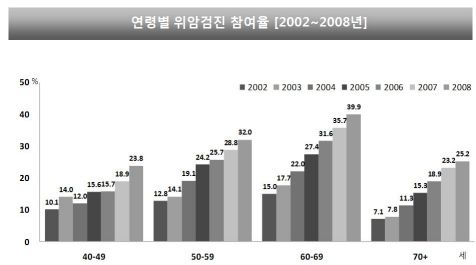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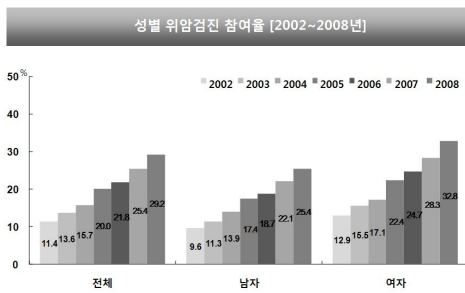


출처) 국립암센터 2009

주) 암종별로 국가 암검진사업에 포함된 시기가 다름(간암-2003년, 대장암-2004년부터)

## 위암검진 참여율

2008년 위암검진 전체 참여율은 29.2%이며, 성별로는 남성(25.4%)보다 여성(32.8%)의 참여율이 높았음. 의료급여 수급자(18.6%)에 비해 건강보험 가입자(30.8%)의 참여율이 높았으며, 연령대별로는 60대의 참여율이 가장 높았으며 40대에서 가장 낮은 참여율을 보임. 지역별로는 충청지역의 참여율이 35.1%로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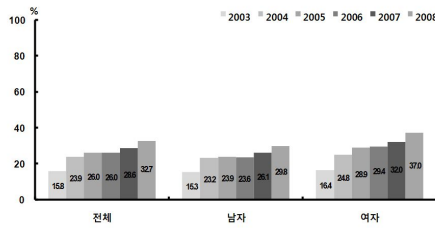


출처) 국립암센터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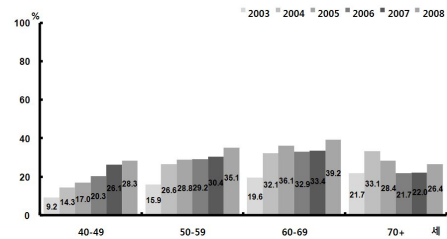
## 간암검진 참여율

2008년 간암검진 전체 참여율은 32.7%이며, 성별로는 남성(29.8%)보다 여성(37.0%)의 참여율이 높았음. 의료급여 수급자(25.4%)에 비해 건강보험 가입자(35.0%)의 참여율이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60대의 참여율이 39.2%로 가장 높았음. 지역별로는 부산지역의 참여율이 39.3%로 가장 높았으며, 충남지역이 22.3%로 가장 낮은 참여율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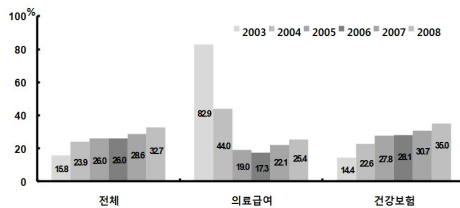
성별 간암검진 참여율 [2003~200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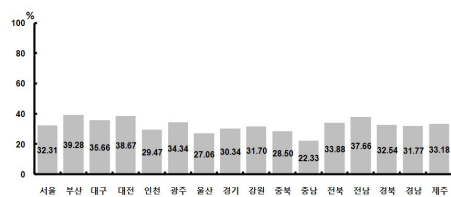
연령별 간암검진 참여율 [2003~2008년]



의료보장종류별 간암검진 참여율 [2003~200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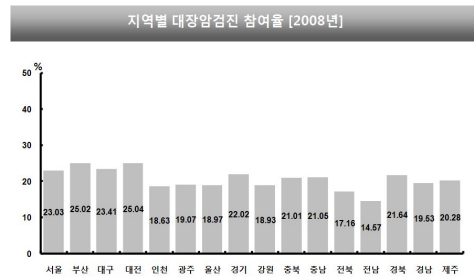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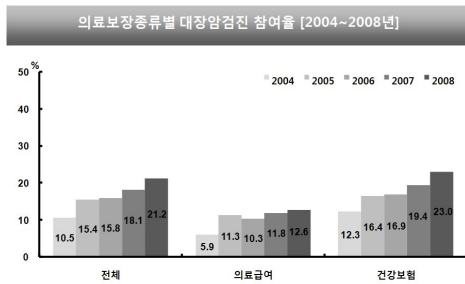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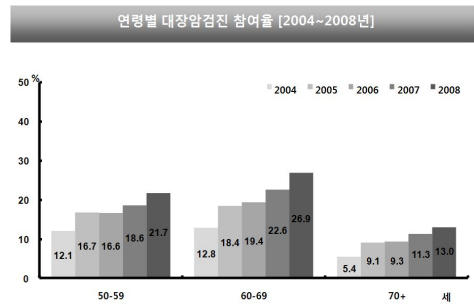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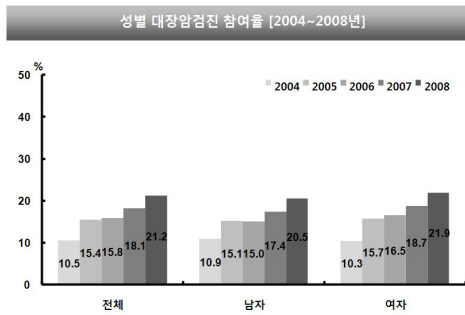
지역별 간암검진 참여율 [2008년]



출처) 국립암센터 2009

## 대장암검진 참여율

2008년 대장암검진 참여율을 살펴보면, 의료급여 수급자(12.6%)에 비해 건강보험 가입자(23.0%)의 참여율이 높았으며, 성별로는 여성(21.9%)의 참여율이 남성(20.5%)보다 다소 높았음. 연령별로는 60대의 참여율이 가장 높았음. 지역별로는 부산이 25.0%로 가장 높았으며, 전남지역이 14.6%로 가장 낮은 참여율을 보였음.



출처) 국립암센터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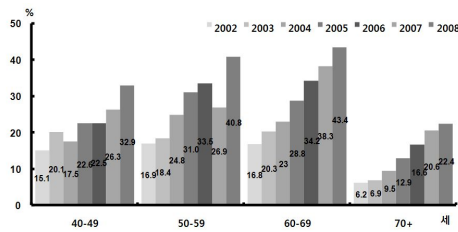
## 유방암, 자궁경부암검진 참여율

유방암검진은 의료급여수급자(21.3%)에 비해 건강보험가입자(37.4%)의 참여율이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60대에서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임. 지역별로는 충북지역이 40.1%로 가장 높았으며, 인천지역이 29.2%로 가장 낮은 참여율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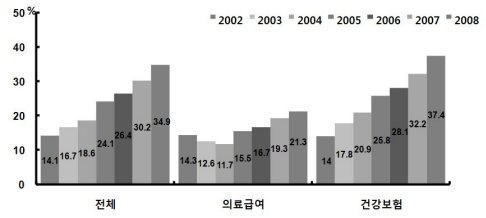
자궁경부암검진은 60대에서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였으며, 지역별로는 대전이 18.6%로 가장 높았으며, 충남지역이 9.3%로 가장 낮은 참여율을 보임.

### 3.2 국가암조기검진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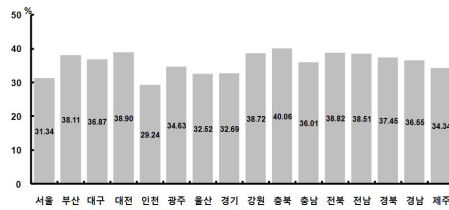
연령별 유방암검진 참여율 [2002~200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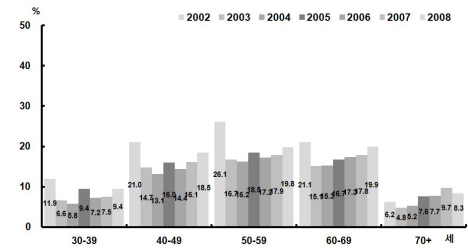
의료보장종류별 유방암검진 참여율 [2004~200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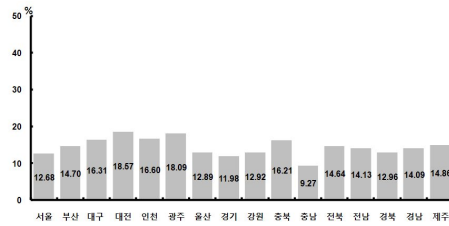
지역별 유방암검진 참여율 [2008년]



연령별 자궁경부암검진 참여율 [2002~2008년]



지역별 자궁경부암검진 참여율 [2008년]



출처) 국립암센터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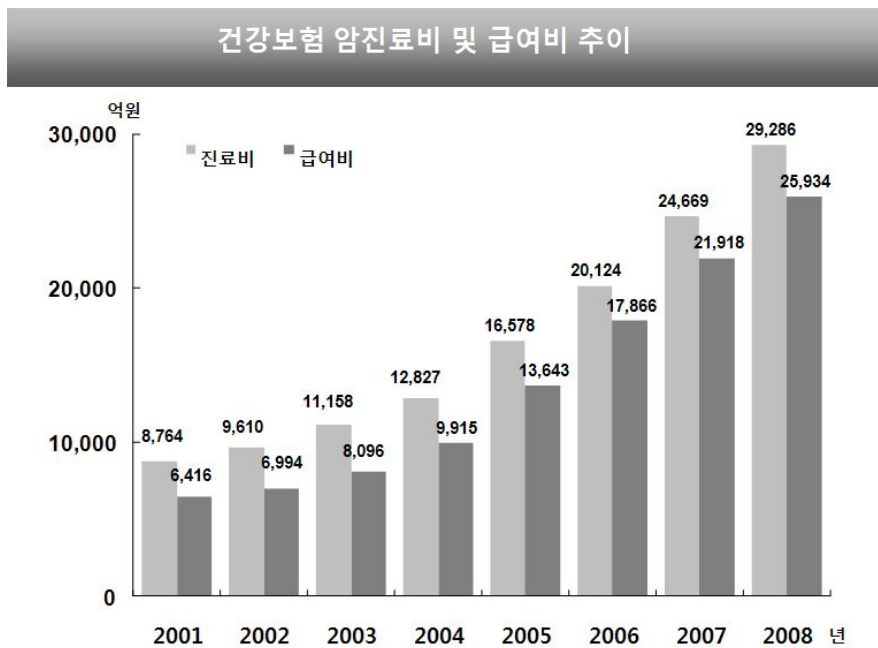


## **제 4부 . 암진단 · 치료**

## 4.1 암진료비

### 건강보험 암진료비 및 급여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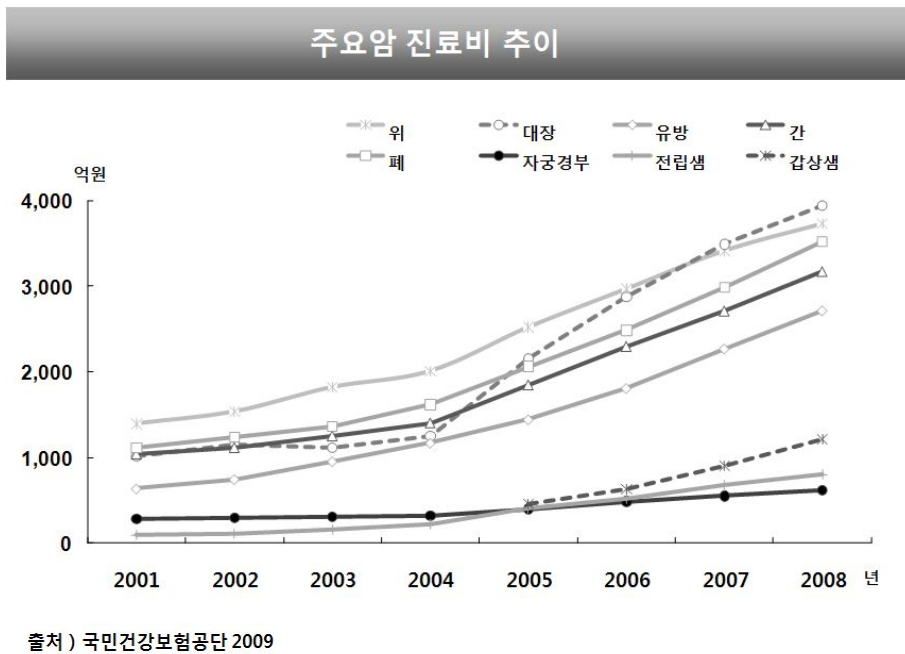
2001년 건강보험 암진료비 8,764억원에서 2008년 2조 9,286억원으로 3.34배(연평균 증가율 18.8%) 증가하였고, 보험급여비는 2001년 6,416억원에서 2008년 2조 5,934억원으로 4.1배(연평균 증가율 22.1%) 증가함.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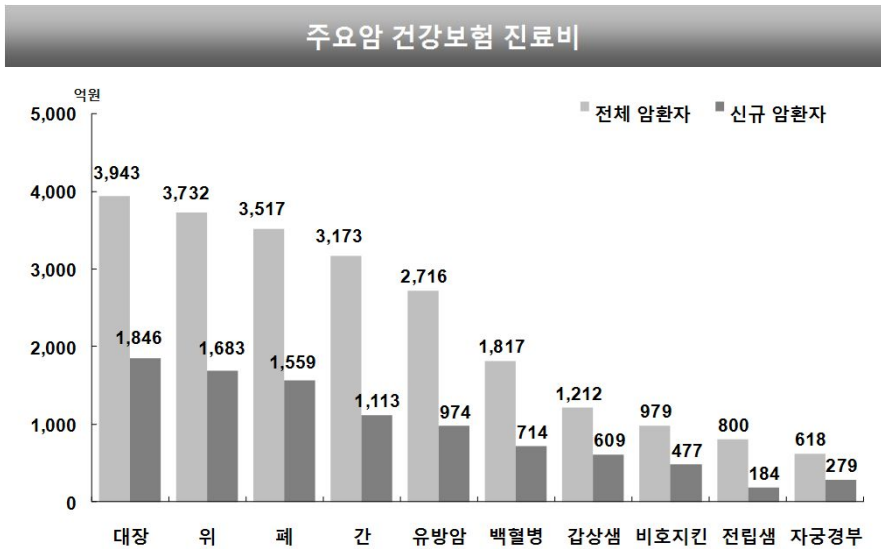
## 주요암 진료비 추이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주요암의 진료비 추이를 살펴보면, 전립샘암이 8.5배(94억원에서 800억원), 유방암 4.3배(636억원에서 2,716억원)으로 크게 증가함.



## 주요 암 건강보험 진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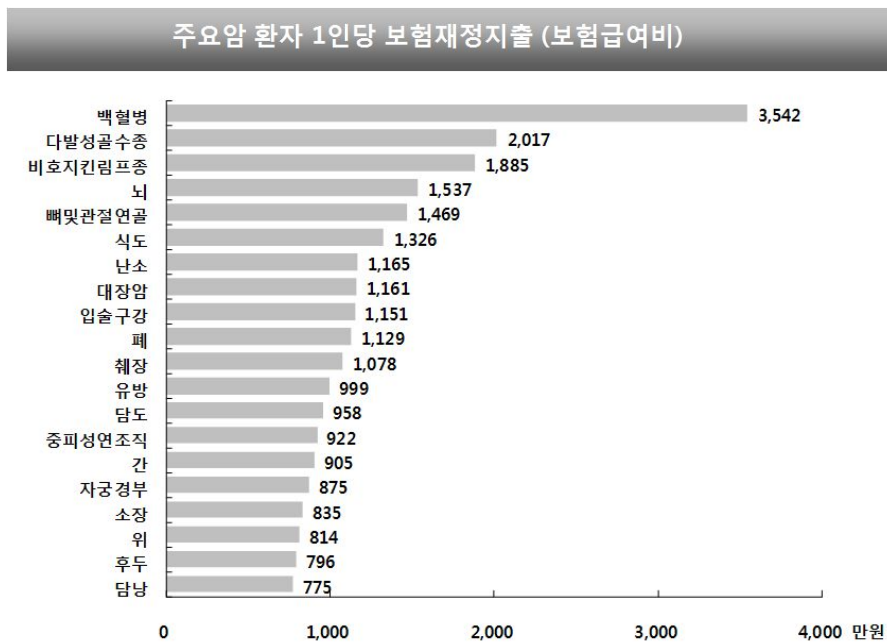
2008년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고 있는 전체 암진료환자 550,226명의 총 진료비는 비보험(선택진료, 초음파, 병실료 차액 등) 부분을 제외하고도 총 2조 9,286억원임. 이 중 대장암이 3,943억원으로 가장 많은 재정이 소요되었으며, 위암 3,732억원, 폐암 3,517억원, 간암 3,173억원 순이었음.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2009

## 주요암 환자 1인당 진료비

2007년 신규 암환자 137,531명이 해당 암 진료의 첫 진료개시일 이후 1년 동안 동일한 암으로 사용한 진료비를 분석한 결과, 암 진료환자 1인당 진료비는 평균 약 1,096임. 암 유형별로는 백혈병이 환자 1인당 진료비 3,915만원 중 90.5%인 3,542만원을 건강보험에서 지급하였으며, 다발성골수종 2,017만원(89.1%), 비호지킨림프종(혈액암) 1,885만원(89.4%), 뇌암 1,537만원(88.9%) 순으로 보험급여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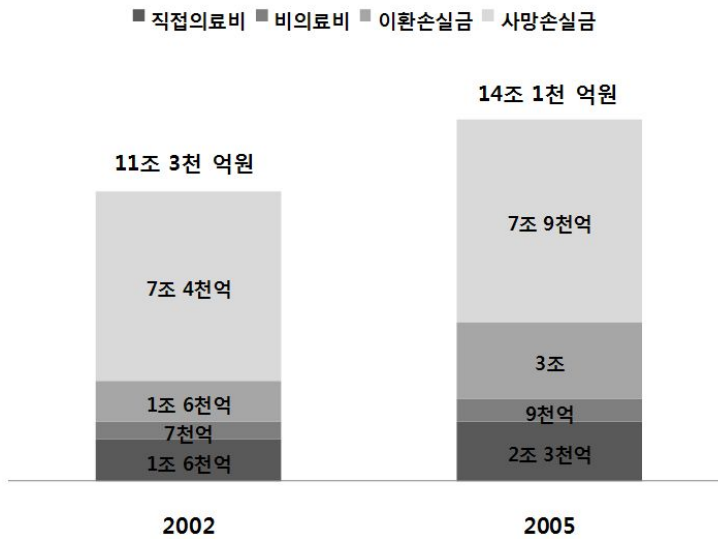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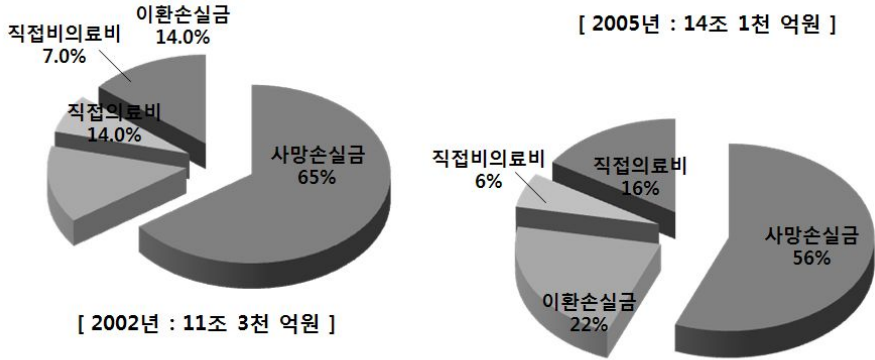
## 4.2 암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

### 우리나라 암의 사회경제적 부담

우리나라의 암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은 2002년 11조 3천억원에서 2005년 14조 1천억원으로 높아짐.

2005년도 암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수준은 총 14조 1천억원이었으며, 2002년도와 비교하여 이환손실금의 증가가 가장 큼.

암의 사회경제적 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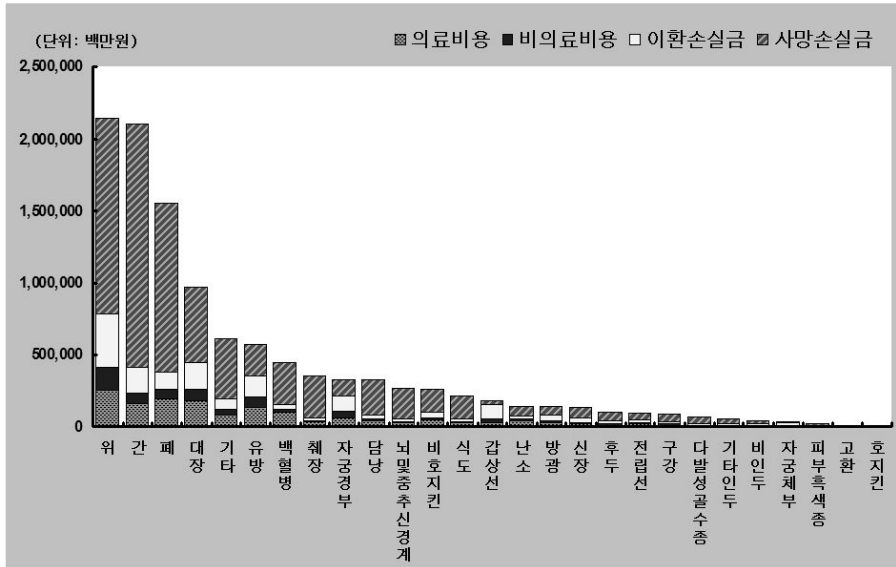
출처) Kim JH et al. J Prev Med Public Health 2009

## 암종별 사회경제적 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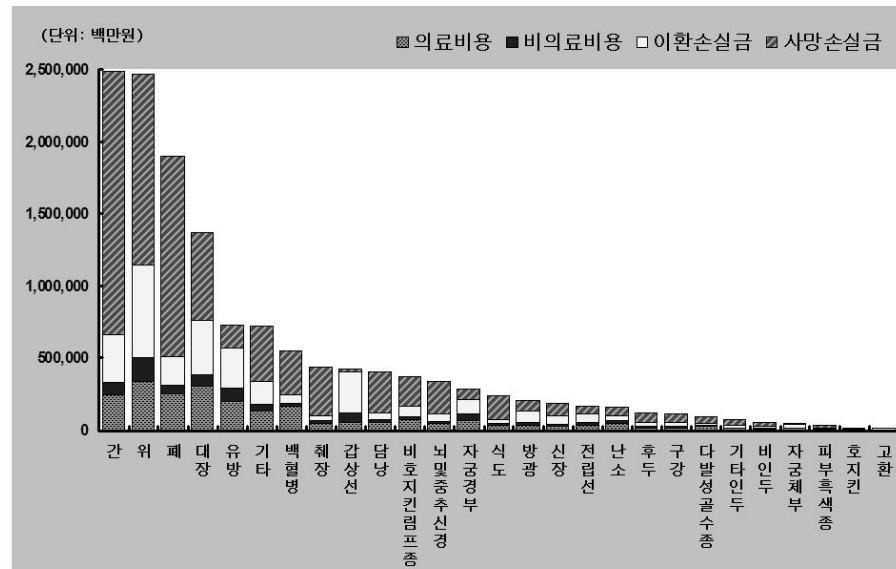
2002년도 암의 사회경제적 부담을 암종별로 나누어 볼 때, 위암, 간암의 부담수준이 2조 2천억원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폐암(1조 5천억원), 대장암(1조) 순으로 우리나라 주요암이 대부분 높은 비용수준을 보임.

또한, 2005년은 간암과 위암의 부담 수준이 2조 5천억원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폐암(1조 9천억원), 대장암(1조 4천억원) 순으로 우리나라 주요 암이 대부분 높은 비용수준을 보임.

암종별 사회경제적 부담 [2002년]



암종별 사회경제적 부담 [2005년]



출처) Kim JH et al. J Prev Med Public Health 2009

## 암종별 1인당 경제적 부담

2002년도 사회경제적 부담을 각 암종의 유병인구로 나누어 1인당 경제적 부담을 산출하면, 췌장암(9천 3백만원)의 부담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간암(8천 4백만원)과 뇌 및 중추신경계암(8천 3백만원) 순이었음.

또한, 2005년은 췌장암(6천 8백만원)의 부담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간암(6천 7백만원)과 백혈병(6천 3백만원) 순이었음.



### 4.3 암환자 요구도 및 경험조사

국립암센터를 비롯한 9개 지역암센터에서 2008, 2009년 매년 7~8월(각 지역암센터 조사 목표량 달성시까지) 2008년 환자 2,661명, 보호자 600명, 2009년 환자 1,958명을 대상으로 환자 요구도 및 암 관련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함.

- 각 기관별 설문 완료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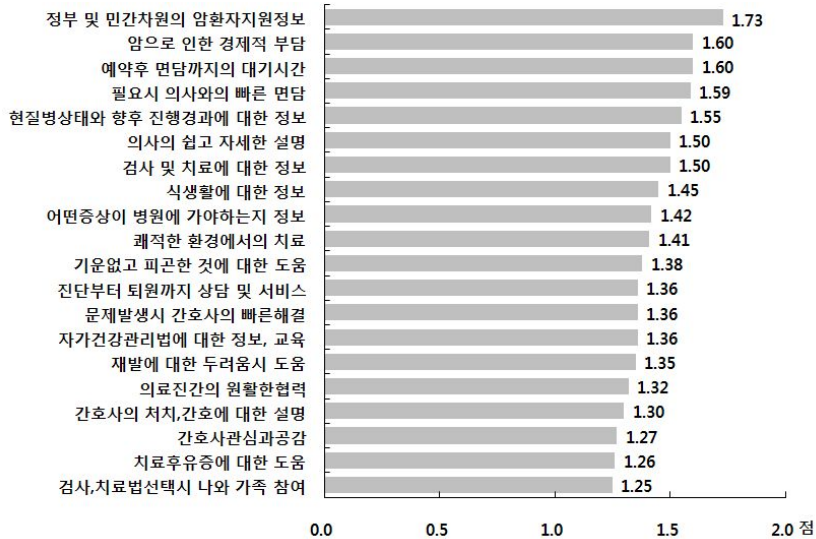
센 터 명	2008년		2009년
	환자최종설문완료수	보호자최종설문완료수	
국립암센터	300	104	198
강원지역암센터	233	46	176
경남지역암센터	300	135	192
대구지역암센터	298	4	200
대전지역암센터	275	24	199
부산지역암센터	300	57	200
전남지역암센터	260	57	200
전북지역암센터	200	31	195
제주지역암센터	250	17	199
충북지역암센터	245	125	199
계	2,661	600	1,958

## 암환자 · 보호자 요구도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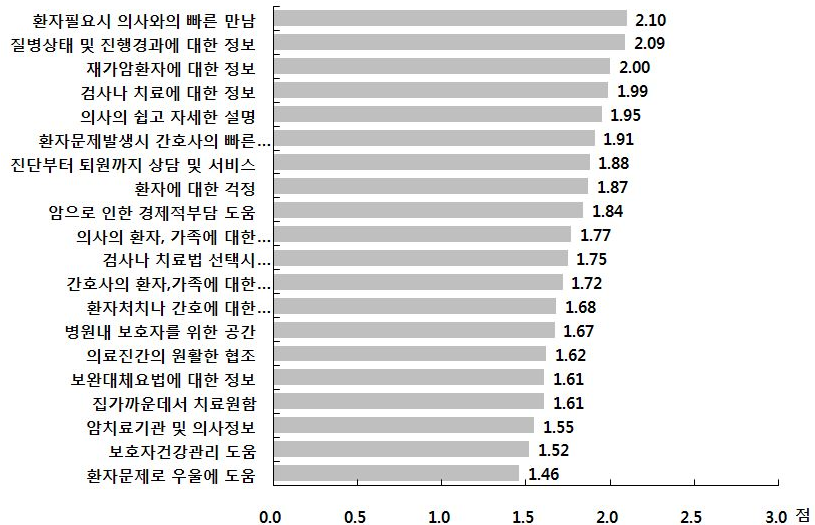
암환자를 대상으로 조사된 요구도를 0~3점으로 환산하여 평균값으로 요구도가 높은 순위를 알아본 결과, '정부 및 민간 차원의 암환자를 위한 경제적 지원에 대한 정보(의료비 지원 등)가 필요하다'는 요구도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그 다음으로는 '암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치료비, 소득 상실)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다'로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보호자를 대상으로 조사된 요구도에서 '정부 및 민간 차원의 암환자를 위한 경제적 지원에 대한 정보(의료비 지원 등)가 필요하다'는 요구도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그 다음으로는 '암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치료비, 소득 상실)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다'로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암환자 요구도 순위 [2008년]



### 암환자보호자 요구도 순위 [200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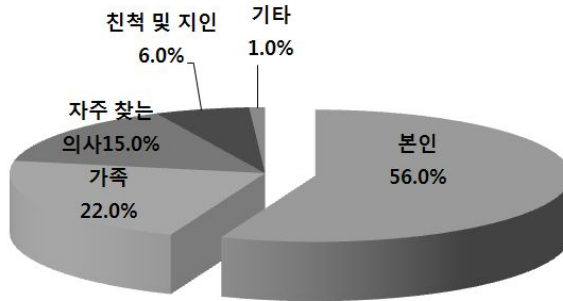
출처) 환자보고 성과지표 및 관리체계 개발, 국립암센터 2009

## 암환자 의료기관선택의 의사결정자 및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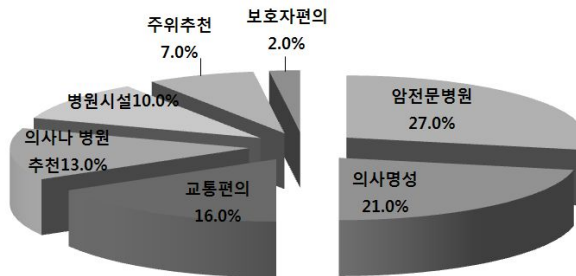
암환자 의료기관 선택 시 의사결정을 하는 주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암환자는 병원을 선택할 때 본인이 직접 선택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56%), 다음으로 가족(22%), 자주 찾는 의사(15%), 친척 및 지인(6%), 기타 (1%) 순이었음.

암환자는 병원을 선택하는 여러 이유들 중 암치료 전문병원이라는 점 (27%)을 가장 중요한 이유로 선택하였음. 다음으로 의사가 실력이 있고 유명해서(21%), 병원이 집과 가깝거나 교통이 편리해서(16%), 자주 찾는 의사 또는 동네병원의 추천(13%), 주위 사람의 추천(7%), 기타(4%) 순이었음.

암환자 의료기관선택의 의사결정자 [200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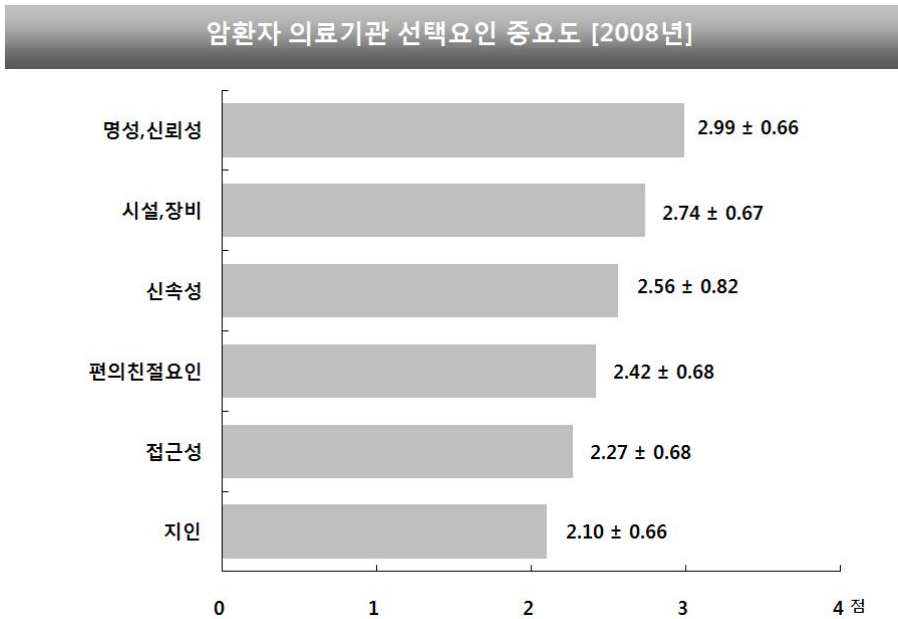
암환자의 의료기관선택 사유 [2008년]



출처) 환자보고 성과지표 및 관리체계 개발, 국립암센터 2009

## 암환자 의료기관 선택요인의 중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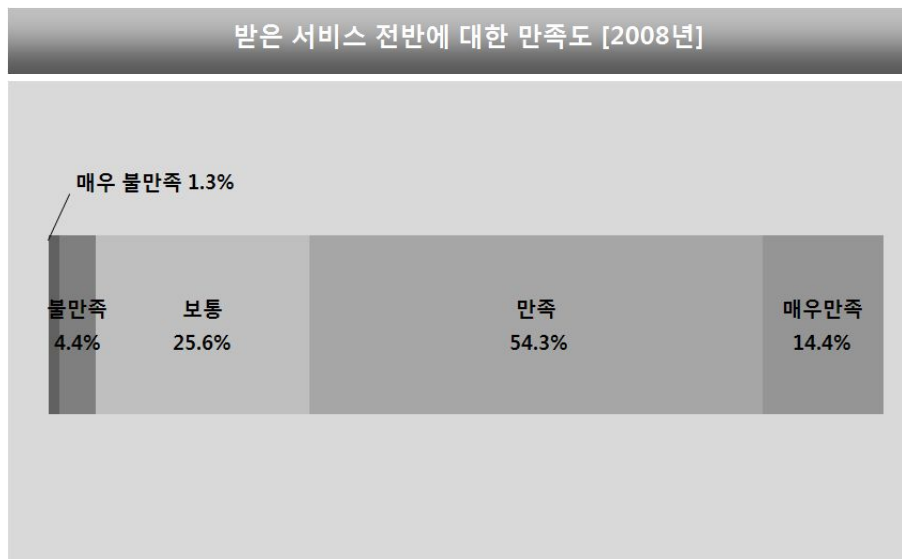
암환자 의료기관 선택요인 중요도 평균 점수를 비교한 결과, 명성·신뢰성 요인의 중요도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시설·장비 요인, 신속성 요인, 편의·친절 요인, 접근성 요인, 지인 요인 순으로 선택요인의 중요도가 도출되었음.



출처) 환자보고 성과지표 및 관리체계 개발, 국립암센터 2009

## 전반적 서비스 만족도

암치료와 관련하여 받은 서비스 전반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이 68.7%로 과반수이상이었으며, 불만족하다는 응답은 5.7%에 불과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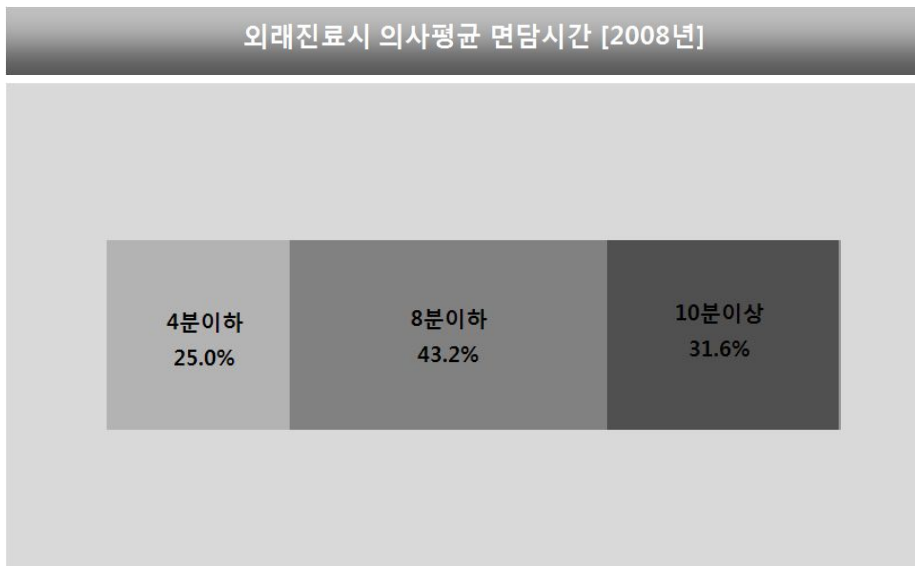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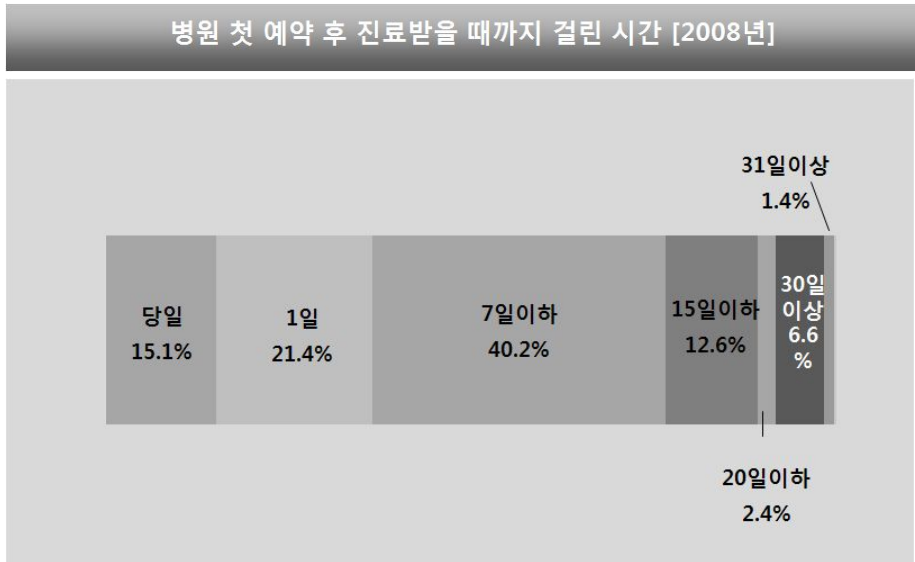


출처) 환자보고 성과지표 및 관리체계 개발, 국립암센터 2009

## 진료대기 및 의사 면담시간

암환자가 처음 의료기관을 예약하고 진료를 받을 때까지 걸린 시간을 살펴보면, 전체 2,661명의 환자 중 2~7일 정도 소요된다는 의견이 40.2%로 가장 많았지만, 예약 후 대기 기간이 15일 이상 걸린다는 의견도 12.6%이었음. 또한 처음 의료기관을 예약하고 환자가 대기하는 기간은 평균 7.1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암환자 외래 진료 시 의사와의 면담시간은 평균 7.3분이었고, 전체 2,661명의 대상자 중 평균 4~8분간 의사와의 면담시간을 갖는다는 의견이 43.2%로 가장 많았고, 외래 진료 시 거의 대부분의 환자의 면담시간이 10분미만(68.2%)인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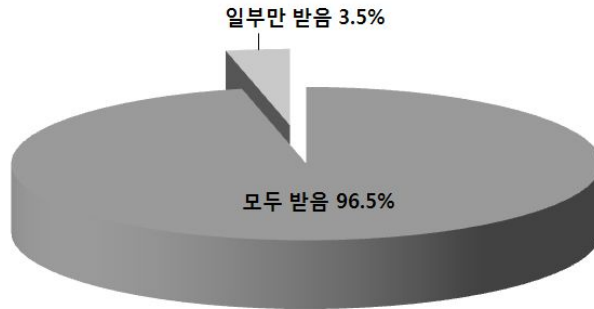


출처) 환자보고 성과지표 및 관리체계 개발, 국립암센터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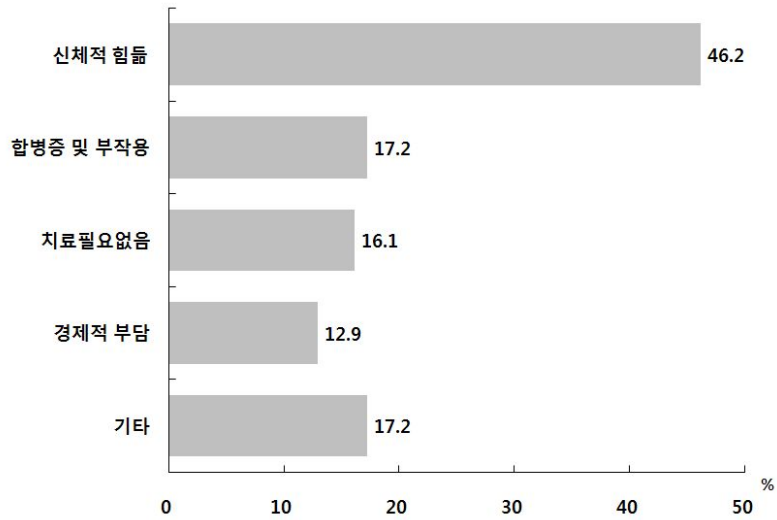
## 암진단 후 치료 수용여부 및 거부사유

암진단 이후 의사가 권유한 치료에 대해 환자의 수용여부와 수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대상자 2,661명 중에 의사가 권유한 치료에 대해 일부만 수용했던 환자는 93명(3.5%) 이었고, 그 중 '신체적으로 너무 힘들어서'라고 응답(중복응답)한 경우가 46.2%(43명)로 가장 많았음.

암진단 후 의사권유 치료 수용여부 [2008년]



암진단 후 의사권유 치료 거부사유 [200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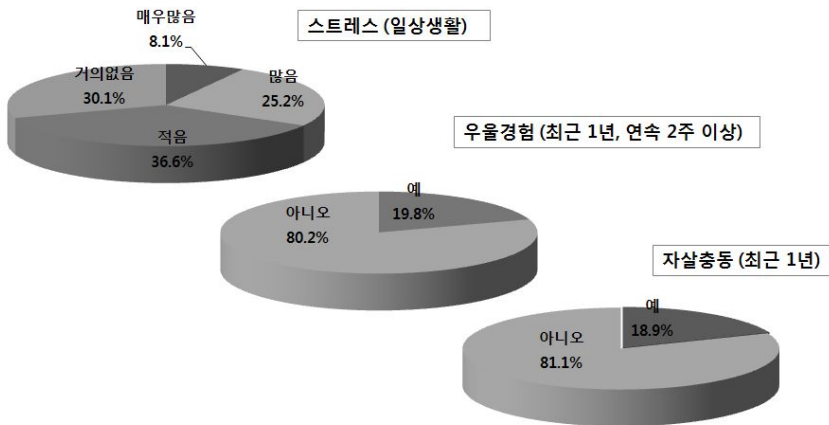
출처) 환자보고 성과지표 및 관리체계 개발, 국립암센터 2009

## 암환자의 정신건강

암환자의 평소 스트레스 정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69.9%가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응답하였으며, 남자는 63.7%, 여자는 76.8%가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응답하여 여자의 스트레스 정도가 약간 높았음.

우울경험에 관한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19.8%가 우울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하였으며, 자살 충동 경험은 전체 응답자의 18.9%가 자살 충동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함.

### 암환자의 정신건강 [200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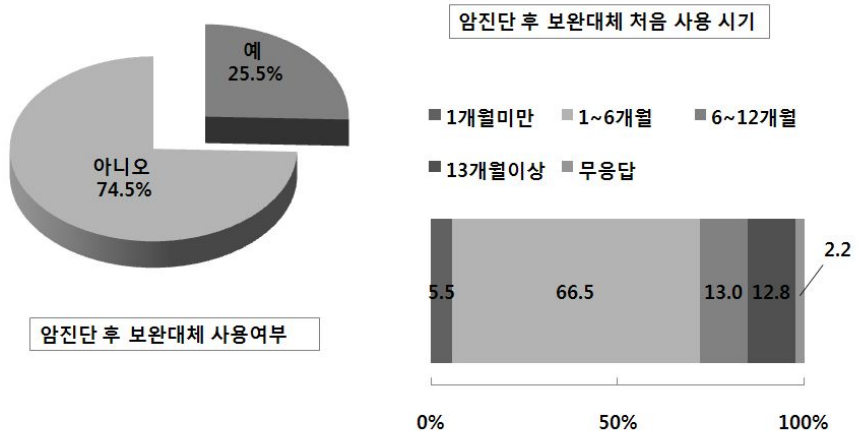
출처) 환자보고 성과지표 및 관리체계 개발, 국립암센터 2009

## 암환자의 보완대체요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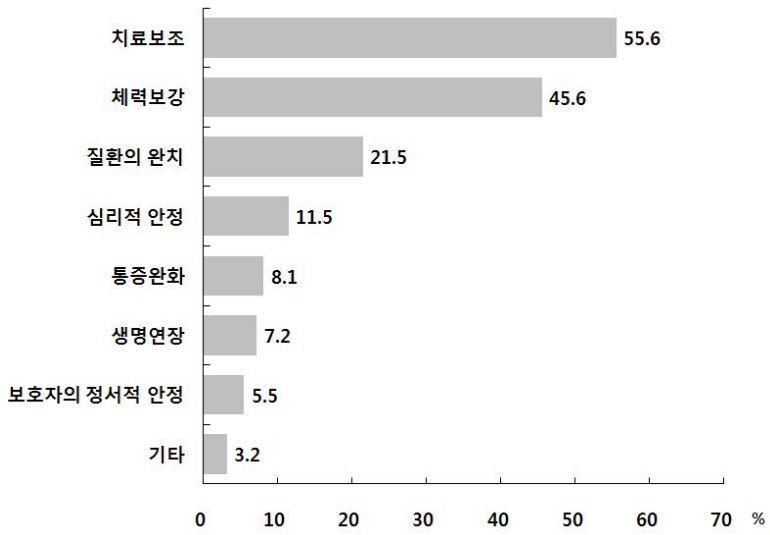
암진단 이후 보완대체요법 사용 경험에 관한 조사결과, 25.5%가 보완대체요법을 이용해보았고, 보완대체요법을 처음 사용한 시기는 66.5%가 1~6개월 사용해 본 것으로 응답함.

암환자가 암진단 후 보완대체요법(민간요법)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 암환자가 보완대체요법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치료보조의 목적이 55.6%로 가장 많았고, 체력보강 45.6%, 질환의 완치 21.5%순이었음.

암환자의 보완대체요법 [2008년]



보완대체요법 사용목적 [200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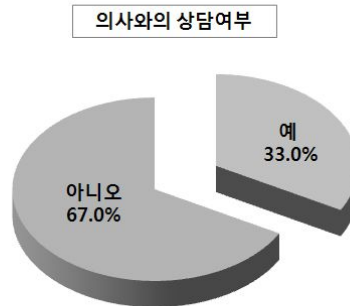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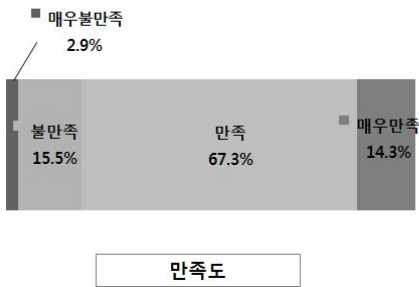


출처) 환자보고 성과지표 및 관리체계 개발, 국립암센터 2009

## 보완대체요법 만족도 및 의사상담 여부

보완대체요법 사용에 대해 만족한다는 의견이 81.6%였고, 보완대체요법 사용에 대해 의사와 상담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67.0%가 상담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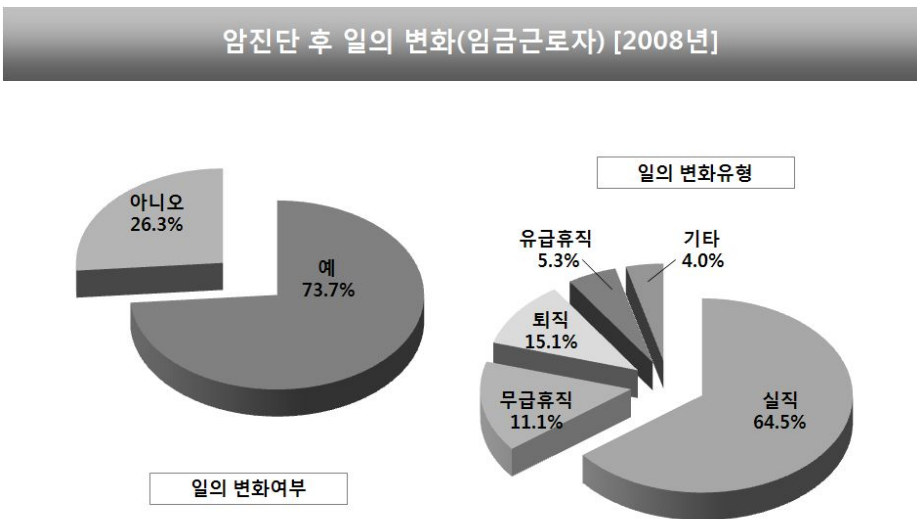
### 보완대체요법 만족도 및 의사상담 여부 [2008년]



출처) 환자보고 성과지표 및 관리체계 개발, 국립암센터 2009

## 암진단 후 일의 변화

암환자 중 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암진단 후 일의 변화 여부 및 변화 내용에 대해 조사한 결과, 73.7%가 일이 변화되었다고 응답함. 그 중 실직되었다고 응답했던 비율이 64.5%로 과반수이상이었고 특히, 남자에 비해 여성의 실직비율이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됨.



출처) 환자보고 성과지표 및 관리체계 개발, 국립암센터 2009

## 암진단 후 직업상실곡선

2001~2003년까지 국립암센터에 내원한 남자 위암, 간암, 대장암 환자 중 암진단 당시 직업이 있는 305명을 2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53%(위암 48.4%, 간암 63.2%, 대장암 46.1%)가 암을 진단받은 이후 직장을 그만둠. 나머지 43%는 무급 또는 유급 휴가를 내는 등 전체적으로 96% 정도가 정상적인 직업 활동을 할 수 없었음. 특히 직업을 상실한 환자의 87%는 암을 진단받은 이후 3개월 이내에 직장을 그만둠.

암진단 후 직업상실곡선

출처) Choi KS et al, *Psycho Oncology*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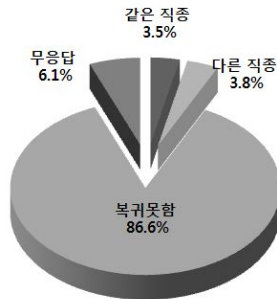
주) 중도절단 건: 추적조사에서 중도에 생존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된 환자의 수

## 실직 후 복귀여부 및 수입변화, 소득감소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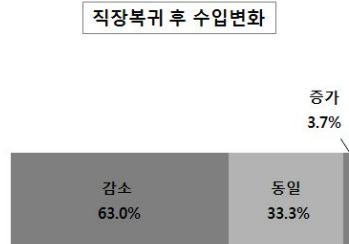
암진단 후 실직했다고 응답했던 대상자의 실직 후 직장 복귀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직장에 복귀하지 못한 비율이 86.6%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복귀한 경우에도 다른 직종으로 복귀한 비율이 같은 직종으로 복귀한 비율보다 약간 많았음. 직장복귀 후 수입변화에 대해 감소되었다는 응답이 63.0%였음.

또한 암진단 전과 비교하여 암진단 후 가구소득이 감소한 이유로 투병으로 환자소득이 감소한 경우는 전체 1,327명 중 1,088명으로 82.0%를 차지했고, 간병으로 보호자 소득이 감소한 경우는 전체의 5.7%였으며, 환자 본인소득과 간병으로 인한 보호자 소득감소로 기인했다는 응답이 8.7%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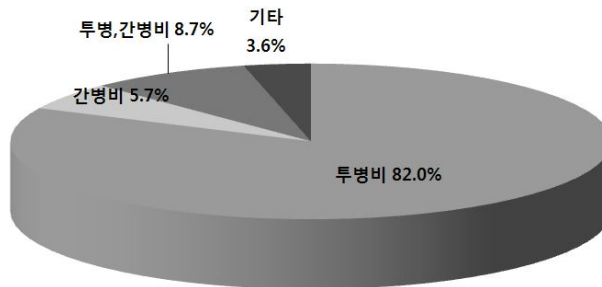
실직 후 복귀여부 및 복귀 후 수입변화 [2008년]



실직 후 직장복귀



암진단 전후 비교시 가구소득 감소이유 [200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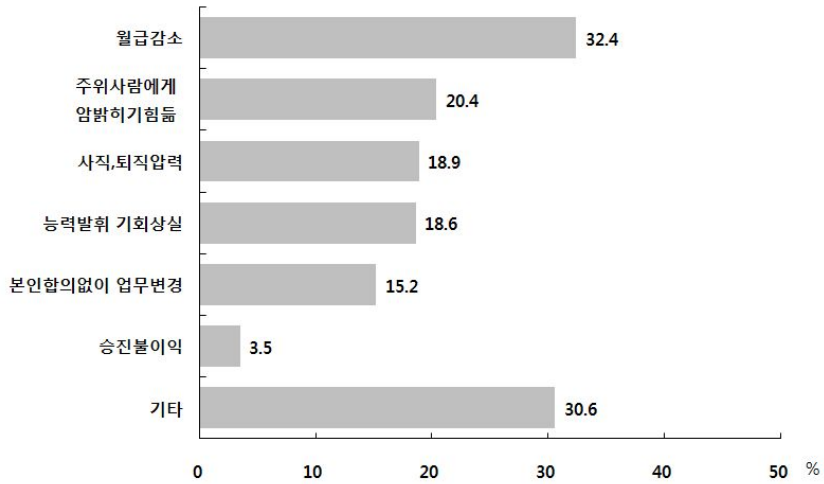
출처) 환자보고 성과지표 및 관리체계 개발, 국립암센터 2009

## 암치료 시 직장불이익 및 퇴직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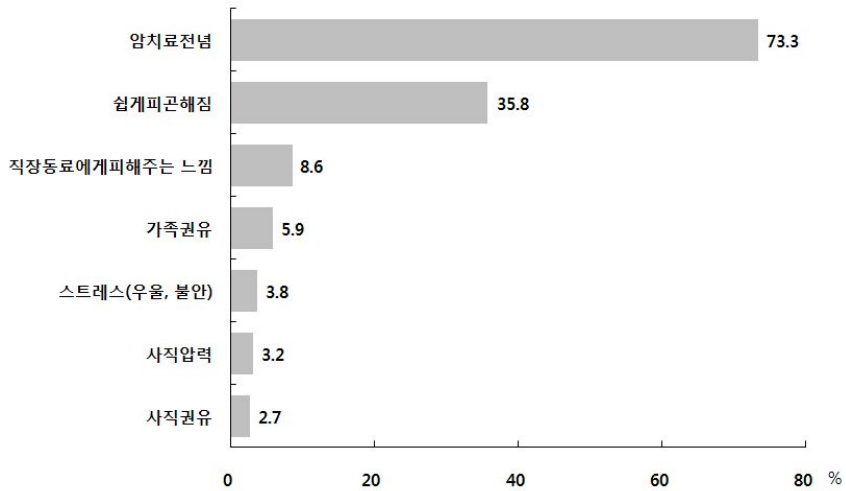
암진단 후 암치료 당시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했던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32.4%가 월급이 감소하였다고 응답하였고 상사나 주위 사람들에게 암이라는 것을 밝히기 어려웠던 것(20.4%), 사직, 퇴직의 압력을 받음(18.9%), 능력 발휘 기회의 상실(18.6%) 등의 의견이 있었음.

직장을 그만두게 된 가장 큰 이유로 남자와 여자 모두 암치료에 전념하기 위한(73.3%) 이유가 가장 많았고, 쉽게 피곤해짐(35.8%), 직장동료에게 피해를 주는 느낌(8.6%), 가족의 권유(5.9%) 등이 있었음.

암치료시 직장불이익 내용 [200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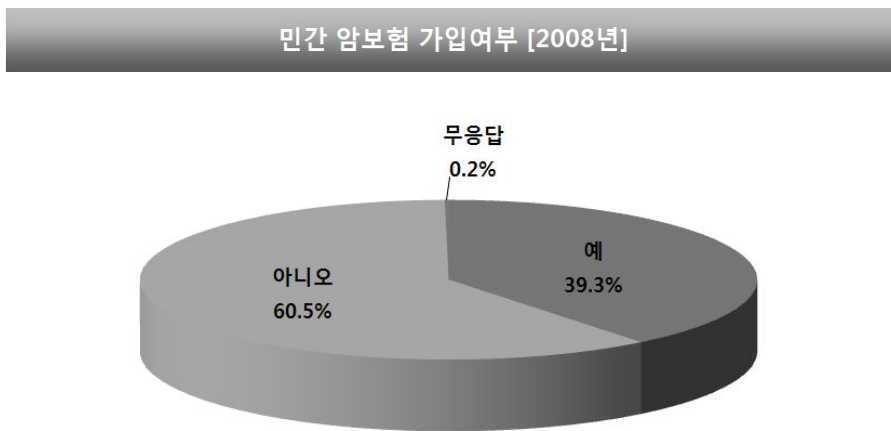
퇴직사유 [2008년]



출처) 환자보고 성과지표 및 관리체계 개발, 국립암센터 2009

## 민간 암보험 가입여부

암환자의 민간(개인) 암보험 가입 여부를 조사한 결과, 39.3%가 가입한 것으로 조사됨.



출처) 환자보고 성과지표 및 관리체계 개발, 국립암센터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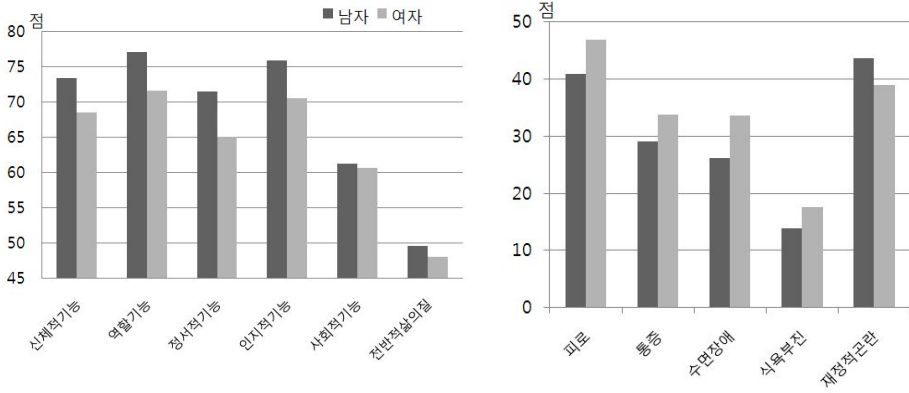
## 암환자의 성별 암종별 소득별 삶의 질

전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기능 상태의 삶의 질과 전반적인 삶의 질, 증상의 삶의 질이 떨어짐. 남성과 여성 모두 역할, 인지, 신체, 정서, 사회적 기능의 순서로 기능상태 점수가 높으며, 사회적 기능이 가장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남녀 모두 피로 증상의 호소가 다른 증상에 비해 높았음. 설사와 재정적 어려움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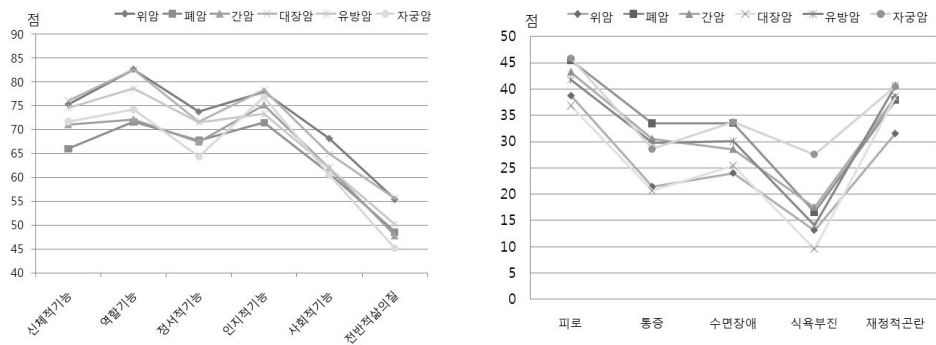
암종별로 비교한 결과, 6개 암종 모두에서 사회적 기능이 가장 떨어졌음. 위암, 대장암, 유방암, 간암, 폐암, 자궁암의 순서로 사회적 기능 점수가 높게 나타남. 신체적 기능이 가장 좋은 것은 대장암, 가장 나쁜 것은 폐암이었고, 역할 기능이 가장 좋은 것은 위암, 가장 나쁜 것은 폐암이었음. 정서적 기능이 가장 좋은 것은 위암, 가장 나쁜 것은 자궁암이었고, 인지적 기능이 가장 좋은 것은 대장암, 가장 나쁜 것은 폐암이었음. 전반적인 삶의 질은 대장암, 위암, 유방암, 폐암, 간암, 자궁암의 순서로, 자궁암이 가장 삶의 질 점수가 낮았음.

암환자의 월 평균 소득별로 비교한 결과, 300만원 미만군은 300만원 이상 군에 비해, 기능 상태와 증상의 삶의 질, 전반적인 삶의 질이 나빴으며, 재정적 어려움의 호소가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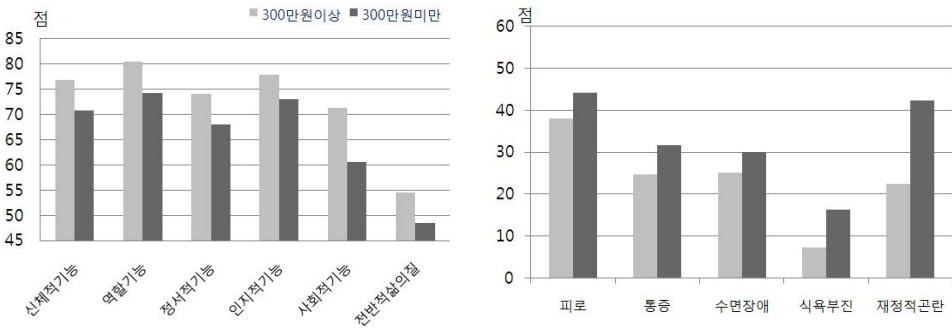
### 성별 삶의 질 점수 분포



### 암종별 삶의 질 점수 분포



### 소득별 삶의 질 점수 분포



출처) 환자보고 성과지표 및 관리체계 개발, 국립암센터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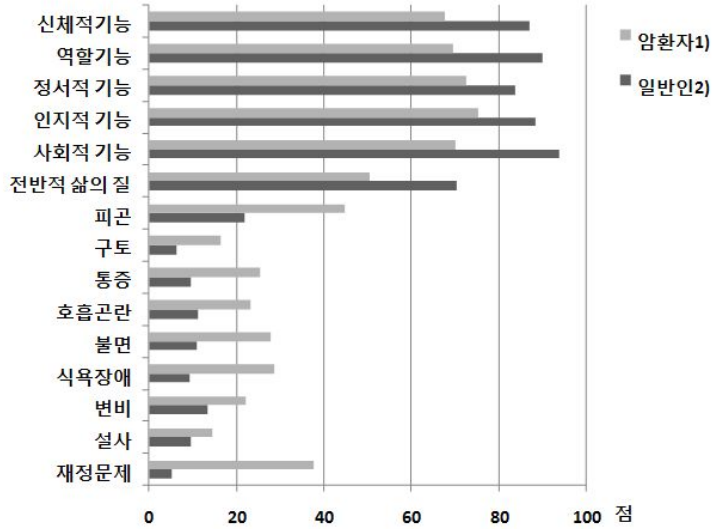
주) 기능점수는 높을수록 기능상태 삶의 질이 좋으며, 증상점수는 높을수록 증상관련 삶의 질이 낮아짐

## 일반인과 암환자의 삶의 질 비교

암환자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은 평균 50.5점을 기록하여, 일반인 남녀 평균 70.4점에 비해 현격하게 암환자의 전반적인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음.

또한 일반인의 경우, 사회적 기능, 역할 기능, 인지적 기능, 신체적 기능, 정서적 기능의 순서로 기능점수가 낮아지는데 비해, 암환자의 경우, 인지적 기능, 정서적 기능, 사회적 기능, 역할 기능, 신체적 기능의 순서로 기능점수가 낮아짐. 이는 일반인에 비해 암환자의 사회적, 역할적 기능이 제약되고, 그와 관련된 삶의 질이 저하되는 것을 보여주며, 삶의 질에 있어서 일반인과 암환자의 삶의 질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일반인과 암환자의 삶의 질 평균점수



출처) 1. 환자보고 성과지표 및 관리체계 개발, 국립암센터 2009

2. Yun YH et al. Journal of clinical epidemiology 2007

주) 기능점수는 높을수록 기능상태 삶의 질이 좋으며, 증상점수는 높을수록 증상관련 삶의 질이 낮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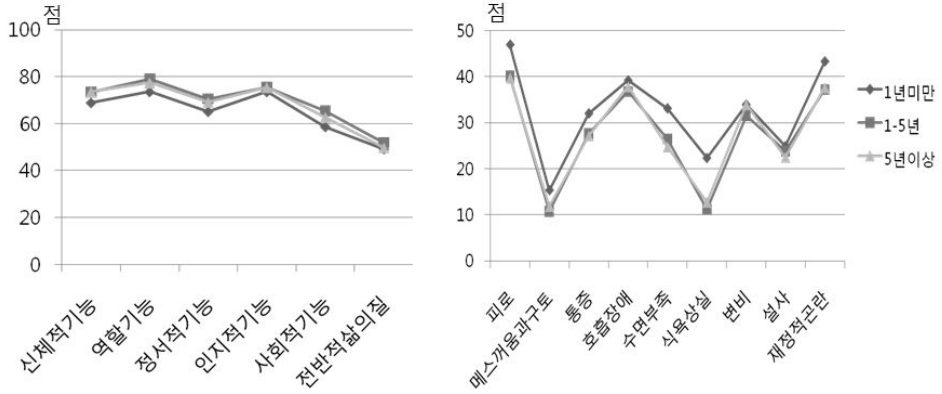
## 암환자의 생존기간별 삶의 질, 우울, 사회적 지지

암환자의 생존기간별 삶의 질은 모든 영역에서 1년 미만의 군이 가장 삶의 질이 나빴고, 1~5년 사이군과 5년 이상 군의 삶의 질은 비슷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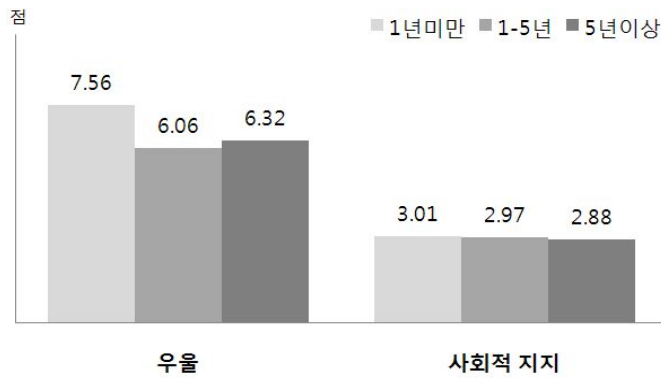
암환자의 우울 정도에서는 1년 미만의 군이 가장 우울 정도가 심하고, 다음으로 5년 이상, 1~5년 사이의 순서로 우울 정도가 심했음.

암환자의 사회적 지지 정도에서는 1년 미만의 군이 가장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는 것으로 자각하고 있으며, 1~5년 사이, 5년 이상의 순서로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고 있음.

### 생존기간별 삶의 질



### 생존기간별 우울, 사회적 지지



출처) 환자보고 성과지표 및 관리체계 개발, 국립암센터 2009

주) Adjusted for 성, 나이, 학력, 결혼상태, 종교, 의료보험, seer병기, 임상시험경험, 동반질환

## 암종, 병기, 동반질환, 사회적지지, 통증, 신체적 기능에 따른 우울

암환자의 우울과 관련된 정서장애가 발생할 위험은 위암에 비해 자궁경부암(1.779배), 폐암(0.803배), 대장암(0.795배), 유방암(0.753배), 간암(0.592배)의 순서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한 수준은 아님.

병기 수준에 따른 결과에서는 in situ에 비해 regional 2.469배, distant 2.025배, local 1.780배의 순으로 위험이 높았고, unknown은 0.992배로 우울 발생 위험이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는 regional에서만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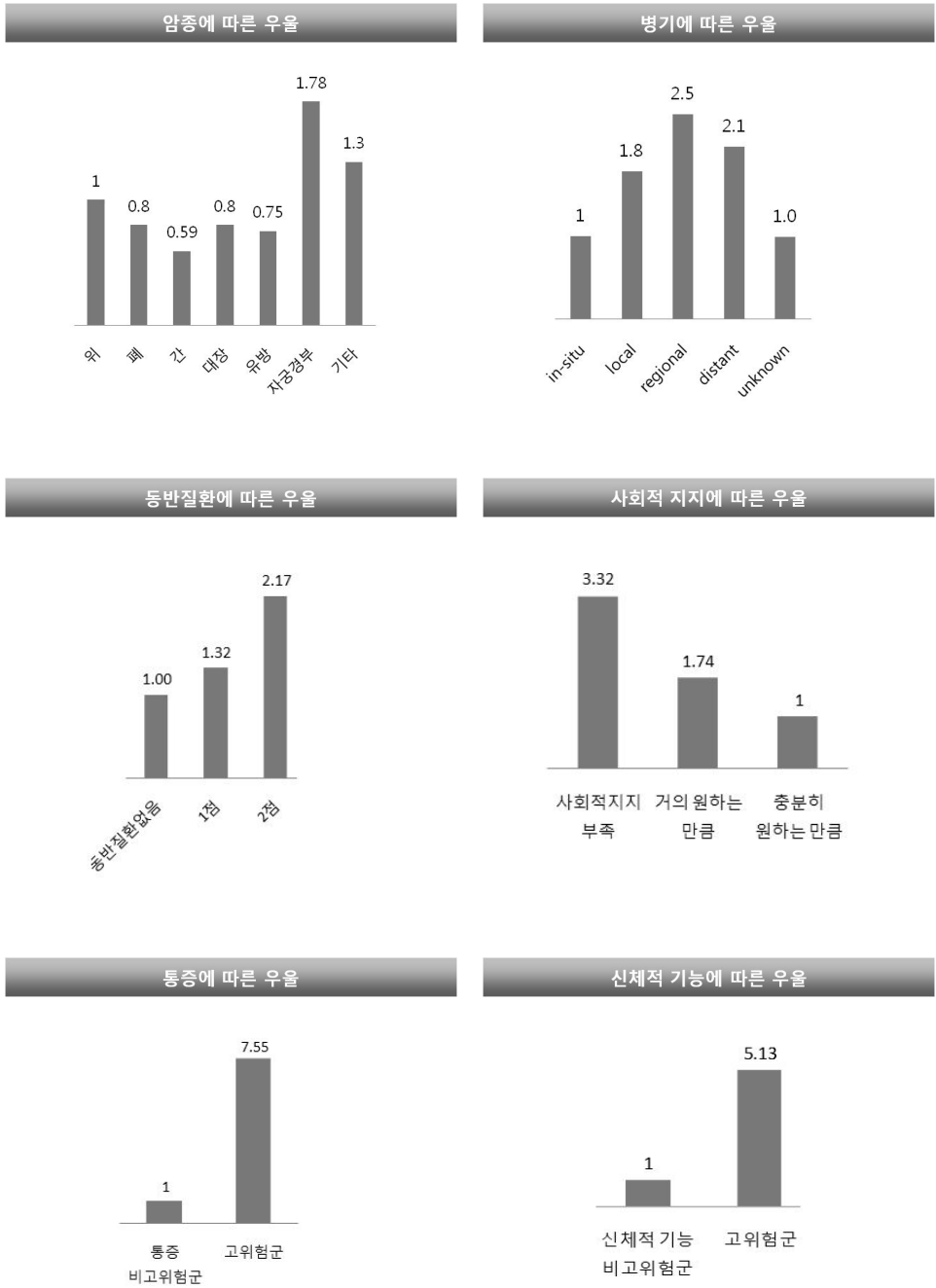
동반질환이 없는 경우에 비해서 동반질환 점수가 2점인 경우, 2.173배로 우울 발생 위험이 유의하게 높아졌음.

원하는 만큼 충분히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는 경우에 비해, 거의 원하는 만큼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경우가 1.744배, 사회적 지지가 부족하다는 경우가 3.315배로 우울이 발생할 위험이 2배로 유의하게 높아졌음.

암환자의 통증정도가 장애에 해당할 정도로 심한 고위험군의 우울 위험이 상대적으로 통증을 낮게 호소한 군에 비해 7.552배나 매우 유의하게 높았음.

암환자의 신체적 기능상태가 장애에 해당할 정도로 불편한 고위험군의 우울 위험은 상대적으로 기능을 수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군에 비해 5.129배의 높은 우울 발생 위험으로 나타났고, 유의한 수치였음.

### 4.3 암환자 요구도 및 경험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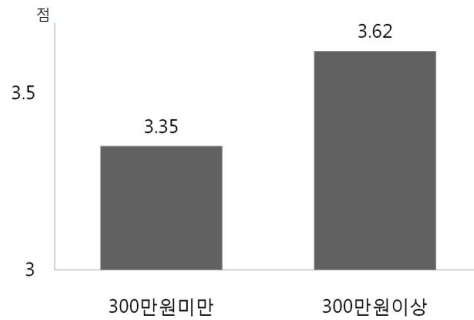
출처) 환자보고 성과지표 및 관리체계 개발, 국립암센터 2009

## 암환자 소득별, 병기별 사회적지지

암환자의 월 평균 소득 300만원 미만의 경우, 300만원 이상인 환자보다 사회적 지지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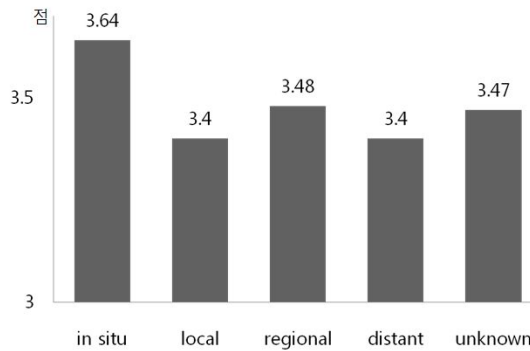
암환자의 병기의 수준별로 사회적 지지의 정도를 비교해 볼 때, in situ에 비해 local과 distant가 사회적 지지가 환자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소득별 사회적 지지점수



\* adjusted for 성, 나이, 교육, 결혼상태, 동거 가족 수, 종교, 암종, seer 병기, 동반질환  
 \* adjusted p < 0.0001

병기별 사회적 지지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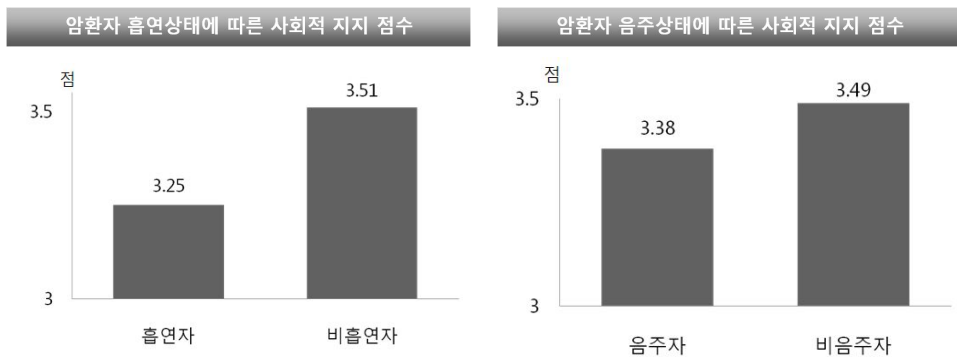
\* adjusted for 성, 나이, 교육, 결혼상태, 동거 가족 수, 의료보험, 종교, 암종, 동반질환  
 \* adjusted p : in situ 기준으로 local의 p값 = 0.0271, distant의 p값 = 0.0381

출처) 환자보고 성과지표 및 관리체계 개발, 국립암센터 2009

## 암환자 흡연·음주 상태에 따른 사회적지지

암환자 중 비흡연자가 흡연자보다 높은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음.

암환자의 음주여부별로 사회적 지지의 정도를 분석한 결과, 비음주자가 음주자보다 사회적 지지의 점수가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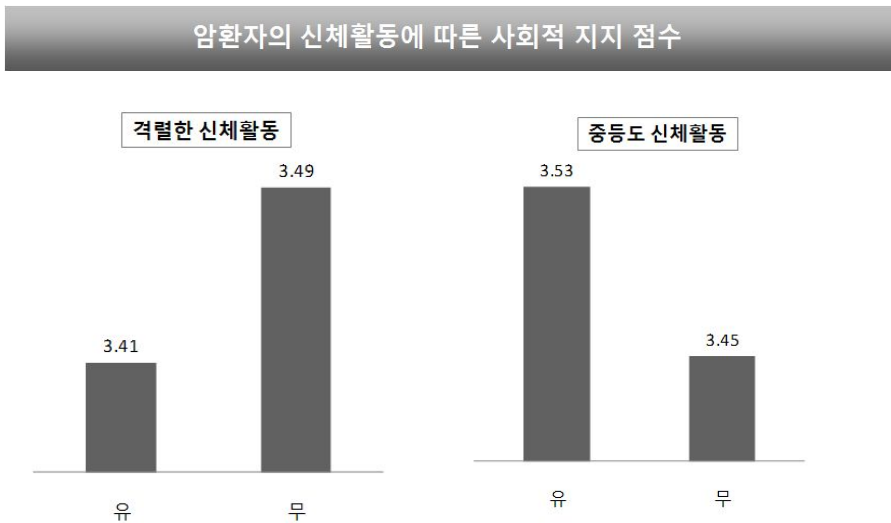
\* adjusted for 성, 나이, 교육, 결혼상태, 동거 가족 수, 건강보험, 종교, 암종, 병기, 동반질환  
\* adjusted p = 0.0033

출처) 환자보고 성과지표 및 관리체계 개발, 국립암센터 2009

## 암환자 신체활동에 따른 사회적지지

최근 1주일 동안 중증도 신체활동을 실시한 경험이 있는 암환자의 경우, 사회적 지지의 점수가 높게 나타남.

중등도 신체활동의 예는 천천히 하는 수영, 복식테니스, 배드민턴, 배구, 탁구 등이며, 격렬한 신체활동의 예는 달리기(조깅), 등산, 빠른 자전거 타기, 빠른 수영, 농구, 스쿼시 등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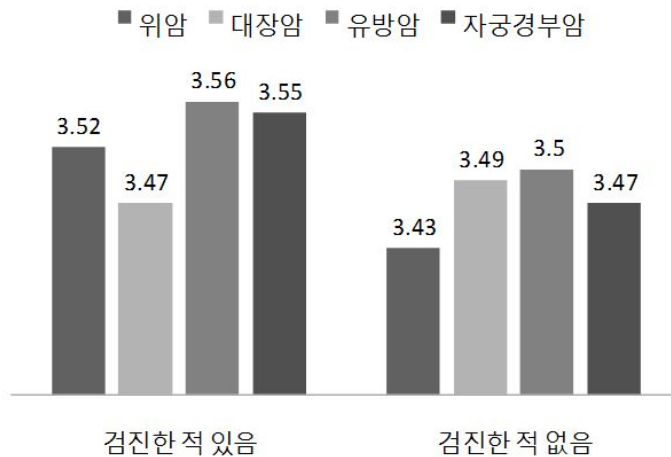
\* adjusted for 성, 나이, 교육, 결혼상태, 동거 가족 수, 건강보험, 종교, 암종, 병기, 동반질환

출처) 환자보고 성과지표 및 관리체계 개발, 국립암센터 2009

## 암환자 암검진 경험에 따른 사회적지지

암환자의 2차 암 예방을 위한 암 검진 경험의 경우, 위암, 유방암, 자궁암의 2차 암 검진을 받은 경험이 있는 암환자가 검진 미수검자에 비해 높은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었음. 대장암 2차 검진의 경우에만 검진 미수검자가 오히려 사회적 지지가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암환자의 2차 암검진 실천별 사회적 지지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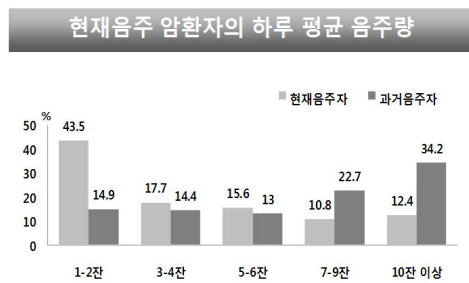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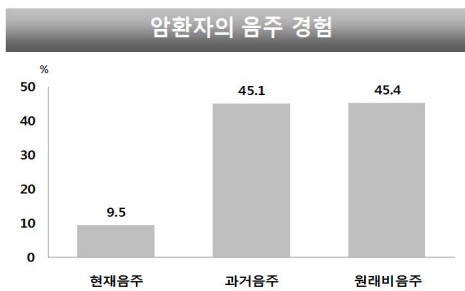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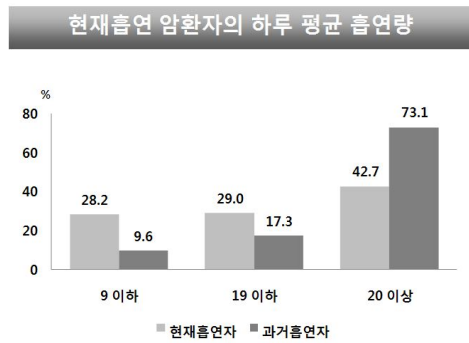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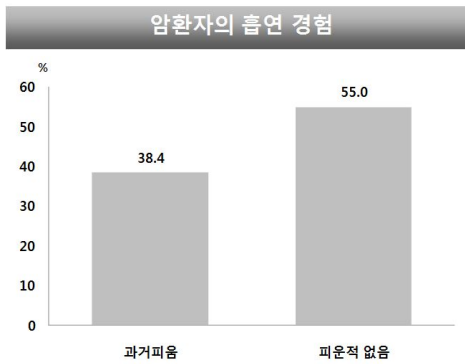
출처) 환자보고 성과지표 및 관리체계 개발, 국립암센터 2009

## 암환자의 흡연·음주 현황

암환자의 흡연경험을 살펴보면, 전체 암환자 중 6.7%만이 현재도 흡연을 하고 있으며, 38.4%는 과거에 흡연 경험이 있고, 55.0%는 전혀 흡연했던 경험이 없음. 암환자들의 현재 또는 과거의 하루 평균 흡연량을 살펴보면, 과거 흡연자의 73.1%가 20개비 이상, 17.3%가 19개비 이하, 9.6%가 9개비 이하로, 20개비 이상의 흡연자가 월등히 많았으나, 현재 흡연자의 경우, 42.7%가 20개비 이상, 29%가 19개비 이하, 28.2%가 9개비 이하로 흡연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암진단 이후, 전반적으로 흡연량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음.

암환자의 음주 경험을 살펴보면, 전체 암환자 중 9.5%만이 현재 음주하고 있으며, 45.1%는 과거에 음주했다고 응답했고, 45.4%는 전혀 음주하지 않았음. 암환자들의 현재 또는 과거의 하루 평균 음주량을 살펴보면, 과거 음주자의 경우, 34.2%가 10잔 이상을 음주했다고 응답했으나, 현재 음주자의 경우 43.5%가 1~2잔을 마신다고 응답함으로써 암진단 후, 음주량의 감소가 확연히 나타남.

제4부 암진단·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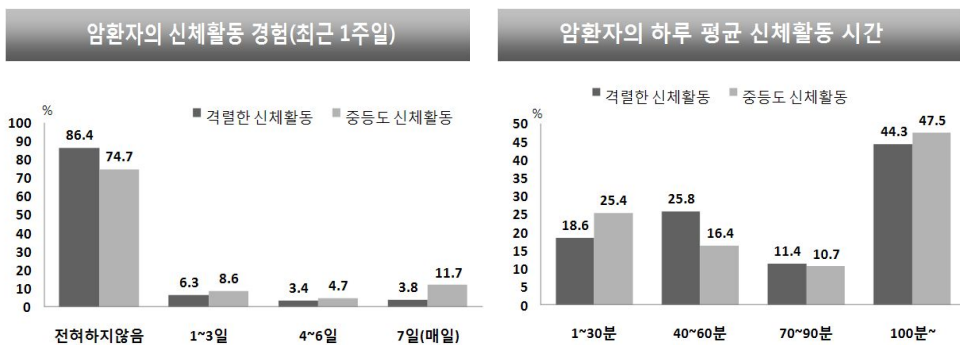
출처) 환자보고 성과지표 및 관리체계 개발, 국립암센터 2009

- 주) 1. 전체 조사 대상자 1,958명 중, 131명의 현재 흡연자, 751명의 과거 흡연자 대상
- 주) 2. 전체 조사 대상자 1,958명 중, 186명 현재 음주자, 883명의 과거 음주자 대상

## 암환자의 신체활동

암환자의 신체활동에 대해 살펴본 결과, 격렬한 신체활동에 대해서 86.4%, 중등도 신체활동에 대해서 74.7%가 전혀 하지 않는다고 응답함. 한편, 중등도 신체활동에 대해서 11.7%가 매일, 8.6%가 1~3일, 3.4%가 4~6일 한다고 응답했으며, 격렬한 신체활동에 대해서 6.3%가 1~3일, 3.8%가 매일, 3.4%가 4~6일 한다고 응답함.

격렬한 신체활동을 한다고 응답한 환자의 경우, 하루 평균 신체 활동 시간을 살펴본 결과, 44.3%가 100분 이상이라고 응답했으며, 25.8%가 40~60분, 18.6%가 30분 이내, 11.4%가 70~90분이라고 응답함. 중등도 신체활동을 한다고 응답한 환자의 경우, 하루 평균 신체 활동 시간에 대해 47.5%가 100분 이상이라고 응답했으며, 25.4%가 30분 이내, 16.4%가 40~60분, 10.7%가 70~90분이라고 응답함.



출처) 환자보고 성과지표 및 관리체계 개발, 국립암센터 2009

## 암환자의 2차 암검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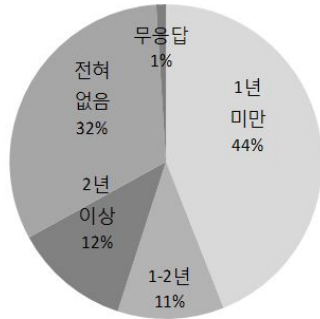
암환자의 2차 암 예방을 위한 위암 검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암환자의 44%가 1년 이내 검진을 했다고 응답했으며, 마지막으로 위암 검진을 한 경험이 1~2년 사이가 11%, 2년 이상이 12%이며, 이차적 위암 검진을 전혀 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환자도 32%였음.

암환자의 2차 암예방을 위한 대장암 검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암환자의 42%가 1년 이내 검진을 했다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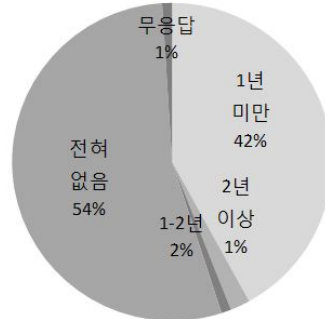
유방암 검진 실태를 비혜당(남성이나 유방 절제술 시행한 환자)자를 제외하고 조사한 결과, 암환자의 43.4%가 1년 이내 검진을 했다고 응답했으며, 마지막으로 유방암 검진을 한 경험이 1~2년 사이가 10.1%, 2년 이상이 10.8%이며, 이차적 유방암 검진을 전혀 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환자가 23.5%였음.

자궁암 검진 실태를 비혜당(남성이나 자궁 적출술 시행한 환자)자를 제외하고 조사한 결과, 암환자의 44.3%가 1년 이내 검진을 했다고 응답했으며, 마지막으로 자궁암 검진을 한 경험이 1~2년 사이가 12.1%, 2년 이상이 13.1%이며, 이차적 자궁암 검진을 전혀 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환자가 24.9%였음.

위암 2차 검진과 대장암 2차 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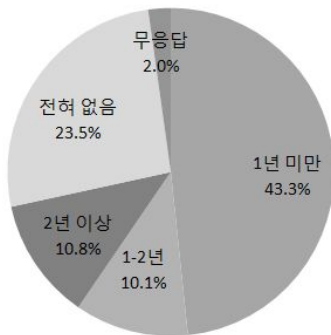


위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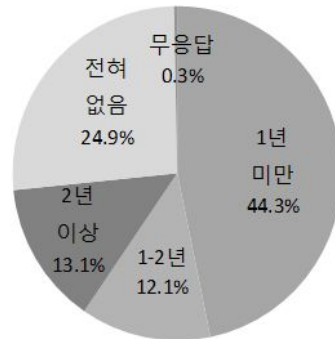


대장암

유방암 2차 검진과 자궁암 2차 검진



유방암



자궁암

출처) 환자보고 성과지표 및 관리체계 개발, 국립암센터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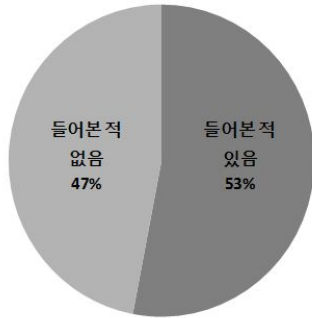
## 암환자의 임상시험에 대한 경험

암환자의 53%가 임상시험에 대해 들어본 경험이 있으며, 47%가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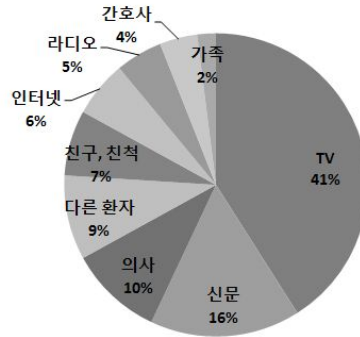
임상시험에 대해 들어본 경로(중복응답)로는 41%가 TV라고 응답했고, 16%가 신문, 10%가 의사, 7%가 친구나 친척 순이었음.

임상시험에 대해 권유 받은 경험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93%가 권유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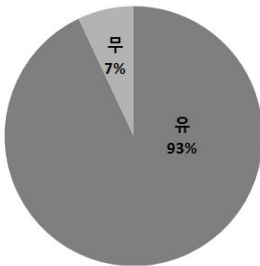
암환자의 임상시험에 대한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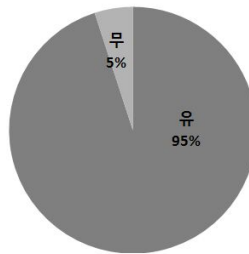
들어본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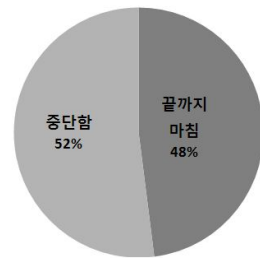
들어본 경로



권유받은 경험



참여 경험



참여 후 중단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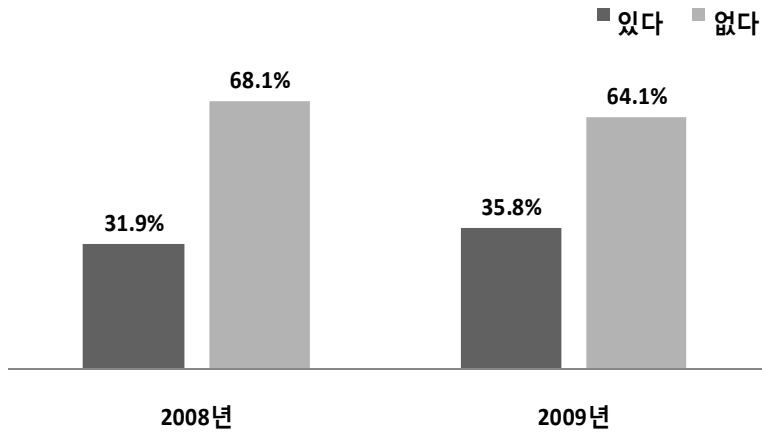
출처) 환자보고 성과지표 및 관리체계 개발, 국립암센터 2009

## 암환자의 동반질환 관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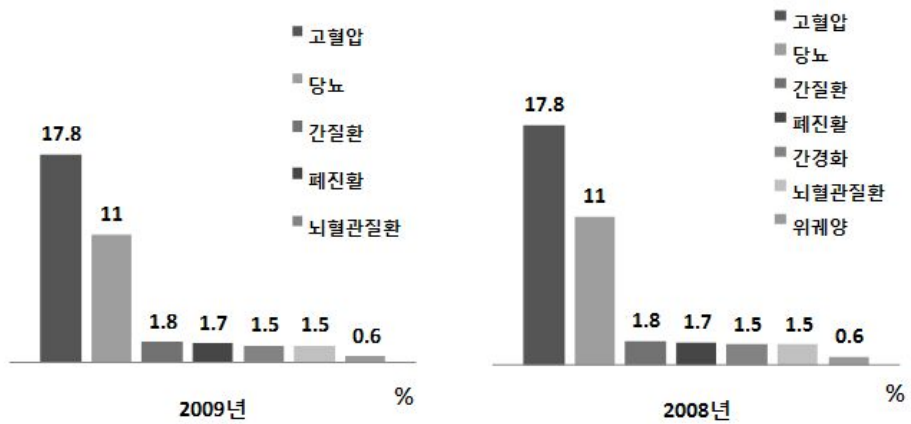
암환자의 동반질환에 대해 조사한 결과 2008년에는 동반질환이 있는 환자가 31.9%, 동반질환이 없는 환자가 68.1%였으며, 2009년에는 동반질환이 있는 환자가 35.8%, 동반질환이 없는 환자가 64.1%였음.

암환자에게 다발 동반질환을 상위 7순위까지 알아본 결과, 2008년에는 고혈압(10.6%), 당뇨(9.4%), 간질환(3.7%), 폐질환(2.1%), 간경화(1.6%), 뇌혈관질환(1.3%), 위궤양(1.3%)였음. 2009년에는 고혈압(17.8%), 당뇨(11.0%), 간질환(1.7%), 뇌혈관질환(1.5%), 위궤양(1.5%), 급성심근경색(0.6%)였음.

### 암환자의 동반질환



### 암환자의 동반질환 다발 7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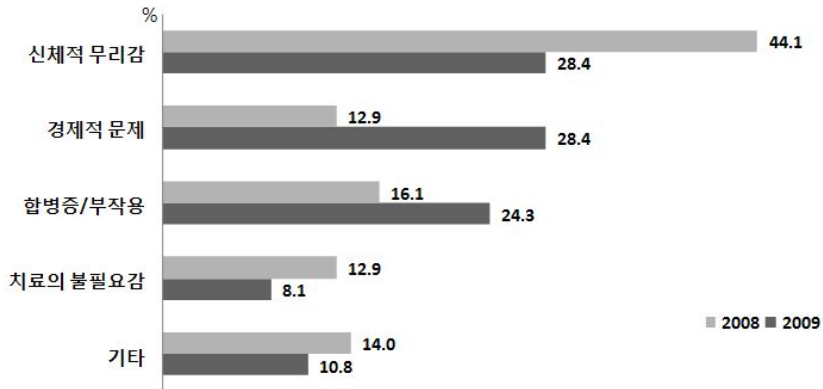
출처) 환자보고 성과지표 및 관리체계 개발, 국립암센터 2009

## 암환자의 치료순응과 서비스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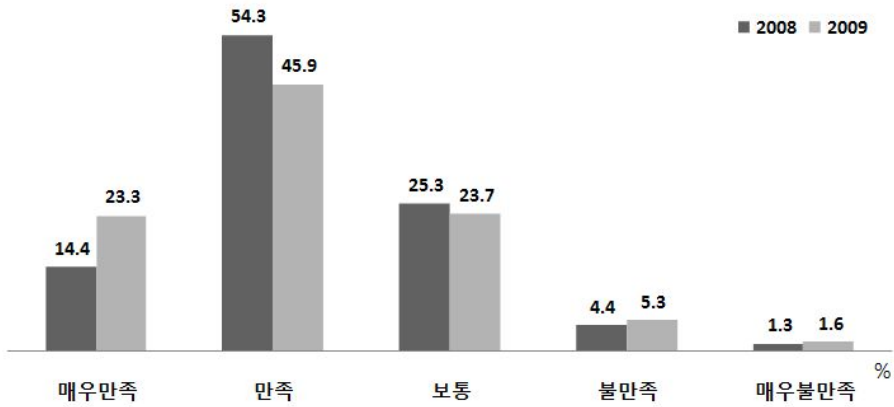
암환자가 의사가 권유한 치료 중 일부를 받지 않은 이유를 조사한 결과, 2008년에는 28.4%가 신체적 무리감과 경제적 문제를 꼽았고, 24.5%가 합병/부작용, 8.1%가 치료의 불필요감, 10.8%의 기타가 있었음. 2009년에는 44.1%가 신체적 무리감을 얘기해 2008년에 비해 월등히 높아졌으며, 12.9%가 경제적 문제, 16.1%가 합병증/부작용이었고, 12.9%가 치료의 불필요감, 14.0%가 기타로 응답하였음.

암환자의 치료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2008년에는 매우만족 14.4%, 만족 54.3%, 보통 25.3%, 불만족 4.4%, 매우불만족 1.3%였고, 2009년에는 매우만족 23.3%, 만족 54.3%, 보통 23.7%, 불만족 5.3%, 매우불만족 1.6%로 나타나 환자들의 치료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전년도에 비해 높아짐.

의사가 원유한 치료 중 일부를 받지 않은 이유



암환자의 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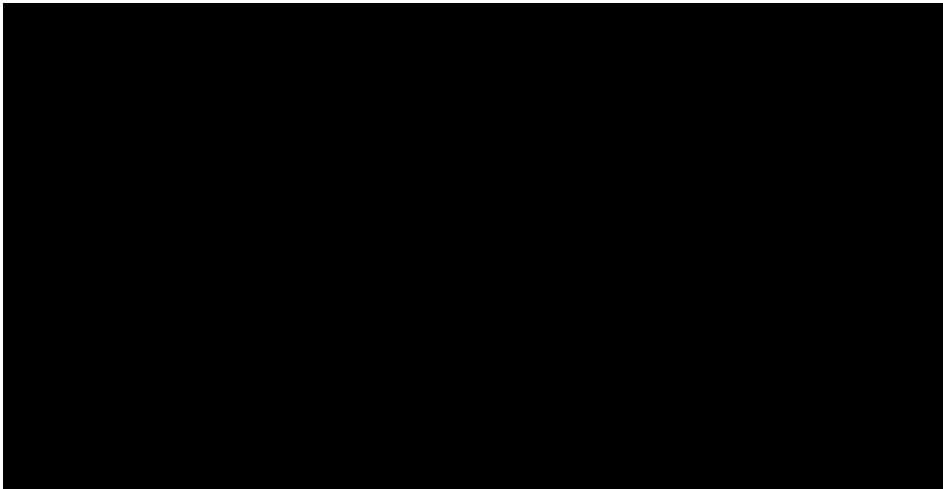


출처) 환자보고 성과지표 및 관리체계 개발, 국립암센터 2009

## 4.4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은 2002년 소아·아동, 2005년 성인대상으로 지원이 시작되어, 건강보험가입자 중 보험료 부과기준이 하위 50% 이하인 국가 암조기검진을 통한 암 발견자, 의료급여수급을 받는 암환자, 폐암환자(의료수습권자 및 건강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액 기준하위 50% 이하), 만 18세 미만의 소아암환자(의료급여수급권자 및 환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기준이 본 사업이 정한기준에 적합한 자) 등을 지원하고 있음.

###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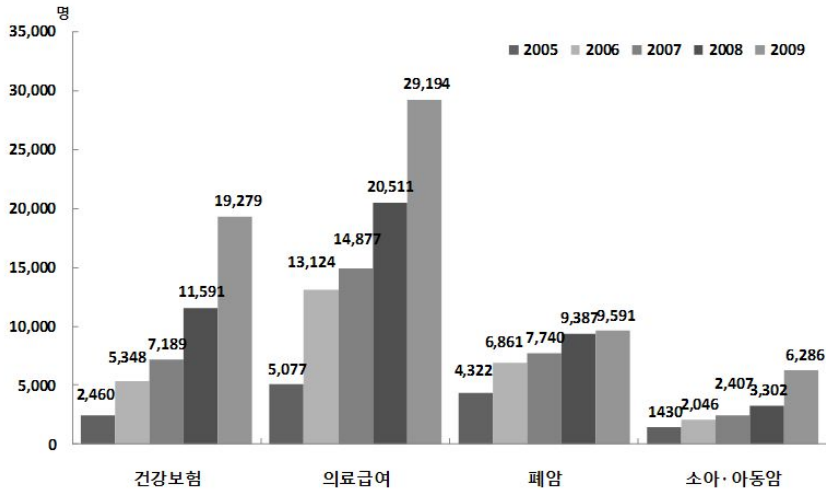
출처) 국립암센터, 2009

##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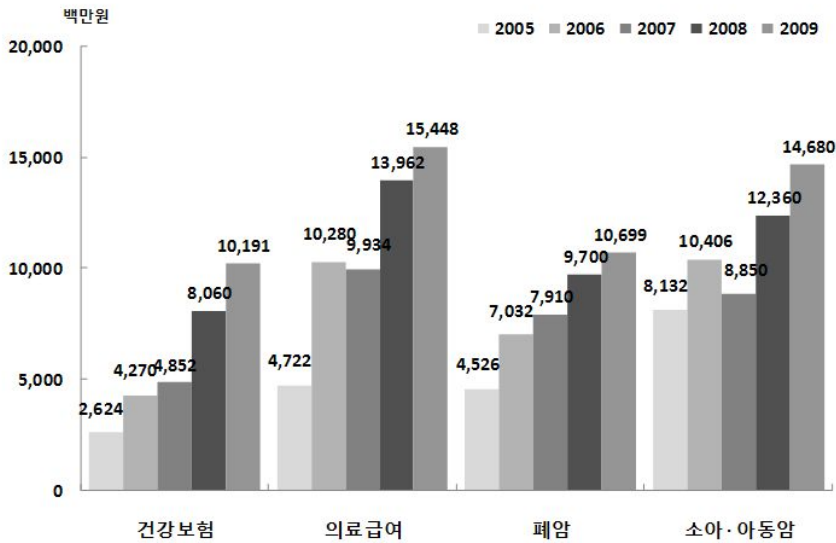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의 수혜자수는 건강보험가입자는 2005년 2,460명에서 2009년 19,279명, 의료급여수급자는 2005년 5,077명에서 2009년 29,194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폐암, 소아아동암의 의료비 수혜자수도 증가 추세임.

암환자 의료비지원금액은 건강보험가입자는 2005년 2,624백만원에서 2009년 10,191백만원, 폐암은 2005년 4,526백만원에서 2009년 10,699백만원, 소아아동암은 2005년 8,132백만원에서 2009년 14,680백만원로 증가하였고, 의료급여수급자는 2005년 4,722백만원에서 2009년 15,448백만원으로 현격한 증가를 보였음.

###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실적 (지원자수)



###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실적 (지원금액)



출처) 국립암센터, 2009

##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수혜자 만족도조사

(1) 조사대상: 2009년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수혜자 600명

- 대상자

	건강보험	의료급여	폐암	소아암	계
명	135	270	60	135	600
%	22.5	45.0	10.0	22.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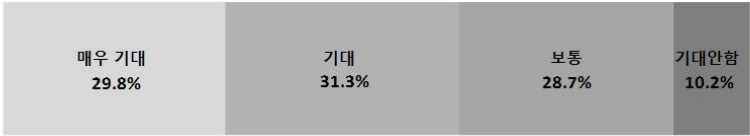
(2) 조사방법: 전화설문조사

(3) 조사기관: 국가암관리사업단 (2009. 11. 14 ~ 11. 15(5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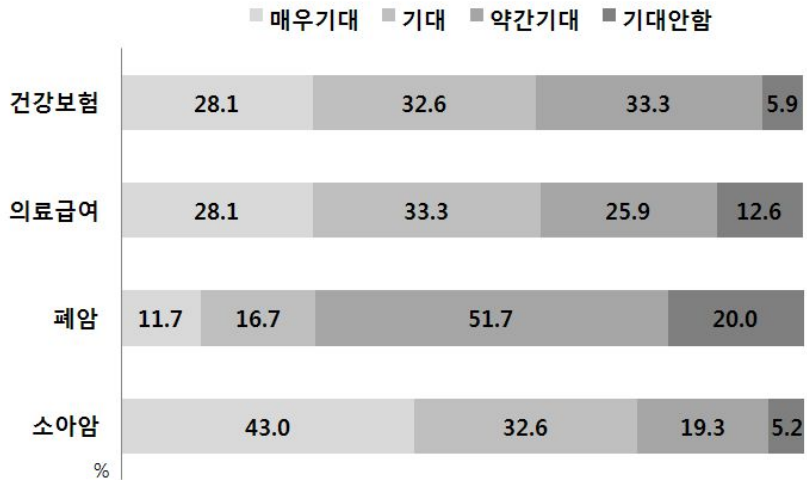
## 지원금액에 대한 기대 정도

2009년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수혜자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의료비 지원금액이 암치료비 부담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 매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 응답자는 29.8%였으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 응답자는 31.3%, 약간의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자는 28.7%였으며,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는 응답자는 10.2%에 불과하였음.

의료비 지원금액이 암치료비 부담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대상자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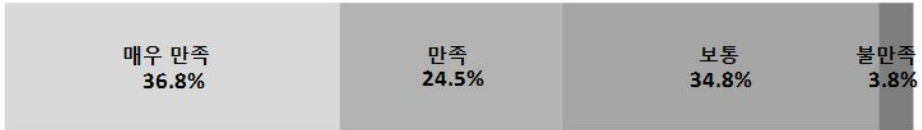
출처) 국립암센터 2009

## 지원금액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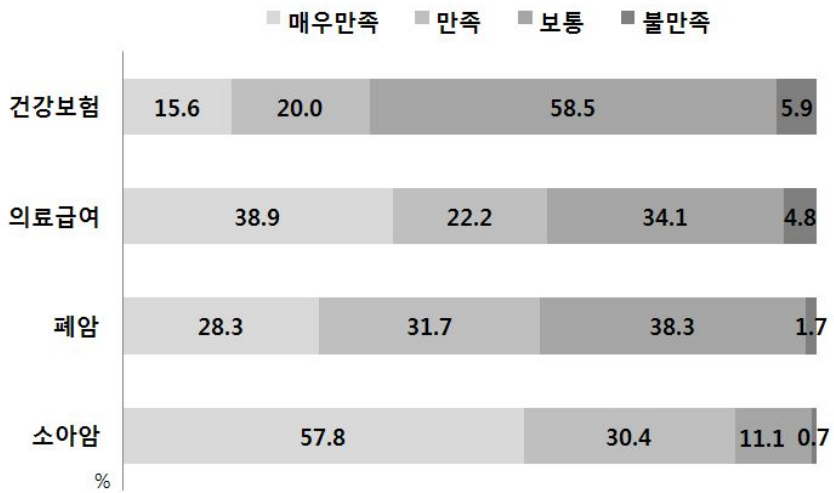
2009년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수혜자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실제로 지원받은 금액이 암치료비 부담에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36.8%였으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3.8%에 불과하였음.

대장자별로는 소아암환자의 88.2%가 암치료비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여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의료급여 61.1%, 폐암환자 60.0%, 건강보험 가입자의 35.6%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음.

당신은 지원받은 금액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대상자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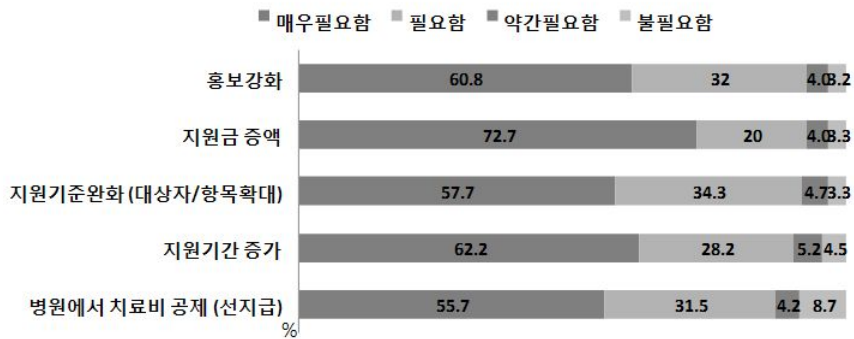


출처) 국립암센터 2009

## 의료비 지원사업의 개선사항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의 개선사항으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원기준 완화(대상자/항목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92.0%, 지원기간 증가 90.4%, 지원금액 증액 92.7%, 의료비지원사업 홍보 강화 92.8%, 병원에서 치료비 공제(선지급) 87.2% 이었음.

### 의료비 지원사업의 개선이 필요한 정도



출처) 국립암센터 2009

**제5부. 완화의료  
/암생존자 관리**

## 5.1 완화의료

### 암성 통증관리 현황 및 암통증 조절과 관련된 의사의 경험

2000년 의사인 경우 3차 의료기관을 포함한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암학회 회원과 가정의학회 회원 중 전문의로, 실질적으로 암환자 진료에 임하는 의료인 801명, 간호사는 3차 의료기관을 포함한 7개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임상간호사 1,20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심한 암성통증조절에 대한 의료인의 태도로서, 심한 암성통증을 호소했을 때 강한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하는 의사의 비율은 16.5%였음. 또한 부적절한 통증관리를 받고 있는 암환자는 56%로 전체 암환자 중 44% 만이 적절한 통증관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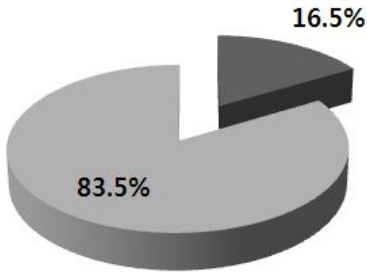
암통증 조절과 관련된 의사의 경험으로 통증평가척도사용(VAS & NRS)의 경우 1차 진료의가 10.8%, 암전문의가 44.0%였고, WHO 3단계 진통제사 다리의 경우 1차 진료의가 10.9%, 암전문의가 59.1%였음. 암성통증환자의 진료경험은 1차 진료의가 8.8%, 암전문의가 78.5%였음.

암성 통증관리 현황

심한 암성 통증에서 강한 마약성  
진통제 선택 의사 비율 : 1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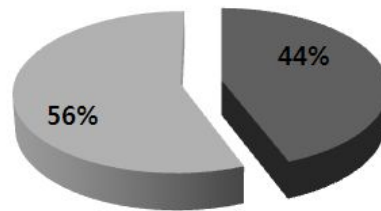
적절한 통증관리를 받고 있는  
암환자의 비율 : 44%

심한 암성 통증조절에 대한 의료인의 태도



■ 처방 ■ 처방안함

부적절한 통증관리의 비율



■ 적절 ■ 부적절

출처) 국립암센터 2006

암통증조절과 관련된 의사의 경험

구분	1차 진료의 (n=379)	암전문의 (n=150)
통증평가척도사용 (VAS & NRS)	10.8%	44.0%
WHO 3단계 진통제 사다리	10.9%	59.1%
암성통증환자의 진료경험	8.8%	78.5%

출처) 윤영호 외, 가정의학회지 2005

## 호스피스완화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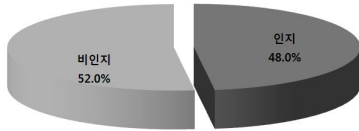
2004년 2월 24~25일, 2000년 인구센서스 자료를 기초로 16개 시도의 20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유효표본 1,055명)으로 전화면접조사 실시함.

무의미한 치료의 중단에 대해 48.0%가 들어본 적이 있었고, 생명연장치료가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치료일 경우 환자의 죽음을 최대한 늦추는 것에 대해 84.0%가 무의미한 치료라면 중단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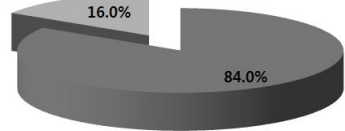
환자의 이상적인 임종장소로 응답자의 과반수(55.0%) 이상이 자택을 선택했으며, 다음으로는 병원(28.0%), 호스피스기관(8.0%), 요양원(7.0%) 순이었고, 환자들이 희망하는 임종장소로는 자택이 41.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이 병원 23.9%, 호스피스기관 16.8% 순이었음. 가족들이 희망하는 임종장소로는 병원 43.4%, 자택 30.3%, 호스피스기관 19.7% 순임.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지 않음'이 27.8%로 가장 높았고, '가족이나 의미 있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 26.0%, '주변정리가 마무리 된 것' 17.4% 순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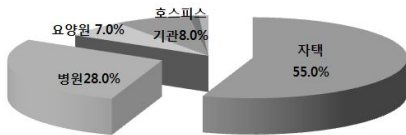
무의미한 치료의 중단 인지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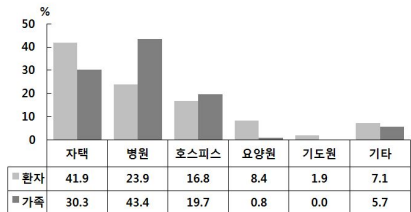
무의미한 생명연장치료에 대한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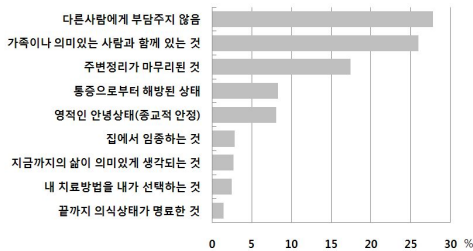
환자의 이상적인 임종장소에 대한 견해



환자 및 가족들이 희망하는 임종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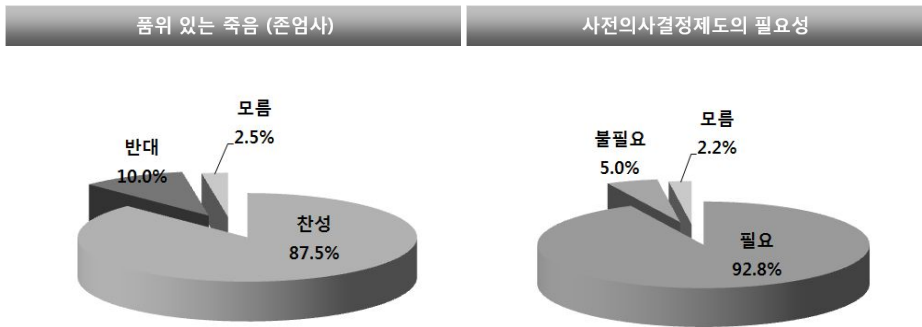
품위있는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한 견해



출처) 윤영호 외, 2004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지  
 주) 16개 시도의 20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질병, 연령별, 시도별 연구분포에 의한 횡단적 연구설계의 동질하게 대상자를 추출

## 품위 있는 죽음과 사전의사결정제도에 대한 국민의 의견

2008년 9월 9~19일까지 전국 만20~69세 성인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한 결과,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해 87.5%가 찬성의 의견을 보였고, 사전의사결정서제도<sup>31)</sup>에 대해 대상자의 92.8%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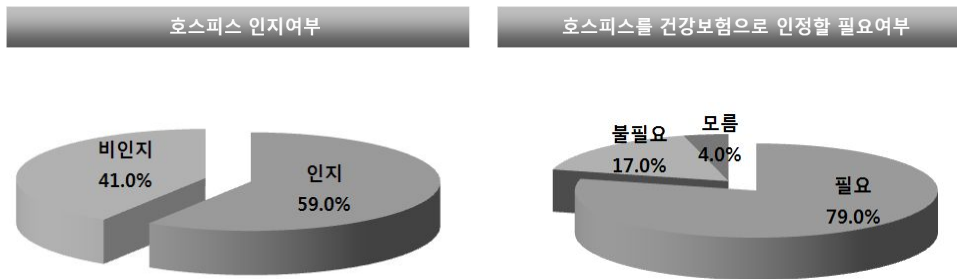


출처) 윤영호 외, 품위있는 죽음에 대한 대국민인식조사 국립암센터 2008

31) 사전의사결정서제도: 환자가 의식을 잃어버려 스스로 치료를 선택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 본인에게 행해질 치료에 대해 환자의 의견을 미리 서면으로 작성하여 치료결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

## 호스피스 인지도 및 건강보험 인정 필요성

2004년 2월 24~25일 동안 2000년 인구센서스 자료를 기초로 16개 시도의 20세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유효표본 1,055명) 전화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호스피스 인지도는 59.0%였고,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에 대해 79.0%가 건강보험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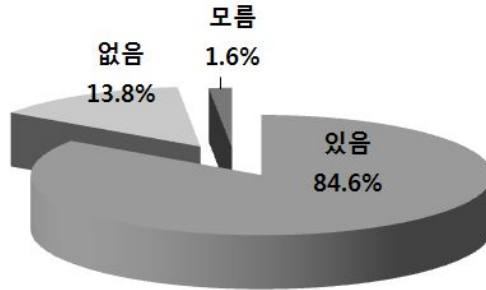
출처) 윤영호 외, 2004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지

주) 16개 시도의 20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성별, 연령별, 시도별 인구분포에 의한 할당추출 인구구성비와 동일하게 대상자를 추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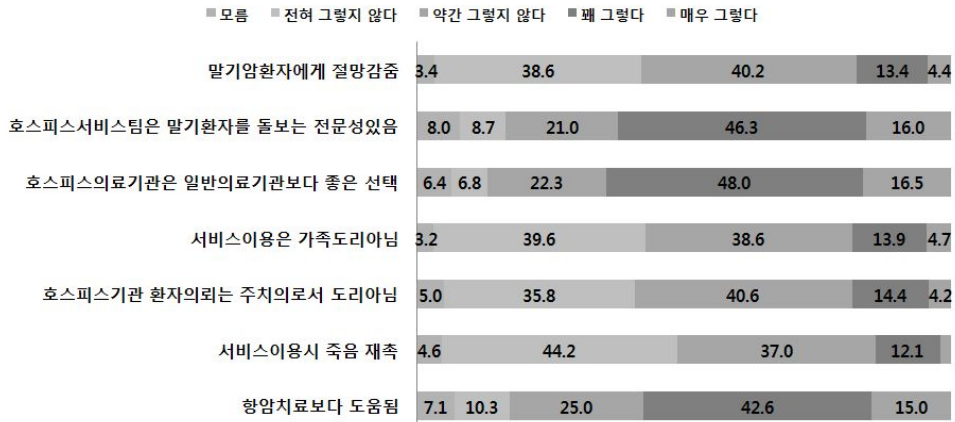
## 호스피스 이용의향 및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2008년 9월 9~19일까지 전국 만20~69세 성인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한 결과,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에 대해 84.6%가 이용의향이 있다는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고,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에 대한 의견으로 '가족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다'라는 의견에 '그렇지 않다'가 87.2%, '의사로서의 도리가 아니다'라는 의견에 '그렇지 않다'가 76.4%, '죽음을 더 재촉 한다'라는 의견에 '그렇지 않다'가 81.2%, '적극적인 항암치료보다 더 도움된다'는 의견에는 57.7%가 '그렇다'라고 응답함.

### 호스피스 이용의향



###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에 대한 의견



출처)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대국민인식조사, 국립암센터 2008

## 완화의료 서비스관련 자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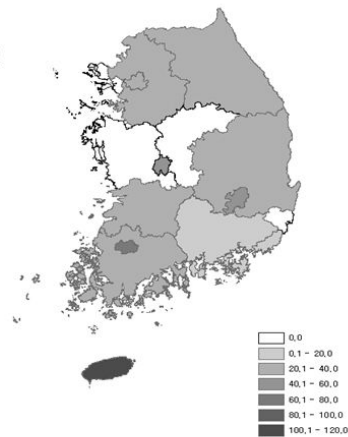
2008년 암환자완화의료기관 사망비율이 낮은 지역은 인천, 충남, 울산, 부산이며, 2009년 34개 지정기관의 100만명당 50병상기준 충족률이 낮은 지역은 인천, 충북, 충남, 울산임.

2010년 40개 암환자완화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경기 7곳, 서울 6곳, 대구 6곳 등이 있음.

### 지역별 완화의료 병상수 충족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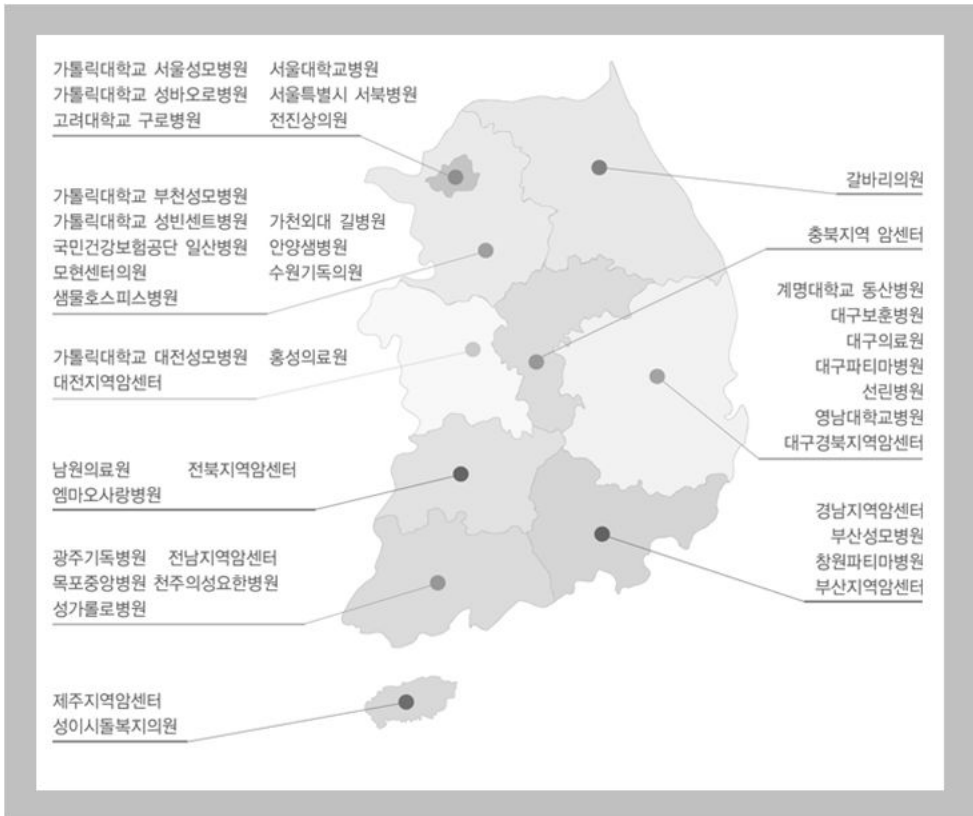
말기암환자 암환자완화의료기관 사망비율  
(2008년)



100만명 당 50병상 기준 충족률  
(2009년 34개 지정기관)

출처) 암환자완화의료사업 활성화지원, 국립암센터 2009

40개 암환자 완화의료기관 선정 (2010년)



출처) 암환자완화의료사업 활성화지원, 국립암센터 2010

## 40개 암환자 완화의료기관 병상수 현황

	지 역	기 관	병 상 수
1	서울	전진상의원	10
2		고려대 구로병원	13
3		서울대학교병원	27
4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29
5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	11
6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16
7	부산	부산성모병원	13
8		부산지역암센터	14
9	대구	대구의료원	14
10		대구 파티마병원	14
11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16
12		대구경북지역암센터	12
13		영남대학교병원	16
14		대구보훈병원	11
15	대전	대전지역암센터	13
16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22
17	광주	광주기독병원	23
18	인천	천주의성요한의원	26
19		가천의대 길병원	16
20	경기	모현센터의원	15
21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12
22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12
23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12
24		샘물호스피스병원	30
25		샘안양병원	16
26		수원기독의원	16
27		강원	갈바리의원
28	충남	홍성의료원	10
29	충북	충북지역암센터	10
30	전북	엠마오사랑병원	10
31		전북지역암센터	10
32		남원의료원	11
33	전남	목포중앙병원	8
34		전남지역암센터	12
35		순천성가롤로병원	10
36	경북	선린병원	33
37	경남	창원파티마병원	12
38	제주	경남지역암센터	11
39		성이시돌복지의원	28
40		제주지역암센터	6
합 계			616

출처) 암환자완화의료사업 활성화지원, 국립암센터 2010

## 2009년도 암환자완화의료기관 이용 현황

2009년 완화의료기관을 이용한 환자는 총 5,818명으로, 기관별로 적게는 38명에서 많게는 436명까지 다양하였음.

암종별 분포를 살펴보면 폐암이 1,057명(18.2%)으로 가장 많았고, 위암 975명(16.8%), 간암 561명(9.6%), 대장암 503명(8.7%) 순으로 나타났음.

말기암 진단서 또는 소견서 구비 현황을 살펴보면, 의사 2인 이상의 진단서를 구비한 경우는 2,656명(45.7%)이었으며, 의사 1인의 진단서만 구비한 경우가 2,246(38.6%)명, 구비하지 않았다는 경우도 917명(15.7%)으로 나타났음.

2009년 완화의료기관을 이용한 환자의 암병식과 말기암병식은 각각 3,380명(87.4%), 2,594명(67.1%)으로 보호자의 암병식, 말기암병식인 3,829(99.0%), 3,684(95.3%)인 것과 비교하여 낮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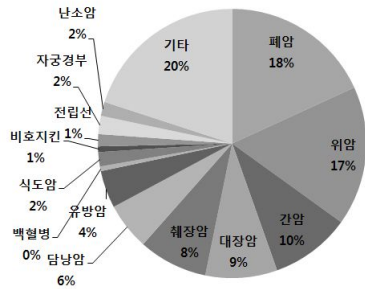
2009년 완화의료기관을 이용한 환자의 입원 경로를 보면, 전체적으로 공식적인 의뢰 없이 환자가 직접 방문한 경우가 1,837명(47.5%)으로 가장 많았고, 동일의료기관내 일반병실로부터 의뢰 906명(23.4%), 타 일반의료기관/병동으로부터 의뢰 365명(9.4%)의 순이었음.

첫 번째 입원시 사망퇴원환자가 2,574명(73.2%)으로 반복해서 입원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으며, 세 번 이상 입원하는 환자는 전체 환자의 3% 정도에 불과하였음. 또한, 입원이 반복됨에 따라 사망으로 인한 퇴원비율은 점차 감소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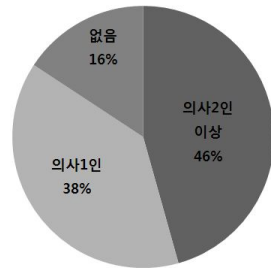
첫 입원시의 퇴원이유로는 사망이 2,574명(73.2%)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정상퇴원 490명(13.9%), 타일반의료기관으로전원 157명(4.5%) 순으로 나타났음.

제5부 완화의료/암생존자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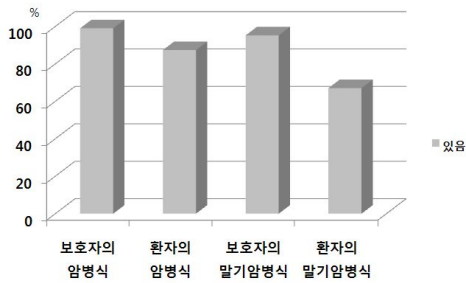
암종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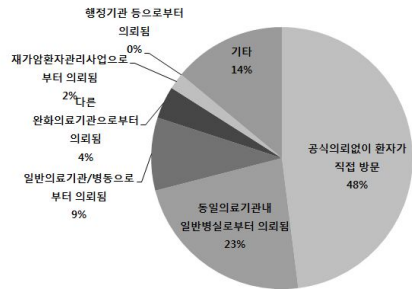
말기암 진단서 구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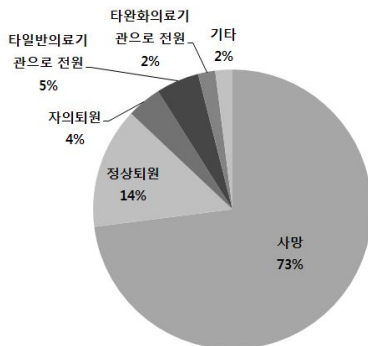
말기암환자와 보호자의 암병식과 말기암병식



말기암환자의 입원경로



첫 입원시 퇴원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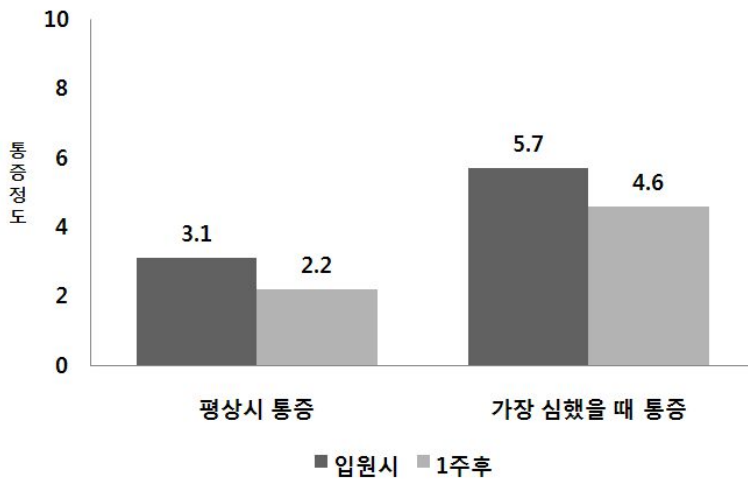


출처) 국립암센터 2009

## 완화의료기관 이용자의 입원 및 1주 후의 통증변화

완화의료 기관 첫 입원 1주 후 통증 정도는 평균시 통증이 3.1에서 2.2로 감소, 가장 심했을 때의 통증이 5.7에서 4.6으로 감소하였음. 이후의 입원에서도 완화의료 기관 입원 후에는 통증이 모두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음.

입원시 및 입원 1주 후의 통증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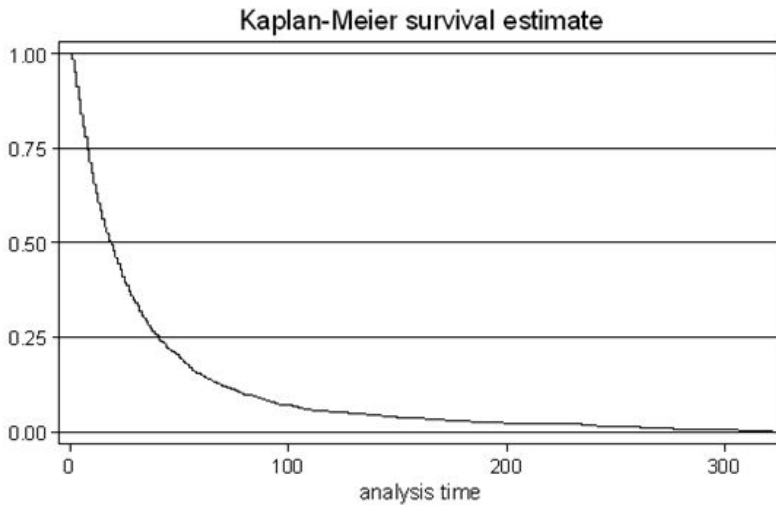
출처) 국립암센터 2009

## 완화의료기관 이용 후, 생존기간 및 평균재원일수

2009년 완화의료기관을 이용한 환자의 생존 분석결과, 완화의료 기관 등록 후 생존일은 평균 34.1일(표준오차 1.0), 중위수는 18일이었음.

2009년 완화의료기관을 이용한 환자의 재원일수는 평균 19.6일(표준편차 20.9)였고, 중위수는 13일이었음.

### 암환자완화의료기관 등록 후의 생존기간



출처) 국립암센터 2009

## 암환자완화의료기관 서비스 수혜자 만족도

### 1. 조사목적

암환자완화의료사업기관에서 완화의료 서비스를 받은 환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 2. 조사방법 및 내용

2009년 선정된 암환자완화의료사업 지원기관(34개소)에 입원한 환자로서 기관 등록 후 7일이 경과된 환자(개인정보제공 동의자로 한함)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해 통증조절, 직종별서비스, 교육, 시설에 대한 만족도, 홍보현황 등을 조사한 후 설문내용을 각 기관에서 말기암환자정보시스템(e-Velos)에 입력함. 수집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국립암센터에서 만족도를 분석함.

#### - 조사기간 및 조사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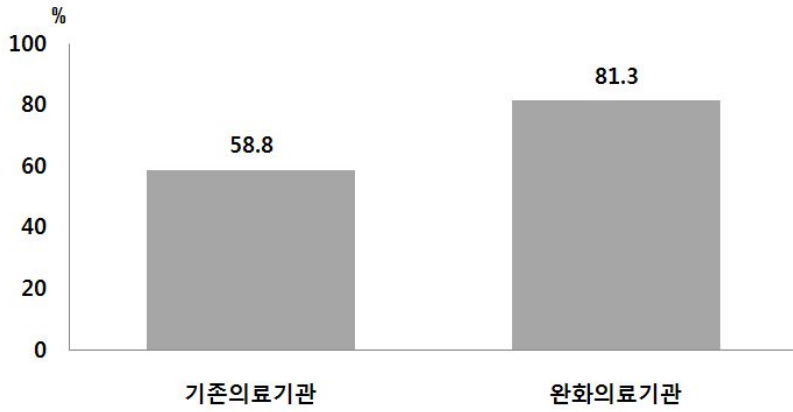
구 분	상반기	하반기
기 간	2009.6.1~6.14	2009. 11.2~11.15
조사자	132명	104명
만족도	71.2%	91.3%

## 전반적인 치료만족도 및 직종별 서비스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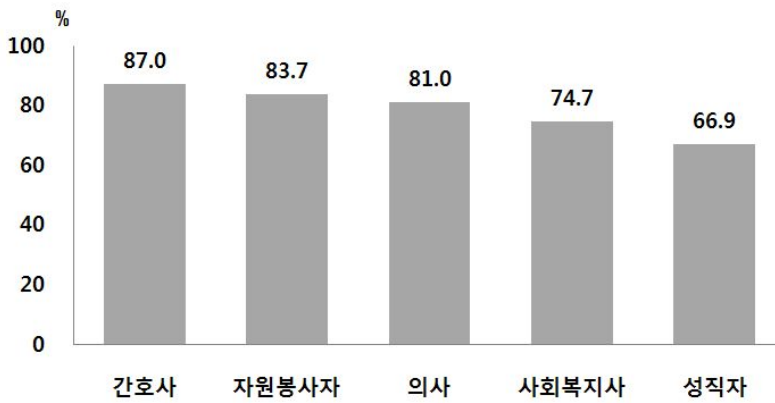
2009년 암환자완화의료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치료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기존의료기관에서 58.8%가 만족하였고, 암환자완화의료기관에서 81.3%가 만족한다고 응답해 완화의료서비스에 대해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였음.

직종별 서비스만족도에 대해서 간호사의 서비스에 대해 만족의 분포가 87.0%로 가장 높았고, 자원봉사자 83.7%, 의사 81.0%, 사회복지사 74.7%, 성직자 66.9% 순이었음.

전반적인 치료만족도 [2009년]



직종별 서비스 만족도 [20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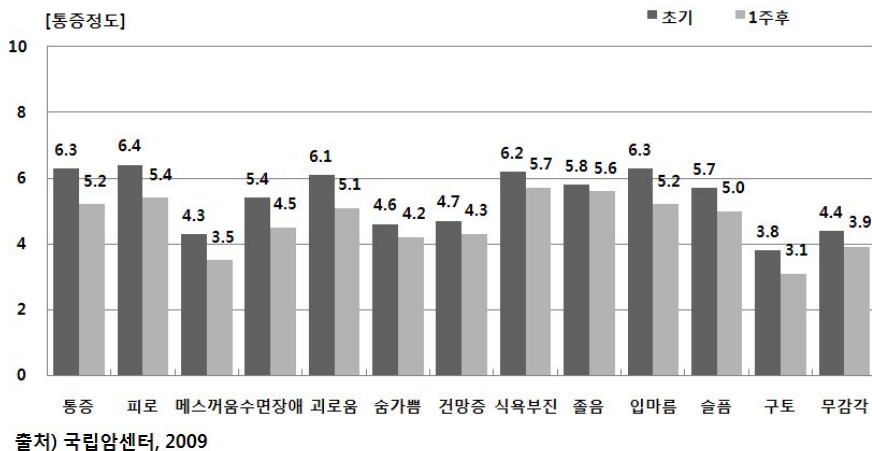


출처) 국립암센터 2009

## 여러 증상에 대한 변화

2009년 암환자완화의료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여러 증상에 대한 시점별 변화를 살펴보면, 초기 입원시 말기암환자의 가장 심했을 때의 통증평균이 6.3, 기관 이용 1주 후 평균이 5.2정도로 완화되었으며, 전반적으로 기타 증상들도 완화되었음.

환자의 여러 증상에 대한 시점별 변화 [20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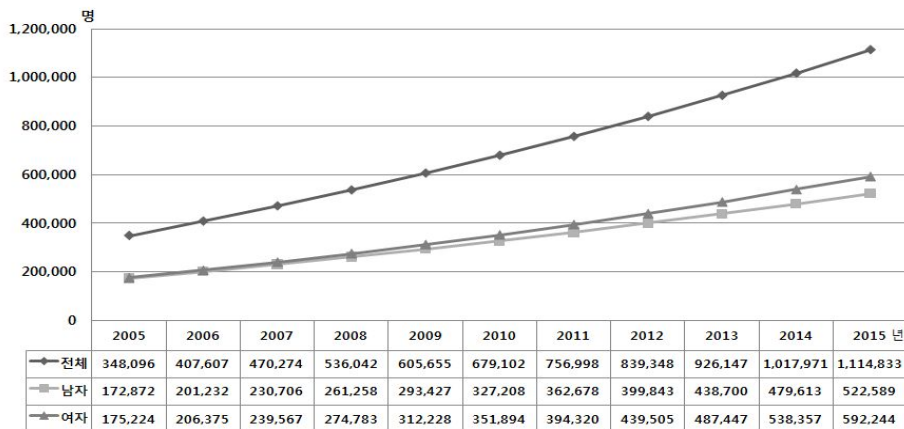
## 5.2 암생존자 관리

### 암생존자수 추계 및 미국의 암생존자 변화

암생존자수는 2005년 348,096명에서 2015년 1,114,833명으로 증가하고, 그 중 남자는 2005년 172,872명에서 2015년 522,589명, 여자는 2005년 175,224명에서 2015년 592,244명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인구수 대비 암생존자수는 2005년 0.72%에서 2015년 2.26%로 증가하고, 그 중 남자는 2005년 0.71%에서 2015년 2.12%, 여자는 2005년 0.73%에서 2015년 2.41%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미국의 암생존자수는 1971년 약 3백만명이었던 것이 2005년 1천만명을 넘어서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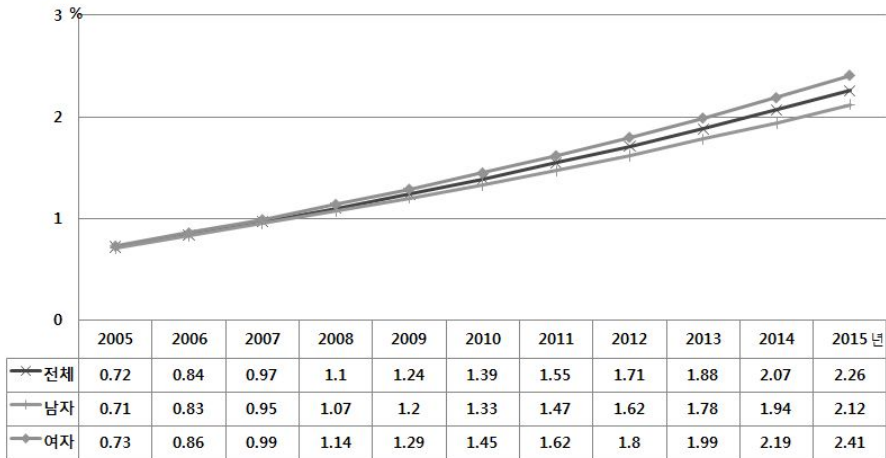
암생존자수 추계 [2005~2015년]



출처) 국립암센터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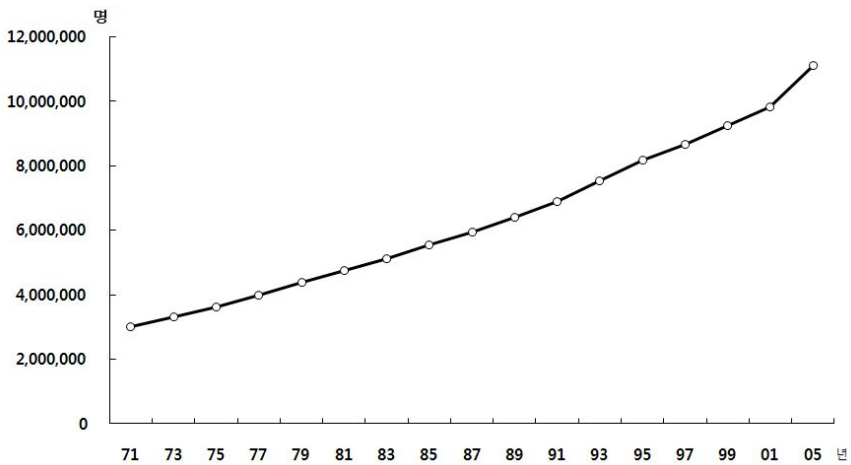
주) 암생존자-암을 경험한 모든 사람으로 현재 생존자

### 인구대비 암생존자수 추계 [2005~2015년]



출처) 국립암센터, 2007  
 주) 암생존자-암을 경험한 모든 현재 생존자

### 미국의 암생존자수 [1971~2005년]



출처) National Cancer Institute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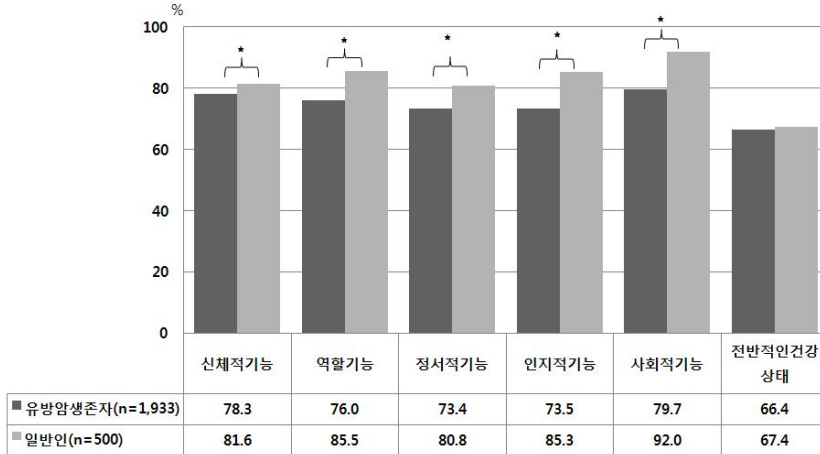
## 유방암생존자의 기능상태 및 증상별 삶의 질 비교

5개 대형병원에서 1993~2002년에 유방암으로 근치 절제술을 받은 10,796명 중 설문에 회신한 1,933명의 암생존자에 대해 분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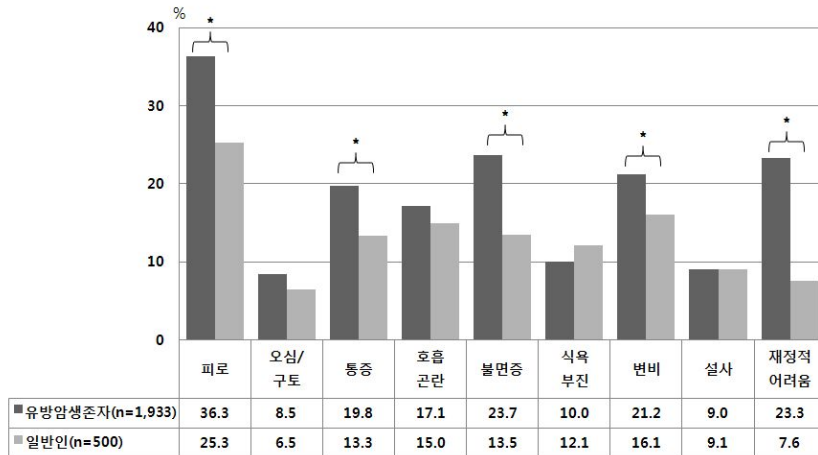
유방암생존자의 기능상태별 삶의 질을 일반인과 비교해본 결과, 유방암생존자가 일반인에 비해 신체, 역할, 정서, 인지, 사회적 기능상태 및 전반적인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낮았음.

유방암생존자의 증상별 삶의 질은 피로, 오심/구토, 통증, 호흡 곤란, 불면증, 변비의 각종 신체증상과 재정적 어려움에서 유방암생존자가 일반인보다 더 높았음.

### 유방암생존자와 일반인의 삶의 질(기능상태) 비교



### 유방암생존자와 일반인의 삶의 질(증상문제) 비교



출처) Ahn SH et al, Annals of Oncology 2007

- 주) 1. 암생존자: 암진단 후 완치를 목적으로 치료 후 재발, 전이 등이 없는 환자(무병 암생존자)  
 2. \*: P<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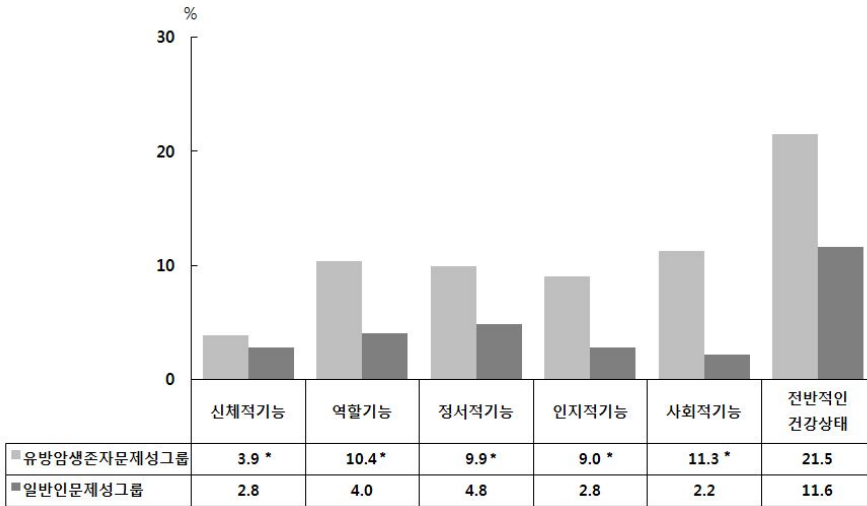
## 유방암생존자의 기능상태 및 증상별 문제성 그룹(%) 비교

5개 대형병원에서 1993~2002년에 유방암으로 근치 절제술을 받은 10,796명 중 설문에 회신한 1,933명의 암생존자에 대해 분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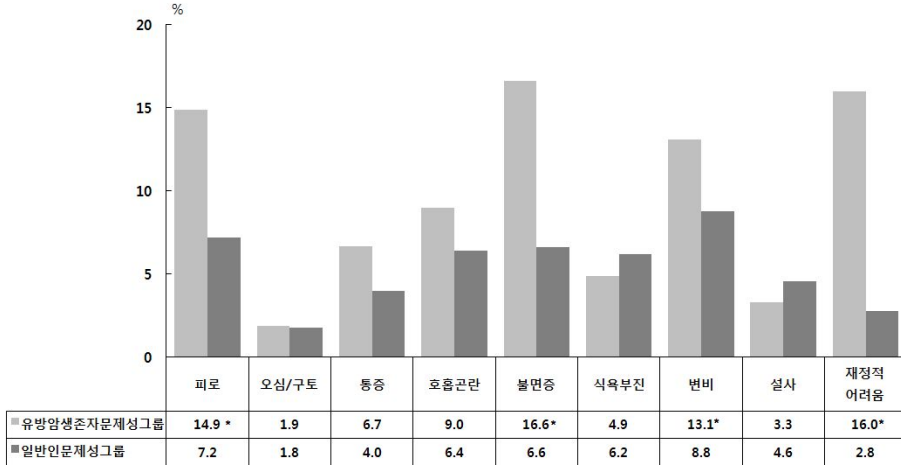
유방암생존자와 일반인의 기능상태별 삶의 질을 비교해본 결과, 유방암생존자가 일반인에 비해 신체, 역할, 정서, 인지, 사회적 기능상태 및 전반적인 삶의 질 모두에서 문제가 있는 비율이 더 높았음.

유방암생존자의 증상별 삶의 질은 일반인에 비해 피로, 통증, 호흡 곤란, 불면증, 변비의 각종 신체증상과 재정적 어려움에 대해 문제가 있는 비율이 더 높았음.

유방암생존자와 일반인의 기능상태 문제성 그룹(%) 비교



유방암생존자와 일반인의 증상에 대한 문제성 그룹(%) 비교



출처) Ahn SH et al, Annals of Oncology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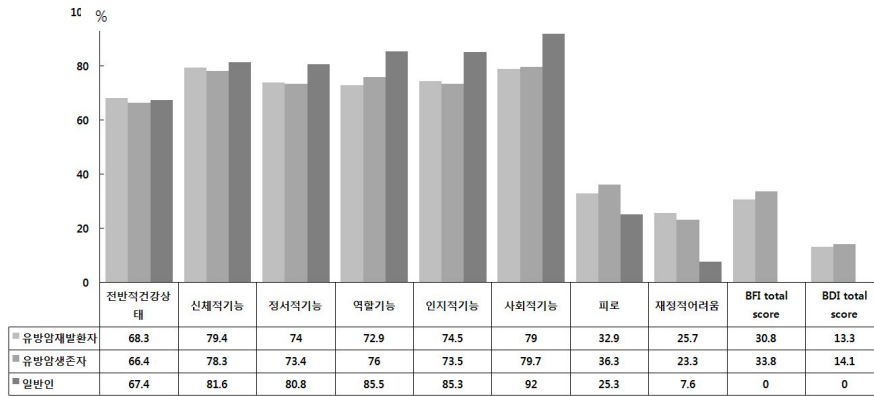
- 주) 1. 암생존자: 암진단 후 완치를 목적으로 치료 후 재발, 전이 등이 없는 환자(무병 암생존자)
- 2. \*: P<0.001

## 일반인, 치료를 마친 유방암 재발환자, 재발경험이 없는 유방암 생존자간의 삶의 질 비교

5개 대형병원에서 1993~2002년에 유방암으로 근치 절제술을 받은 10,796명 중 설문에 회신한 1,933명의 암생존자에 대해 분석함.

전반적인 건강상태에서 일반인과 비교해볼 때, 치료를 마친 유방암재발환자가 삶의 질이 다소 높았고 재발경험이 없는 유방암생존자는 낮았음. 유방암재발환자, 유방암생존자는 일반인과 비교해 신체적, 정서적, 역할, 인지적, 사회적 기능면에서 삶의 질이 낮았음.

일반인, 치료를 마친 유방암재발환자, 재발경험이 없는 유방암 생존자간의 삶의 질 비교



출처) Lee MK et al, Quality of Life Research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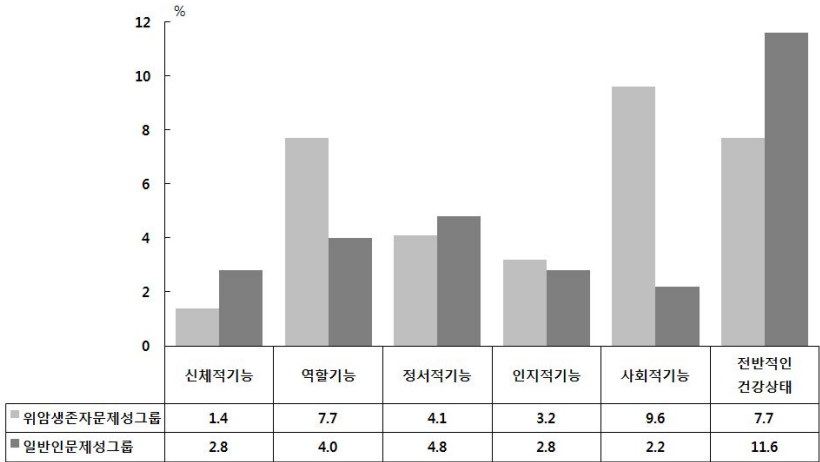
## 위암생존자의 삶의 질

2개 대형병원에서 2001~2002년까지 I~III기 위암을 진단받은 환자 855명 중 연구에 참여한 391명의 위암생존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분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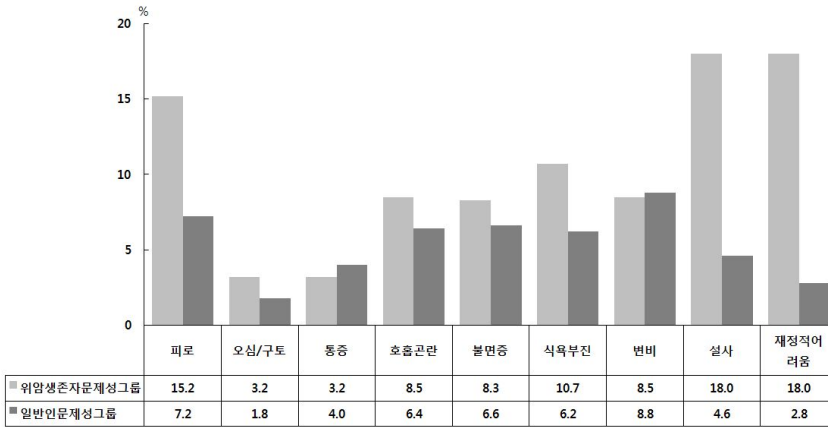
위암생존자의 기능상태별 삶의 질을 일반인과 비교해본 결과, 위암생존자가 일반인에 비해 역할, 인지, 사회적 기능상태에서 문제가 있는 비율이 더 높았음.

위암생존자의 증상별 삶의 질은 일반인에 비해 피로, 오심/구토, 호흡 곤란, 불면증, 식욕부진, 설사의 각종 신체증상과 재정적 어려움에서 문제가 있는 비율이 더 높았음.

위암생존자와 일반인의 기능상태 문제성 그룹(%) 비교



위암생존자와 일반인의 증상에 대한 문제성 그룹(%) 비교



출처: Bae JM et al, Quality of Life Research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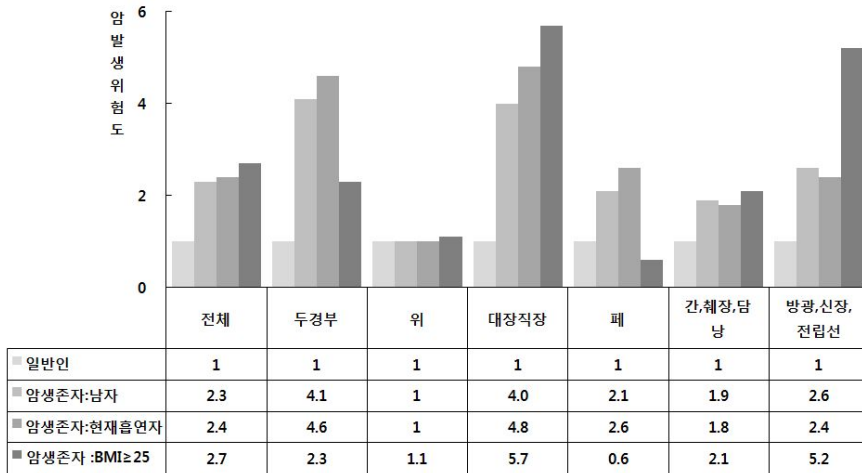
## 일반인과 남성 암생존자의 암발생위험도 비교

1996년부터 시작된 공교가입 901,971명의 남자 중 일차암을 가진 14,181명에 대한 후향적 cohort 204명의 이차암발생자의 위험요인 조사결과, 남자생존자는 일반인에 비하여 이차암발생위험이 2.3배 높았고 특히 흡연, 비만, 당뇨질환 등이 암생존자의 이차암발생위험을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밝혀졌음.

암종별로 보았을 때에도 남자 암환자에서 이차암이 발생할 위험은 일반인에서 암이 생길 위험에 비해 대장암 4.0배, 비뇨생식기암 2.6배, 폐암 2.1배, 간담도췌장암 1.9배 높음.

또한, 같은 흡연자나 비만인의 경우에도 일반인에 비해 암환자에서 새로운 암발생의 위험이 2배 이상 더 높았고, 특히 같은 흡연자라 하더라도 암생존자는 일반 흡연자에 비해 두경부암과 대장직장암은 4배 이상, 폐암과 비뇨생식기암은 2배 이상 발생할 위험이 높았고, 비만인 경우는 암생존자의 대장직장암과 비뇨생식기암의 발생 위험이 일반인에 비해 5배 이상 높았음.

## 일반인과 남성 암생존자의 암발생 위험도 비교



출처) Park SM et al, Journal of Clinical Oncology 2007

주) 이차암: 암생존자에서 암치료 이후에 원발 부위 암의 재발이 아니라 다른 부위에 새롭게 발생하는 암

## 남성 암생존자의 암발생 위험인자

1996년부터 시작된 공교가입 901,971명의 남자 중 일차암을 가진 14,181명에 대한 후향적 cohort 204명의 이차암발생자의 위험요인 조사결과, 50세 미만에서 암으로 진단된 환자에 비해 60세 이후에 암으로 진단된 환자는 이차암 발생위험도가 1.8배 높았고, 암종별 이차암 발생률은 위암 4.5배, 폐암 4.0배로 증가함. 흡연과 관련된 암을 모두 합쳤을 때에도 고령인 경우에는 2.2배 정도 암발생률이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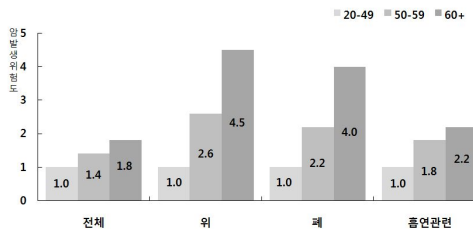
암생존자에서도 흡연은 이차암의 주요한 위험인자로, 암진단 전에 하루 1갑 이상 흡연을 하던 암환자는 비흡연 암환자에 비하여 이차암으로 폐암이 생길 위험이 3.7배, 흡연관련 암이 2배로 높았음.

암진단 전에 비만이나 당뇨병 등 만성병을 가지고 있던 암환자 역시 이들 질환이 없었던 환자들보다 이차암 발생 위험이 높았고, 암진단 전에 비만이었던 암환자(체질량지수가 25 이상)는 그렇지 않은 암환자에 비하여 이차암으로 대장암 3.5배, 비뇨생식기 관련 암은 3.6배 발생 위험이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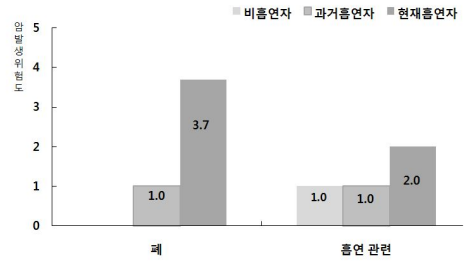
또한, 암진단 전에 공복 시 혈당이 126mg/dL 이상(당뇨병)이었던 암환자는 정상 혈당인 암환자에 비하여 이차로 간담도췌장암 3.3배 및 흡연관련 암 1.9배로 생길 위험이 높았음.

## 5.2 암생존자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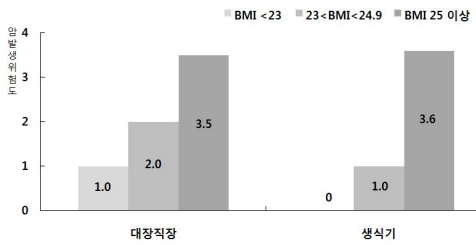
남성 암환자의 이차암 발생위험인자(II-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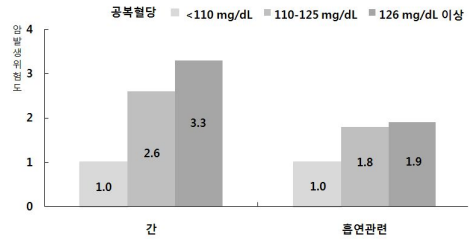
남성 암환자의 이차암 발생위험인자(II-2)



남성 암환자의 이차암 발생위험인자(II-3)



남성 암환자의 이차암 발생위험인자(II-4)



출처) Park SM et al, Journal of Clinical Oncology 2007

주) 이차암: 암생존자에서 암치료 이후에 원발 부위 암의 재발이 아니라 다른 부위에 새롭게 발생하는 암

## 이차암 검진에 관한 암생존자들의 행동·태도·지식 및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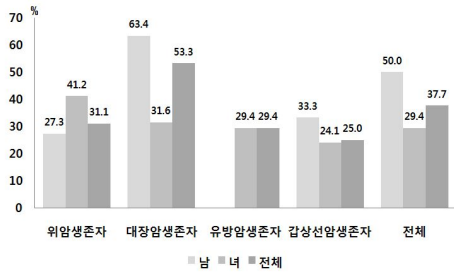
2개 대형병원에서 2009년 원발암 진단 후 1년 이상 경과한 무병 암생존자 32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무병암생존자 326명중 123명 (32.6%)만이 2년 안에 모든 필요한 이차암 검진을 받았다고 함.

대부분의 암생존자는 암환자도 다른 암에 대한 검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하였으며(99.1%), ‘스스로 또는 의사가 권유한다면 다른 암에 대한 검진을 받을 생각이 있다’라고 응답하여(각각 94.1% 와 97.9%) 이차암검진에 대한 태도가 매우 긍정적임을 알 수 있었음. 그리고 ‘다른 암에 대한 검진을 받으면 내 건강이 잘 관리되고 있다는 느낌이 더 들 것이다’(95.4%)와 ‘내가 다른 암에 대한 검진을 받는 것이 가족에게 좋을 것이다’(95.0%)라고 응답하여 검진의 이점을 인식하고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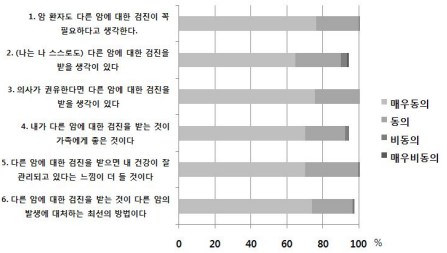
또한 ‘암을 한 번 겪은 사람에게도 다른 암이 생길 수 있다’(92.6%), ‘암환자의 경우 다른 암이 새로 생길 가능성이 일반인보다는 높다고 생각한다’(85.8%), ‘암환자도 최소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암 검진은 받아야 한다’(82.0%)라고 올바르게 생각하였으나, 상당수의 암생존자가 ‘병원에서 받은 피검사나 엑스레이 검사로 몸의 모든 이상을 알아낼 수 있다’(43.3%), ‘병원에서 하는 추적 검사들을 잘 받으면, 주기적인 암검진은 필요하지 않다’(41.7%)고 하여 이차암검진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은 낮음을 알 수 있었음.

대부분의 암생존자는 암환자를 위한 별도의 암검진 권고안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느끼고(92.0%) 있었으나 많은 암환자가 실제 의사로부터 암검진 권유를 받고 있지 않다(78.0%)고 응답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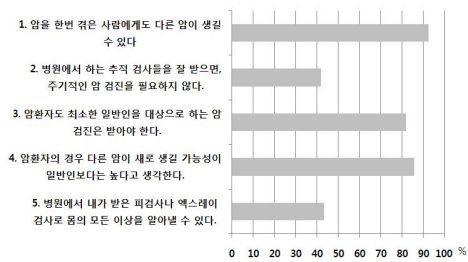
모든 이차암검진 수검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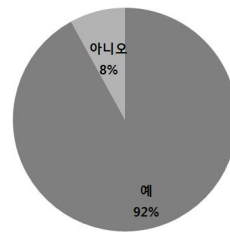
이차암 검진에 관한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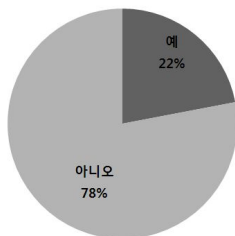
이차암 검진에 관한 지식



암환자를 위한 별도의 암검진 권고안 필요성



의사로부터 암검진 권유



출처) 신동욱 등, 기관고유연구사업, 국립암센터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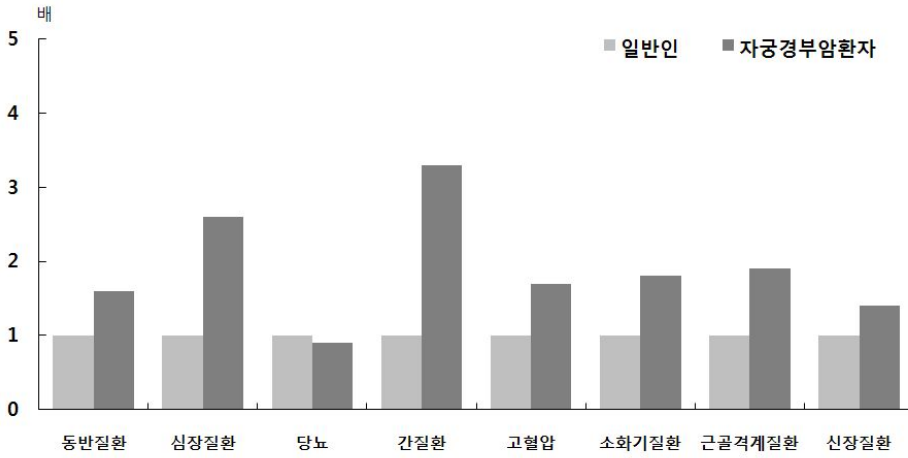
## 자궁경부암생존자의 동반질환

1983~2004년까지 진단받은 국내 6개병원의 자궁경부암환자 총 860명을 대상으로 동반질환의 유병여부 및 삶의 질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 일반인과 비교했을 때 자궁경부암생존자는 보유하고 있는 동반질환의 개수가 유의하게 높았음.

일반인과 자궁경부암 환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모두 보정한 이후에도, 동반질환을 하나라도 가지고 있을 확률은 1.62배(aOR=1.62)였고, 특정 질환 별로 보면 심장질환 2.64배(aOR=2.64), 간질환 3.29배(aOR=3.29), 고혈압 1.72배(aOR=1.72), 소화기질환 1.79배(aOR=1.79), 근골격질환이 1.94배(aOR=1.94) 등으로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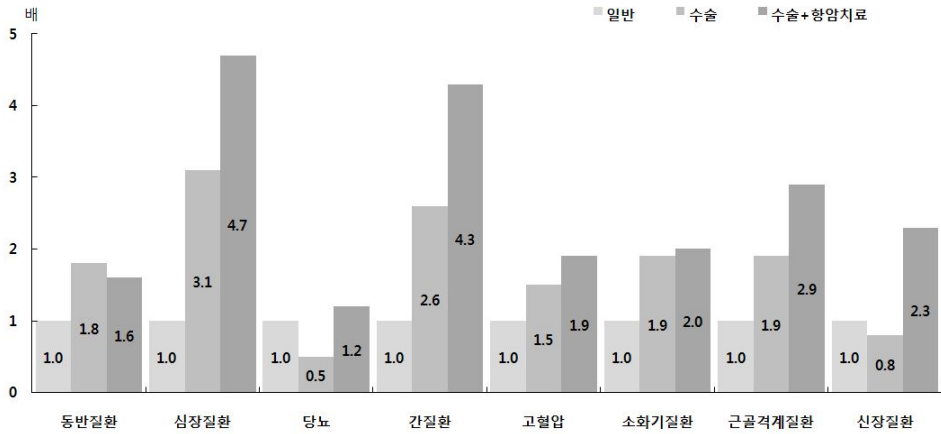
항암제 치료는 심장질환, 간질환, 고혈압, 소화기질환, 신장질환 등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었으며, 방사선 치료는 간질환 및 신장질환과 특히 관련이 컸음.

### 자궁경부암생존자의 동반질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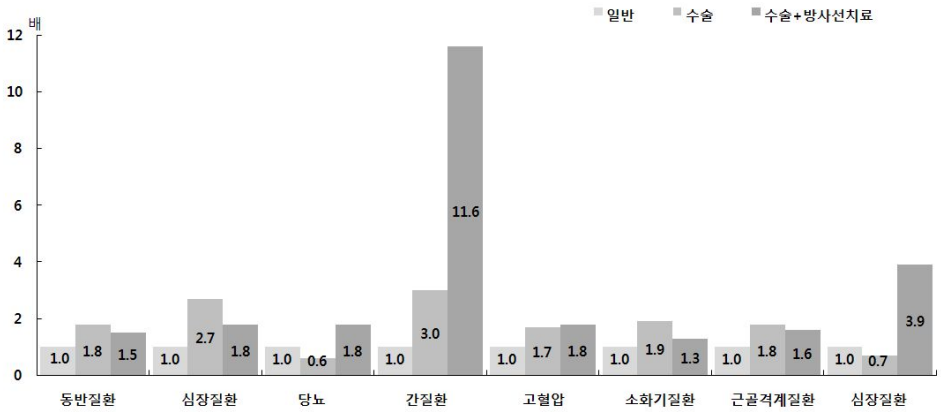


출처) Shin DW et al, Oncology 2008

### 자궁경부암생존자의 동반질환 - 항암치료의 효과 -



### 자궁경부암생존자의 동반질환 - 방사선치료의 효과 -



출처) Shin DW et al, Oncology 2008

## 5.3 재가암환자 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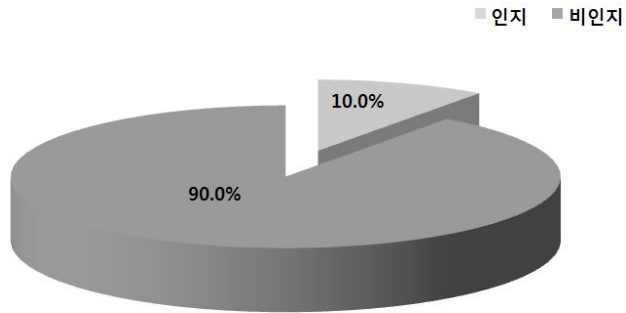
### 재가암환자 방문서비스 만족도 조사

2008년 11월 12~21일까지 재가암환자 방문서비스 수혜자 1,500명 중 846명에게 전화 시도를 하여 총 300명의 수혜자와 설문조사 성공함(응답률 3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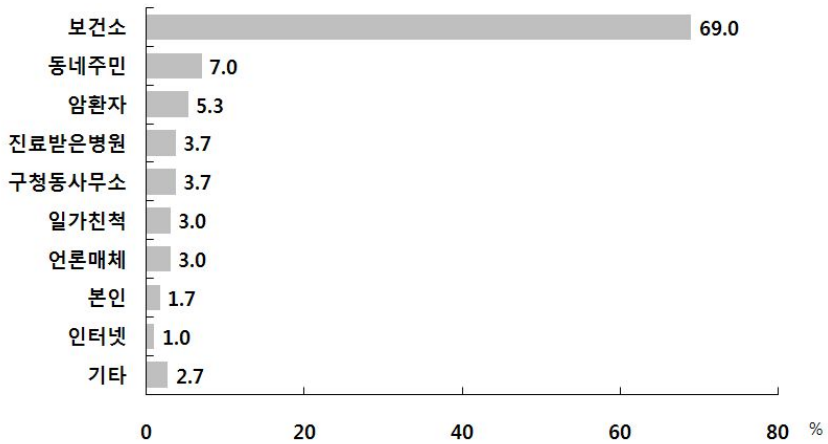
재가암환자 방문서비스에 대한 홍보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암에 걸리기 전에도 재가암환자 방문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 총 299명이 설문에 응답하였고 응답자 중 10.0%가 암 발생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응답함.

재가암환자 방문서비스를 알게 된 경로를 분석해 본 결과, '보건소 직원'을 통해 알게 된 경우가 69.0%로 가장 흔한 인지경로였음.

발암전 재가암환자 방문서비스 인지여부 [2008년]



재가암환자 방문서비스 인지방법 [200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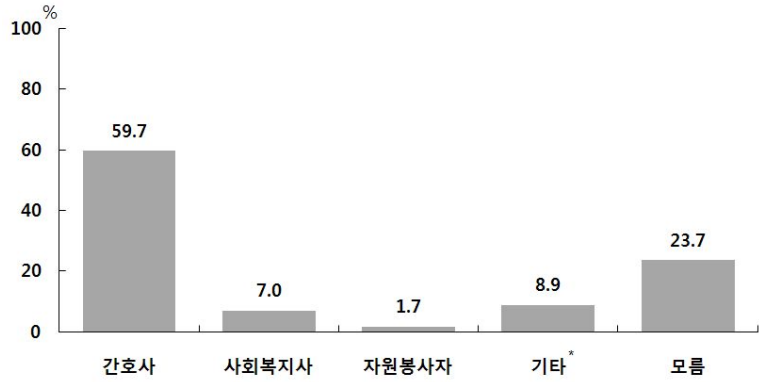
출처) 국립암센터 2008

## 재가암환자 방문인력 및 방문서비스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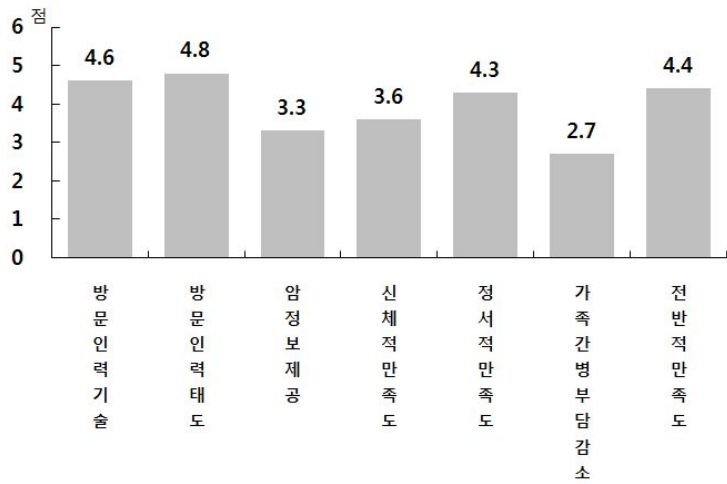
재가암환자 방문인력은 ‘간호사’가 59.7%로 가장 많았으며 ‘사회복지사’가 방문했다는 경우가 7.0%, ‘자원봉사자’가 방문했다는 경우는 1.7%에 불과하였음. 방문한 사람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23.7%를 차지함. 기타 방문인력으로는 보건소 직원(14명), 보건소장(9명), 의사(1명) 순으로 응답함.

재가암환자 방문서비스의 만족도를 ‘전반적 만족도’ 및 ‘방문인력 기술에 대한 만족도’, 가족의 간병부담 감소’ 등 총 7개 분야로 나누어 조사하였음. 방문서비스에 대한 수혜자의 만족도는 ‘방문인력 태도’가 4.8점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임. 만족도가 가장 낮은 분야는 평균 2.7점인 ‘방문 후 가족의 간병부담 감소’였으며, 다음으로 ‘암정보제공 만족도’(3.3점), ‘방문 후 신체적 만족도’(3.6점) 순이었음.

재가암환자 방문인력현황 [2008년]



분야별 재가암환자 방문서비스 만족도 [2008년]



출처) 국립암센터 2008

주) \*: 복수응답

## **제 6부 . 암 기 반**

## 6.1 암정보/교육

### 암정보 DB구축 건수

2003~2009년까지 국가 암정보 DB구축 건수를 보면, 2003년 17개 암종 DB를 구축하였고, 2009년까지 매년 증가하여 총 75개 암종을 구축하였음. 또한 기구축된 암종에 대해 지속적으로 갱신하고 있음.

#### 암정보 DB구축건수 [2003~2009년]

• 연도별 암정보 DB 구축현황

년도	개발내역	세부내역
2003	17개 암종	위암, 폐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갑상선암, 자궁경부암, 췌장암, 방광암, 전립선암, 신장암, 뇌종양, 후두암, 소아백혈병, 소아림프종, 신경모세포종, 율름종양
2004	5개 암종	구강암, 담낭, 담도암, 맥락막흑색종, 소장암, 인두암
2005	7개 암종	급성골수성백혈병, 급성림프구성백혈병, 청신경초종, 척수암, 뇌하수체선종, 전이성뇌종양, 신경교종
2006	11개 암종	소아뇌종양, 편평상피세포암, 기저세포암, 악성흑색종, 균상식육종, 난소상피암, 만성골수성백혈병, 다발성골수종, 골수이형성증후군, 신우요관암, 외음부암
2007	10개 암종	악성림프종, 자궁내막암, 임신용모질환, 고환암, 위림프종, 비소세포폐암, 식도암, 소세포폐암, 자궁육종, 위장관간질종양
2008	12개 암종	질암, 난소생식세포종양, 피부암, 부갑상샘암, 침샘암, 원발부위불명암, 음경암, 망막모세포종, 직장유암종, 위유암종, 편도암, 안종양
2009	13개 암종	육종, 직장암, 항문암, 담낭암, 담도암, 결장암, 요도암, 악성골종양, 남성유방암, 부신암, 악성연부조직종양, 수막종, 교모세포종

• 기 구축된 암종 갱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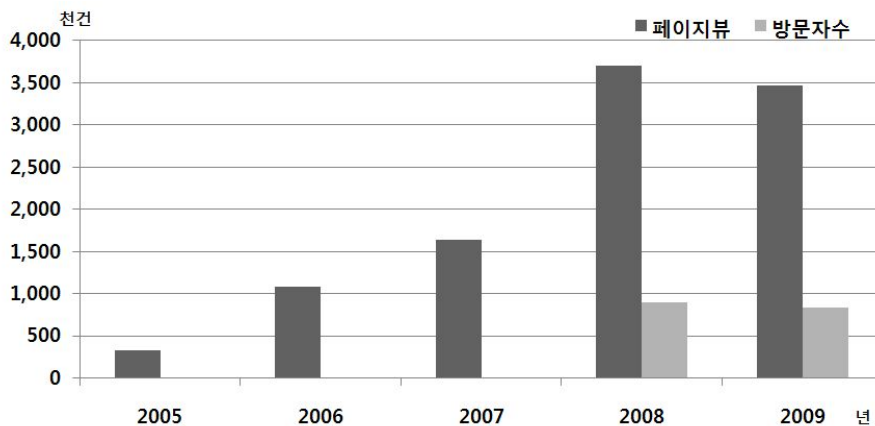
년도	개발내역	세부내역
2009	34개 암종	담낭담도암, 고환암통계, 담낭담도암통계, 담낭암통계, 담도암통계, 대장암통계, 위암통계, 유방암통계, 전립선암통계, 직장암통계, 췌장암통계, 후두암통계, 갑상선암통계, 난소암통계, 방광암통계, 식도암통계, 갑상선암 진행단계, 신장암통계, 자궁경부암통계, 폐암통계, 간암통계, 다발성골수종통계, 항문암통계, 갑상선암치료현황

## 암정보 인터넷서비스 및 상담 이용

국가암정보센터의 암정보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한 접속자수는 2005년 325천건이었던 것이 2009년 3,462천건으로 급속한 증가를 보임.

또한 암정보 서비스 전화와 온라인 상담 건수는 2009년 각각 37,842건, 3,392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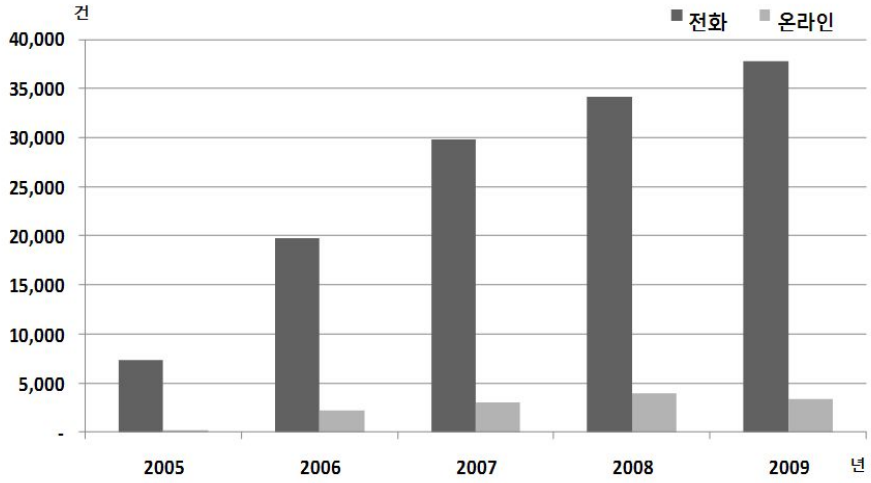
국가암정보서비스 인터넷 페이지뷰/방문자 건수 [2005~2009년]



출처) 국립암센터 2009

주) 2008년 1월부터 방문자수 로그분석 시작

국가암정보서비스 전화/온라인 상담건수 [2005~20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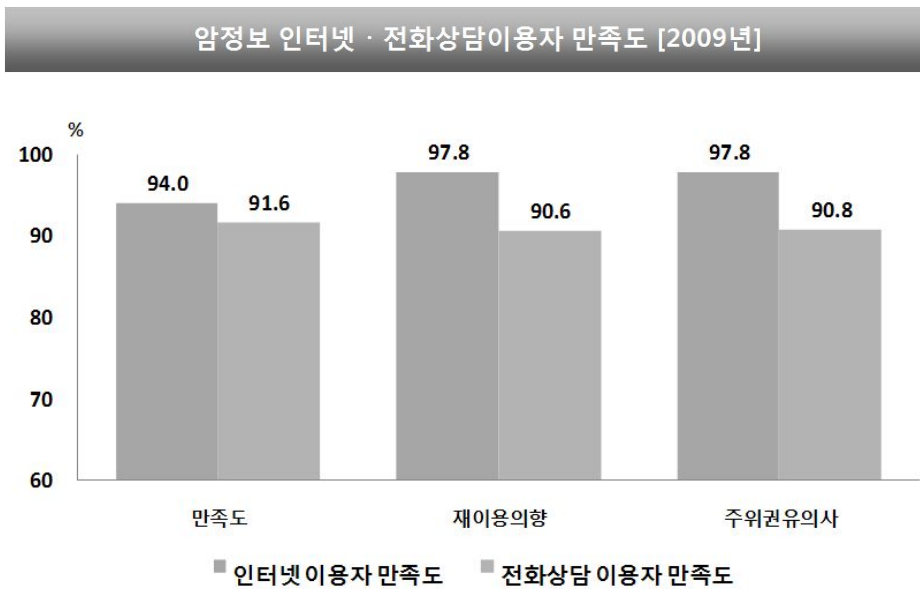


출처) 국립암센터 2009

## 암정보 인터넷/전화상담 서비스 만족도

2009년 국가암정보센터의 암정보 인터넷서비스 이용자에 대해 연 2회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총 183명이 응답함. 국가암정보 인터넷서비스 이용자 만족도는 94.0%로 상당히 만족한 것으로 조사됨.

또한 전체 전화상담 이용자 37,842명 중 무작위 추출한 1,216명에 대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화상담 이용자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91.6%로 조사됨.



출처) 국립암센터 2009

## 암정보 교육자료 개발 건수

2006~2009년 암정보에 대한 교육자료 개발은 2006년 암설명, 암조기검진용 리플릿을 시작으로, 2007년 8종, 2008년 15종, 2009년 20종이 개발되어 총 60종의 교육자료가 제작됨.

암정보 교육자료 개발건수 [2006~2009년]

년도	개발내역	세부내역
2006	17개 암종	암설명용 리플릿 (11종) 암일반,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갑상선암, 췌장암, 담도·담낭암, 전립선암
		암조기검진용 리플릿 (6종) 암일반,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판넬 (11종) 암의 이해,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전립선암, 국가암정보센터, 국가암관리사업, 암예방수칙교안
2007	8개 암종	리플릿 (4종) 유방자가검진, 국민 암예방수칙, 간흡종 예방 및 관리, 암 예방과 검진
		동영상 (2종) 유방자가검진동영상, 식도암 환자교육용 동영상
		리플릿, 소책자, 책갈피 암환자의 통증은 조절될 수 있습니다. 암성 통증관리지침 권고안, 통증, 참지 말고 말씀하세요!, 통증자 의사용, 통증자 환자용
2008	15개 암종	와블러 (1종) 유방 자가검진
		소책자(PDF) (1종) 건강할 때 미리미리 암 조기검진(5대암)
		동영상 (1종) Moving beyond breast cancer
		리플릿 (1종) 암환자를 위한 국가지원프로그램
		A4 리플릿 (11종) 말기암환자를 위한 호스피스 사립기관, 국가암조기검진사업안내, 국가암조기검진프로그램, 유방 자가검진, 국민 암예방 수칙, '위암' 예방과 검진, '간암' 예방과 검진, '대장암' 예방과 검진, '유방암' 예방과 검진, '자궁경부암' 예방과 검진, 암환자와 가족에게 권하는 14가지 수칙
		포스터 (1종) 통증, 참지 말고 말씀하세요 A4 리플릿 (1종) 금연 콜센터 리플릿
2009	20개 암종	동영상 (3종) 암의 이해 애니메이션, 암검진 캠페인, 암예방 10대 수칙
		소책자 (12종) 위암 질지침, 금연 지침서, 금연 교육용 소책자, 간병 가이드, 치료 종결 후 건강관리, 돌리와 함께 쓰는 병원일기, 꼬마오리 니버, 코딱지 외계인, 대장내시경검사 질관리, 대장내시경검사 질지침, 간암 검진 질지침, 간세포암종 진료 가이드 라인<의료인용>

출처) 국립암센터 2009

## 암전문가 양성교육 연혁

국립암센터에서는 2001년부터 암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을 실시함. 2001년 암예방 및 조기검진사업과정, 재가암환자 관리과정의 실무자 교육을 시작으로 2002년에는 암예방 및 조기검진사업과정 관리자 교육과 고위과정, 전문가 양성과정을 실시함. 2004년 의사 및 전문단계 교육을 시작하고, 2007년부터는 지역암센터의 재가암환자 관리과정 교육, 2008년에는 암등록실무자 교육과정, 암관리사업지침교육이 시작됨.

암전문인력 교육연혁 [2001~2008]

출처) 국립암센터 2009

## 암전문가 양성교육 개설과정

2001년 시작된 국가암관리사업과정은 지침교육, 표준교육, 지역별 전문교육으로 분류되어 암예방 및 조기검진과정, 재가암환자 관리과정, 암등록실무자 교육과정으로 세분화되어 실시되고 있음.

암전문인력 교육과정은 대장내시경아카데미, 의학물리아카데미, 혈액종양아카데미, 수련과정, 세포병리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 웹기반 임상시험 관리시스템 교육과정, 국제장루·창상·실금 전문간호과정으로 나뉘어져 있음.

또한 고위과정은 보건복지정책, 생명과학연구, 중앙전문간호, 호스피스, 보건복지통계고위과정이 실시되고 있으며, 2009년까지 총 2,778명이 교육을 이수함.

### 암전문가 양성교육 개설과정 [2009년]

#### 1. 국가암관리사업 교육과정

과정명	대상	교육기간	장소	인원(명)
암예방 및 관리과정	보건복지가족부, 시도·군·구 보건소장 등	'09. 5. 21 ~ '09. 5. 22	국립암센터 행정동 지하 강당	50
재가암환자 관리과정 (담당자)	보건복지가족부, 시도·군·구 보건소 재가암환자관리 담당자	'09. 4. 22 ~ '09. 4. 24	국립암센터 행정동 지하 강당	13
재가암환자 관리과정 (의사)	보건복지가족부, 시도·군·구 보건소 근무의사 및 공중보건의	'09. 6. 25 ~ '09. 6. 26	국립암센터 행정동 지하 강당	18
암예방 및 조기검진 사업과정(기본)	보건복지가족부, 시도·군·구 보건소 암 예방 조기검진사업 담당자	'09. 3. 25 ~ '09. 3. 27 '09. 4. 1 ~ '09. 4. 3	국립암센터 행정동 지하 강당	135
암등록의무기록사 과정	암환자 진료의료기관, 지역암센터, 지역암등록본부 의무기록사, 암등록자료관리담당자 등	'09. 3. 13 ~ '09. 3. 20 '09. 3. 26 ~ '09. 3. 27	서울 및 부산	228
말기암 및 재가암환자 관리 사업 전문인력 양성과정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인력 표준교육 교육자, 호스피스·완화의료 실무 간호사 등	'09. 2. 20, 4. 23, 6. 18	국립암센터, 대전·부산지역암센터	45
계				489

## 암전문가 양성교육 개설과정 [2009년] -계속-

### 2. 암전문인력 교육과정

과정명	대상	교육기간	장소	인원 (명)
대장내시경 아카데미	소화기내과 전문의, 외과전문의	'09.03.01 ~ '10.02.28	대장암센터	3
의학물리 아카데미	의학물리관련 박사학위소지자	'09.03.01 ~ '10.02.28	양성자치료센터	4
혈액종양 아카데미	내과전문의자격소지자 (지역암센터 연계)	'09.03.01 ~ '10.02.28	임상시험센터	2
전공수련과정	전공약사	'09.01.01 ~ '09.12.31	약제과	4
	전공영양사	'09.01.01 ~ '09.12.31	임상영양실	2
	수련사회복지사	'09.01.01 ~ '09.12.31	사회사업실	2
세포병리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	세포병리전문의로과정	'09.01.01 ~ '09.12.31	검진동7층전산교육장	27
	세포병리기사과정	'09.01.01 ~ '09.12.31		27
	세포병리기사(심화반)	'09.01.01 ~ '09.12.31		28
웹기반 임상시험 관리시스템 교육과정	정규교육	'09.03.09 ~ 20 '09.09.17 ~ 09.18	검진동7층전산교육장	40
	수시교육(이러닝 포함)	'09. 1.20, 1.21, 2.11, 2.13, 3.13, 3.25, 4.15, 4.24, 5.22, 5.27, 6.24, 7.17, 9.16		248
국제장루·창상·실금 전문간호과정	전문간호분야 실무자, 책임자, 교수 등	'09.10.12~'09.12.04		7
계				394

### 3. 고위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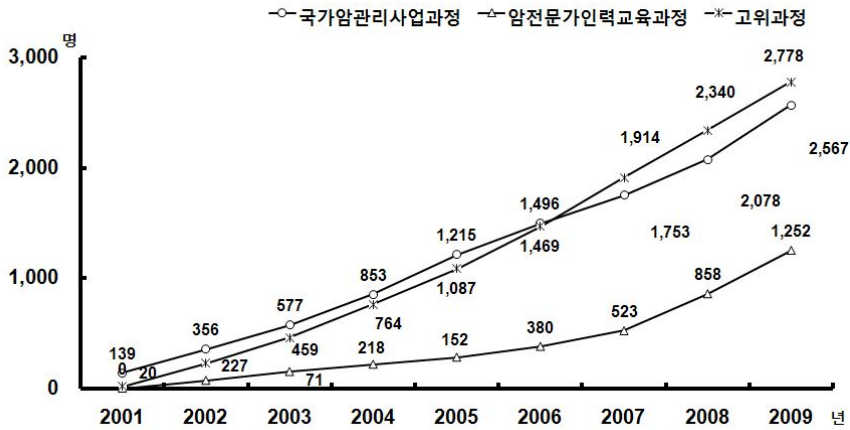
과정명	대상	교육기간	장소	인원 (명)
보건복지정책 고위과정	국가 암정책 관계자 및 국립암센터 직원	'09.03.02~'10.01.25	행정동 지하강당	93
생명과학연구 고위과정	생명과학 연구분야 과제 책임자 등	'09.03.02~'10.01.26	연구동 1층강당	66
보건복지통계 고위과정	보건복지 및 임상연구분야 연구자 등	'09.03.02~'10.02.04	검진동7층전산교육장	70
중앙전문간호 고위과정	중앙전문간호분야 실무자, 책임자, 교수 등	'09.03.02~'10.01.25	검진동8층 강당	101
호스피스 고위과정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 종사자 등	'09.03.02~'10.01.28	검진동8층 강당	108
계				438

출처) 국립암센터 2009

## 안전문가 양성교육 이수자수

안전문가 양성교육 이수자수를 보면, 국가암관리사업과정의 경우 2001년 교육이수자 139명을 시작으로 매년 증가하여 2009년 현재 총 2,567명이 수료함. 또한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안전문가 양성과정 1,252명, 고위과정 2,778명 수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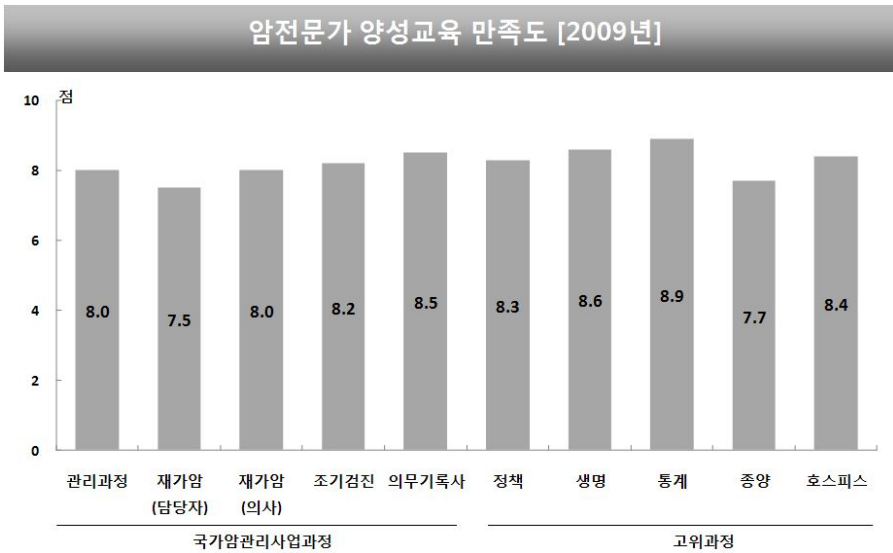
안전문가 양성교육 이수자수 [2001~2009년]



출처) 국립암센터 2009

## 암전문가 양성교육 만족도

암전문가 양성교육 후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국가암관리사업과정의 경우 전반적으로 80%이상이 만족한다는 응답을 하였으며, 고위과정의 경우, 84% 이상이 만족한다고 응답함.



출처) 국립암센터 2009

## 6.2 암등록/지역암센터

### 암등록본부

우리나라의 암등록사업은 1980년부터 수련병원을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한국 중앙암등록본부와 지역 인구내의 암발생 통계를 생산하기 위한 8개 지역의 암등록본부 [서울(1991), 부산(1995), 대구(1997), 광주(1997), 인천(1998), 대전(1999), 울산(2001), 제주도(2001)]가 있음.

2004년 12월 중앙암등록본부 및 8개의 지역암등록본부는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음. 이 외에도 일부 암종을 대상으로 임상학회 및 연구회 주축의 암종별 암등록사업이 수행되고 있음.

중앙암등록본부는 8개의 지역암등록본부의 자료 및 암종별 암등록사업 자료를 포함하여 국가암발생DB를 구축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2005년부터 우리나라 1999~2001년 암발생률을 산출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암통계를 발표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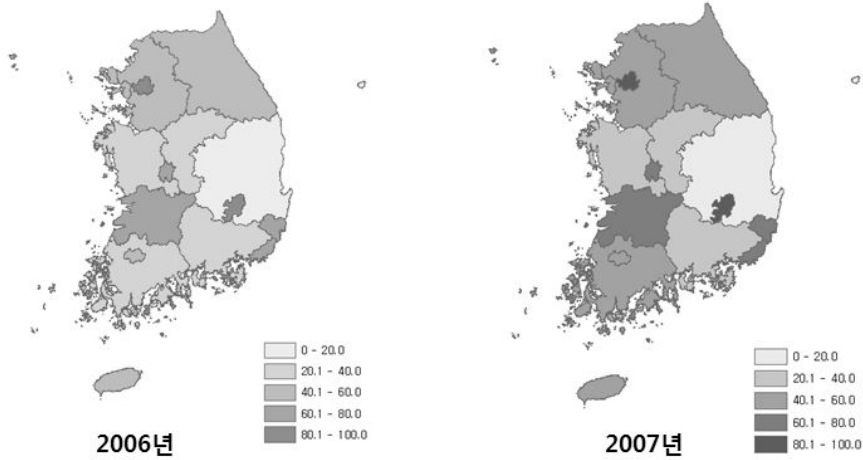


출처) 국립암센터 2009

## 암환자 자체충족률

2006~2007년 동안 서울을 제외한 지역별 암환자 자체 충족률을 살펴보면, 2006년과 2007년 모두 대구의 자체충족률이 가장 높았고 경북의 자체충족률이 가장 낮았음. 또한 16개 시도의 2006년 대비 2007년의 자체충족률 변화는 전남이 가장 크게 증가하였고, 충북이 그 뒤를 따름. 같은 기간 감소폭이 가장 큰 지역은 인천임.

## 지역암환자 자체충족률



## 암등록자료를 활용한 16개시도별 자체충족률 변화 [2006~2007년]

[ 단위 : % ]

구분	전체		
	2006년 (A)	2007년 (B)	B/A* (%)
서울	90.5	89.0	-1.7
부산	79.0	79.8	1.0
대구	83.9	86.1	2.6
인천	58.0	55.1	-5.0
광주	43.2	42.3	-2.1
대전	67.0	71.1	6.1
울산	60.8	63.0	3.6
경기	50.8	53.4	5.1
강원	49.6	50.2	1.2
충북	31.1	34.0	9.3
충남	26.4	26.7	1.1
전북	61.7	61.5	-0.3
전남	36.6	40.4	10.4
경북	15.6	16.2	3.8
경남	32.5	34.0	4.6
제주	41.0	40.2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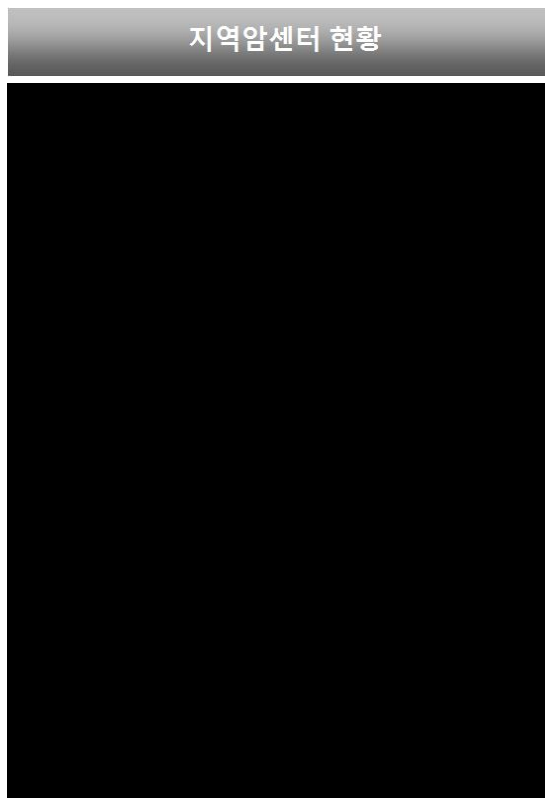
$$*B/A = \frac{2007\text{년 자체충족도} - 2006\text{년 자체충족도}}{2006\text{년 자체충족도}} \times 100$$

출처) 중앙암등록본부 암발생등록환자자료

## 지역암센터 현황

2004~2006년까지 지방국립대학병원을 대상으로 매년 3개소씩 늘어나  
2009년 현재 총 9개소의 지역암센터가 지정되어 있음.

- 2004년: 전북지역암센터, 전남지역암센터, 경남지역암센터
- 2005년: 부산지역암센터, 대전지역암센터, 대구·경북지역암센터
- 2006년: 강원지역암센터, 충북지역암센터, 제주지역암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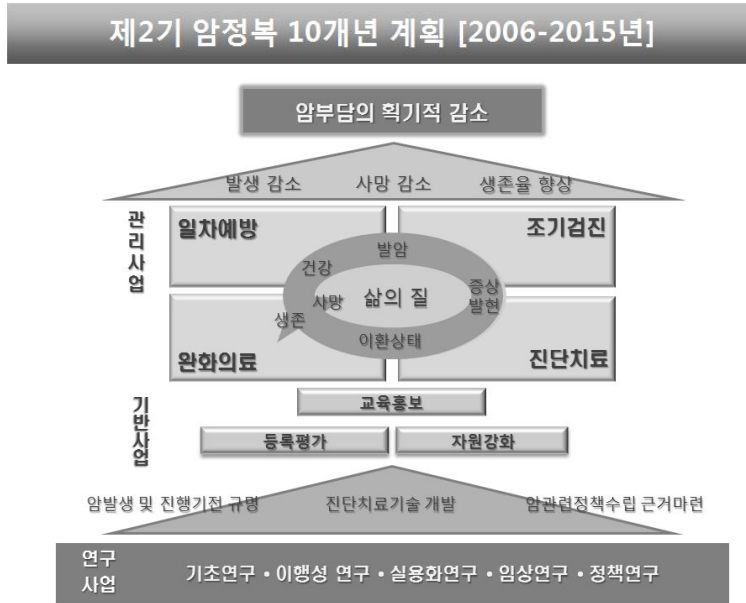
출처) 국립암센터 2009

## **제 7부 . 암 정 복 10개 년 계 획**

## 7.1 제2기 암정복 10개년 계획

제1기 암정복 10개년 계획(1996~2005년)이 완료됨에 따라 새로운 제2기 암정복 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됨. 국립암센터 등 암전문가를 중심으로 전문가 공청회 개최, 관계 부처협의 등을 거쳐 제2기 계획을 수립함.

제2기 암정복은 종합적 암관리를 통한 암발생, 암사망의 최소화하여 암부담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고자 하는 비전으로 하여, 암 위험요인 중점관리를 통한 암예방 강화, 전 국민 암조기검진 달성, 암환자 진료의 보장성 강화 및 지원확대, 암환자 재활완화의료 지원강화, 적극적 국가암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 세계적 수준의 진단치료 기술 개발, 국민이 체감하는 교육홍보 실시, 체계적인 암등록 및 관리 평가를 하고자 함.



### 제2기 암정복 10개년 계획 기본 방향

비전	종합적 암관리를 통한 암발생, 암사망의 최소화 암부담의 획기적 감소	
정책 목표	암 사망률 19.4% 감소 (’05년 116.7명 → ’15년 94.1명)	암 생존율 17.6% 증가 (’05년 45.9% → ’15년 54.0%)
추진 전략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암 위험요인 중점관리를 통한 암예방 강화</li> <li>2. 전국민 암조기검진 달성</li> <li>3. 암환자 진료의 보장성 강화 및 지원 확대</li> <li>4. 암환자 재활·완화의료 지원 강화</li> <li>5. 적극적 국가암관릴 위한 인프라 구축</li> <li>6. 세계적 수준의 진단·치료기술 개발</li> <li>7. 국민이 체감하는 교육·홍보 실시</li> <li>8. 체계적인 암등록 및 관리 평가</li> </ol>	

출처) 보건복지부 2006

## 제2기 암정복 10개년 계획 추진체계

### 1. 암 위험요인 중점관리를 통한 암예방 강화

	2005	2010	2015
성인 남성 흡연율	52.3%	30.0%	15.0%
B형 간염 표면 항원 양성률	4.2%	1.0%	1.0% 미만
인유두종바이러스 감염예방	-	감염실태 파악	예방법 개발

### 2. 전국민 암 조기검진 달성

	2005	2010	2015
전국민 암검진 수혜율	40.2%	60%	80%
국가 암조기검진 수혜율	20.0%	40%	60%
검진기관 정도관리율	26.8%	50%	100%
국가 암조기검진 만족도	59.0%	70%	80%

### 3. 암환자 진료의 보장성 강화 및 지원 확대

	2005	2010	2015
암환자 보장률	64.4%	75.0%	80.0%
암환자 의료비 수혜자수	28천명	40천명	60천명
결수기종 희망자수	10만명	20만명	30만명

### 4. 암환자 재활·완화의료 지원강화

	2005	2010	2015
완화의료 병상수	307	1,000	2,500
완화의료 수혜자수	3,300명	20천명	40천명
재기암환자 지원 수혜자수	5천명	20천명	25천명

### 5. 적극적 암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

	2005	2010	2015
지역암환자 자체 중추율	52.4%	60%	70%
전문형 지역암센터 지정(개소)	1.5개소	20개소(13)	34개소

### 6. 세계적 수준의 암 진단, 치료기술 개발

	2005	2010	2015
진단치료	• 대부분 외국 수입	• 진단시의 10종 이상, 치료제 표적5종, 전임상 후보물질 15종 개발	• 진단시의 15종 이상, 전임상 10종, 1상 5종, 2-3상 8종 개발
진단기술	• 장기단위 형태 영상 진단	• 세포, 분자, 유전자 단위 영상 진단 기술 개발	• 세포 분자단위 등 영상진단 기술 보급
치료기술	• 수술, 면역요법, 방사선 치료 • 개인지 반응 연계	• 표적지향적 화학요법 및 방사선 치료 • 맞춤형치료 도입	• 새로운 유전자, 항체치료 보급 • 맞춤형치료 실현
연구수준	• 미국의 60% 수준 • SCI 논문 세계 16위	• 80-90% 수준 • 세계 10위	•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 • 세계 5위

### 7. 국민이 제감하는 교육·홍보 실시

	2005	2010	2015
암정보 DB 구축	30종	100종	200종
국가암정보센터 만족도	86점	90점	95점

### 8. 체계적인 암 등록 및 관리 평가

	2005	2010
암발생통계 산출기간 단축	4년	2년
암발생통계 국제공인 확대	4개 지역	전국(07년)

## 참 고 문 헌

- 강은정. 담배가격의 효율성과 형평성 분석. 보건복지포럼 2009
- 국립암센터. 국가암관리사업 지원 및 평가. 건강증진기금사업 보고서 2009
- 국립암센터. 암환자완화의료사업 활성화 지원. 건강증진기금사업 보고서 2009
- 국립암센터. 암검진 수검률조사 2004-2009
- 국립암센터. 암예방 인식 및 실천행태조사 2009
- 국립암센터. 암진료 질향상 체계 및 암보장성 강화방안 개발 2009
- 국립암센터.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대국민인식조사 2008
- 국민건강보험공단. 2008년 건강보험 암진료환자 분석 2009
- 국제암연구소. Globocan 2002-2004 <http://www.iarc.fr> 2007
- 노동부.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노동부 고시 제2002-8 2002
- 보건복지부. 암정복 2015 제2기 암정복 10개년 계획 2006
- 보건복지부. 2006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결산서 2007
- 보건복지부. 소득계층에 따른 암환자의 암종별 의료이용에 관한 연구 2006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2008
- 보건복지부. 한국인의 질병부담 2005
- 보건복지부 중앙암등록본부. 2007~2009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제1~4기 1차년도 결과보고서 1998-2007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제4기 2차년도 결과보고서. (국민건강영양조사 제4기 2차년도) 2008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업성 암현황 2008
- 윤영호 외. 가정의학 전문의와 암 전문의의 암성 통증 관리에 관한 지식과 태도. 가정의학회지 2005; 26(07): 397~403
- 윤영호 외. 품위 있는 죽음과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태도. 한국 호스피스, 완화의료학회지 2004; 17-28
- 한국 금연운동협의회. 우리나라 흡연실태. <http://www.kash.or.kr> 2009
-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연보 2009
- ACGIH. American Conference of Governmental Industrial Hygienists (ACGIH). TLVs and BEIs. Signature Publications 2007
- Ahn SH et al.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in disease-free survivors of breast cancer with the general population. Annals of oncology 2006 2007; 18: 173-182
- Bae JM et al.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among disease-free stomach cancer survivors on Korea. quality of life research 2006; 15: 1587-1596
- Boffeta P. Epidemiology of environmental and occupational cancer. Oncogene 2004; 23(38): 6392-6403
- Choi KS et al. Job loss and reemployment after a cancer diagnosis in Korea -a prospective cohort study. Psycho Oncology 2007
- Health Statistics in Japan, 2007
- IARC. IARC Monographs on the evaluation of carcinogenic risks to humans. (series) 1972-2007
- IARC. World cancer report 2003
- Kim JH et al. Economic Burden of Cancer in South Korea for the year 2005. J Prev Med Public Health 2009; 42(3): 190-198

Lee MK et al. Factors affecting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in women with recurrent breast cancer in Korea. *qual life res* 2006

National Cancer Center in Japan, *Cancer Statistics in Japan* 2008

National Cancer Institute. *Cancer Trends Progress Report*, 2007

NHS. *Cancer Screening Programmes. NHS Breast Screening Programme Annual Review*, 2008

NHS. *Cancer Screening Programmes. NHS Cervical Screening Programme Annual Review*, 2008

OECD. <http://www.oecd.org> 2009

Park JH et al. Job loss and reemployment of cancer patients in Korean employees: a national wide retrospective cohort study. *journal of clinical oncology* 2008

Park SM et al. Prediagnosis smoking, obesity, insulin resistance, and second primary cancer risk in male cancer survivors: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study. *journal of clinical oncology* 2007; 125(30): 4835–4843

Ries LAG et al (eds). *SEER Cancer Statistics Review, 1975–2005*, National Cancer Institute. Bethesda, MD, [http://seer.cancer.gov/csr/1975\\_2005/](http://seer.cancer.gov/csr/1975_2005/), based on November 2007 SEER data submission, posted to the SEER web site 2008

Schottenfeld D. Fraumeni Jr JK. *Occupation in cancer epidemiology and prevention*. (3rd). Oxford, New York 2006

Shin DW et al. Comorbidity in disease-free survivors of cervical compares with the general female population. *Oncology* 2008; 74: 207–215

Shin HR et al. Prevalence and determinants of genital infection with papillomavirus in female and male university students in Busan, South Korea. *J Infect Dis* 2004; 190: 468–76

Shin HR et al. Prevalence of Human Papillomavirus Infection in Women in Busan, South Korea. *Int J Cancer* 2003; 103: 413–21

Yoon SJ et al. Estimation of the burden of major cancers in Korea. *J Korean Med Sci* 2002; 17: 604–10

WHO. National Cancer Control Programmes; policies and managerial guidelines. 2nd ed. Geneva 2002

# 만 든 사 랫

총괄: 정재성

제작 및 편집: 최석영, 방진영

자문 및 검토:

국립암센터 국가암관리사업단 (가나다 순)

계수연	공현주
김연주	박기호
박소희	박은영
박은철	박종혁
신동욱	오경희
오진경	윤이화
이후연	임민경
장윤정	전재관
정규원	최귀선
최진영	한미아

통계로 본 암 현황

Cancer Facts & Figures 2010

---

<b>발행일</b>	2010년 3월 19일 (초판발행)
<b>발행인</b>	보건복지부 장관 · 국립암센터 원장
<b>발행처</b>	보건복지부 서울 종로구 율곡로 75 (계동 140-2) 국립암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323
<b>문의처</b>	전화 031) 920-2904 팩스 031) 920-2909 이메일 jyb@ncc.re.kr
<b>인터넷주소</b>	<a href="http://www.ncc.re.kr">www.ncc.re.kr</a>

---

비매품

본 책자의 무단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